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71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2월 24일(음력 11월 27일) 수요일(주간)

•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다시 듣는 선지식들의 가르침
14 2008년 선지식 법어요약



생명 · 평화 노래하다
5 현장속으로-생명평화탁발순례단



"땅이 튼튼해야 돼요"
9 도반의 향기-서분례



밥 짓고 일하는것도 수행
13 함께가요 강의실-서명원 신부

'너'가 있어 '나'도 있다

밝은사람들, 무·공·연기·무상 통해 '나' 집중 조명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너도 나도 힘든 때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전염병처럼 퍼지며 온 세상을 휘감는다.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대개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기 쉽다. 이유 없는 낙관론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모두 제 각각이지만 평상심을 잃고 우왕좌왕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왜일까?

전문가들은 자아경계(ego boundary)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라 진단한다. 외부의 충격 등으로 자의식을 잃은 자아상실은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을 동반한다.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에 "내가 망하면 이 세상도 망할 것(망해야 한다)"이라며 자아범람의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 '묻지마 살인' 등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이들이다. 자아상실과 자아범람 두 가지 모두 '나'가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현대 사회의 화두가 돼 버린 '나'를 두고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등 불교학을 비롯해 서양철학, 심리학, 정신의학, 생물 · 면역학 등 학제간 소통의 장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이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6차 학술연찬회가 그것.

행사는 지난 6월 '욕망'을 주제로 열린 제5차 학술연찬회처럼 교재의 선제공, 사전질문 접수 등 철저히 기획 · 연출됐다. △초기불교는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를, △중관 · 유식불교는 허인섭 교수(덕성여대)가 '내가 없다(無我)는데 의식은 홀로(唯識) 어디에 있는가'를, △선불교는 김진무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참나 혹은 진아의 탐구와 불성으로서의 자성'을, △서양철학은 박찬국 교수(서울대)가 '본래적 자기와 존재지향적 자아, 그리고 우아한 자아'를, △정신의학은 김종주 원장(반포신경정신과의원)이 '무의식 또는 상상계와 상징계 속의 자아'를, △심리학은 권석만 교수(서울대)가 '자기개념의 발달과 구조 그리고 심리장애와의 관련성'을, △생물 · 면역학은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복잡계 속에서 깨어있는 나'를 발표했다.

#'나'는 본래 '無'=불교의 기본 사상은 무아(無我)다. 정준영 교수는 "초기불교에서의 무아는 실체적 자아에 대한 부정"이라 강조했다. 초기불교에서는 자아는 애당초 실재하지 않는 희론적 개념이다. 정 교수는 "'나'가 고정된 것이라면 무상함의 기본 교리에서 벗어 난다"고 설명했다.

자아를 부정하기는 유식불교도 마찬가지. 허인섭 교수는 "유식불교에서 자아는 (집착식인) 말라식이 잘못 전한 개념적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선에서는 무아가 곧 진아(眞我)다. 김진무 연구교수는 "중국 선에서의 자성은 본체의 진리로서 설명되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초기불교 입장을 내부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성'은 본래 '空'=대승불교의 핵심은 중관불교에서 체계화된 공(空) 사상이다. 공은 무자성(無自性) 혹은 자성의 비어있음으로 실체적 자성에 대한 부정을 뜻한다. 허인섭 교수는 "실체적 자성은 유식불교에서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구성적 무아이론이 유식"이라며 "중관과 유식은 철저히 초기불교의 무아이론을 정밀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무 연구교수는 "선은 자성이 있어 보라고 한 것 보다 실체가 없음을 보라고 말했다"며 "'지금 이 자리'의 관계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나'의 근원은 '緣起'=자아는 흔히 '거울'을 비유로 설명된다. 권석만 교수는 "거울은 자기 개념 발달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어 권 교수는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피드백에 의한 자아형성을 강조했다. 우희종 교수도 "일란성 쌍생아가 사람은 달라도 DNA가 같은 것처럼 자기정체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말했다.

#'나'란 존재는 '無常'='나'는 시시때때로 변화한다. 가족과의 '나', 직장에서의 '나' 등. 하지만 어느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일까? 정준영 교수는 "'나'는 변화하기에 고정되지 않은 존재"라 주장했다. 박찬국 교수는 "하이데거도 일상적 삶에서 자기 동일성 없이 분열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며 "삶에서 정체성과 통일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석만 교수는 "자기 개념은 수많은 경험을 통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현실에 잡고 미래를 현실에서 포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관계속의 '나'는 만들어 가는 것=이날 발표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표현한 용어가 다르고, 설명방법이 달랐어도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는 명제만은 같았다. 결국 '나'는 관계성 속에 실현될 어떤 것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희종 교수는 "이 자리에는 삶이 있을 뿐 '나'는 없다"는 말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우 교수에 따르면 '나'는 '나'와 '너'의 관계성에 있는 존재이며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내 주위사람이며 '내' 삶속의 '당신'이다.

결국 '나'는 버릴 것도 찾을 것도 아니었다. 오직 만들어질 뿐이며, 남이 있어 존재할 뿐이다. 나를 '나'답게 하는 길이 남을 위하는 이타행이며 수행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역경 보살'이 역경원 떠난 이유?

東大, 월운 스님 '재계약' 통보 없이 거부

'역경보살'로 불리며 평생 역경불사에 헌신해 온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이 갑작스레 역경원을 떠나 충격을 주고 있다.관련칼럼 2면

12월 1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월운 스님의 역경원장 이임법회가 봉행됐다. 당초 역경 후원회 법회(삼장법회)로 열릴 예정이었던 법회가 동국대의 일방적 해임결정에 따라 이임법회가 된 것. 스님의 해임은 12월 8일 오영교 총장이 주재한 동국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아무런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내려진 것이었다. 월운 스님이 역경원장에 취임한 1993년 이후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재계약이 승인됐던 관례에 비췄을 때 동국대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가칭)불교학술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월운 스님은 "종단적 합의기구로 설립된 역경원을 교수 합의기구로 격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신의 역경원장 해임보다 역경원 위상이 추락할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조동섭 기자

"예수님 박애 본받아 서로 아끼고 사랑합시다"

지관스님 성탄축하 메시지 발표…현수막도 게시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 포교국장 부명 스님, 재정국장 원철 스님과 조계사신도회 이영우 부회장 등은 12월 17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의 성탄 축하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2008년 성탄절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예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관 스님은 12월 17일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깊고도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을 2000만 불교도와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세간의 그늘은 탐진치 삼독(三毒)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그림자일 뿐"이라며 "탐욕의 동굴은 용기 있는 버림과 나눔으로, 분노의 불꽃은 다스림과 근면으로, 사견의 칼날은 타인을 이해하는 겸허함과 사랑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일월(日月)과 같은 예수님의 박애(博愛)를 본받아, 국민 모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9년째 성탄메시지를 발표한 조계종은 우정국로에 축하현수막도 내걸었다. 김성우 · 노덕현 기자

불황 · 한파, 마음공부로 '희망'을…
특별기획 ③생활속의 참선수행 -한마음선원 ▶ 7면

첫서리 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주소(D)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社 告
'법보시'로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 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 (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올겨울 추위, 난방비 걱정 끝!
냄새없고 전기료가 부담없는 나산전기난로로 해결하세요!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나산전기난로
나산원통형 고열량 / 카본히터
사용장소/공장용 · 업소용 · 농업용 · 사무실용
NS-76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2.5kW,약: 1.2kW.
• 회전기능 : 좌우 90도
• 높이조절 : 상하. 135cm ~ 100cm
• 중량 : 약 8.5kg
• 크기 : 반사경(60cm) 높이 : 135cm
●산업용(공장, 기업체) 20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5kW×8시간=1,358원
(안전인증번호) NS-7600 : HH07142-2008D
특별할인가: 19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NS-78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1.8kW,약: 900W.
• 회전기능 : 좌우 90도
• 높이조절 : 상하. 135cm ~ 100cm
• 중량 : 약 6.5kg
• 크기 : 반사경(54cm)높이 : 135cm
●상가용(15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kW×8시간=978원
(안전인증번호) NS-7800 : HH07142-1004C
특별할인가: 17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강력난방 국내생산 1년간 A/S
▲DD-2000(적용면적 : 5평형)
열량 / 2kW • 사이즈 / 270×470mm • 무게 / 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kW×8=1,086원
특별할인가: 78,000원 (택배비 2,800원 소비자부담)
NS-7000
◀NS-7000(적용면적 : 10평형)
열량/ 2.9kW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9kW×8=1,575원
NS-7200
◀NS-7200(적용면적 : 5평형)
열량 / 1.8kW • 사이즈 / 355×660mm • 무게 / 3.5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kW×8=978원
난방비 90%절약!!!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kW×8=978원
나산전기 난방기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 /중국산과 비교불허!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무소음 / 무취 / 무연
일반히터는 히터주변만 따뜻하지만 나산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주 사용처 : 사무실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 / 주점 / 팬션)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나산전기히터!
www.nsheater.com / www.나산난로.com
* 주문하시면 3일이내에 배송됩니다.
나산전기난로 : (NS-7000) 98,000원 / (NS-7200) 78,000원
문의전화 080-001-0022
입금계좌 :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택배비 2,800원 소비자 부담)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월운 스님과 금강송

12월 11일 강원 삼척 준경묘 묘역에서는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에 쓰일 110살 금강송의 첫 벌채가 있었다. "어명이요"하는 외침 후 목수는 도끼를 휘둘렀다. 나무를 베기 전 고함만 친 것은 아니었다. 돼지머리를 올린 상에 문화재청과 삼척시 공무원, 목수들이 절을 올리며 산신제를 지냈다. 전주 이씨 문중 사람들은 준경묘 제각에서 고유제(告由祭)를 올리며 나무를 베겠다는 축문을 읽었다.

이보다 앞선 12월 8일 조계종립대학 동국대(총장 오영교)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 월운 스님은 역경원장에서 해임됐다.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동국대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학교 측은 "(가칭)불교학술원 설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지만, 졸지에 평생 일군 불사에서 물러나는 변을 당한 어르신 만큼이나 지켜보는 역경 관계자들도 부끄럽기 그지 없는 처사였다.

스승 운허 스님의 뒤를 이어 월운 스님이 역경원장을 맡은 지 15년, 돌도 자리 잡아 쉽사리 옮길 수 없는 세월이다. 110살 금강송도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켰기에 산신제 등을 지내며 예를 갖추고, 끝으로 '어명'이라며 나무의 혼을 달랜다.

흔히 인재불사와 교육은 나무에 비유된다. 인재 하나를 키우는 것이 나무 한 그루 자라는 시간만큼 긴 세월을 필요로 하기에 비교되는 것이리라. 굳이 동체대비(同體大悲)까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수 팔순을 앞둔 월운 스님과 110살 금강송이 다르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역경불사는 도제양성, 포교와 함께 조계종단 3대사업이다. 스님은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불사라는 한글대장경 완간 사업을 이끈 '역경보살'이다. 그런 역경원 터줏대감을 동국대는 사전에 아무 절차 없이 단 한번 회의만으로 내쳤다. 무엇보다 대강백의 안목을 잃는 것이 큰일이다. 월운 스님의 원력에 감동해 줄이었던 후원이 끊겨 역경사업이 위축되고, 조계종단의 관심에서 더 멀어질 것도 자명하다.

우스개 중에는 고희(古稀, 70)는 '아직 이른 나이'요, 희수(喜壽, 77)는 '지금부터 노락(老樂)을 즐기는 나이', 산수(傘壽, 80)는 '아직 쓸모 있는 나이'라는 말이 있다.

이임법회에서 정각원장 종호 스님이 "법회가 열리는 것을 당일 아침 알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월운 스님에 대한 예우도 문제지만, 종단적 대사를 개혁의 명분하에 재가교수들에게만 맡기고 말 일인지 종립 동국대의 성찰이 필요한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종교화합 위한 소통 1번지 될 것"

종교언론인협 제12회 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엄 개최

"종교언론사들간의 상호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와 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종교언론인협의회(대표의장 장형준)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2회 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엄이 12월 12~13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올 한해 동안 논란이 되었던 종교편향 문제를 되돌아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12월 12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제12회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엄. 오른쪽부터 임연태 본지 부국장, 지미숙 크리스챤연합신문사 편집국장,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육관응 원불교신문사 편집국장, 서상덕 가톨릭신문사 취재팀장.

이날 심포지엄에 기조 발제에 나선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은 주제발표 '종교화합을 위한 종교언론의 역할'을 통해 "세상에는 하나의 종교만이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양한 종교적 신념체계를 인정하고 자기 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의 종교가 인정받길 원한다면 상대주의 또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주변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언론은 종교편향을 눈으로만 보는가?'를 발표한 임연태 현대불교신문 부국장은 "종교언론인협의회가 생명윤리,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해 종교를 초월한 담론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강조하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종교언론 연합포럼 · 세미나 등을 개최하자고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종교언론의 화합으로 시대갈등 해소를' 주제로 발표한 지미숙 크리스챤연합신문사 편집국장은 "종교 지도자들의 예지력과 여론을 주도하는 종교언론의 화합된 한 목소리로 이 시대의 갈등을 해소하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육관응 원불교신문사 편집국장은 '종교화합만이 종교간 상생의 길'을, 서상덕 가톨릭신문사 취재팀장은 '종단내부에서부터 대화의 장 마련'을 각각 발표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종교언론인협의회는 새 대표의장으로 정유제 밀교신문 편집국장을, 공동의장에 기독교신문 유달상 편집부국장 · 원불교신문사 육관응 편집국장 · 가톨릭신문사 서상덕 취재팀장을 선출하고, 사무총장에 신원식 한국불교신문사 편집위원을 선임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조계종 제5기 고시위원장에 종석스님 선출

제5기 조계종 고시위원장에 종석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장 · 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종석 스님을 임기2년의 신임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앞서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종석 스님과 함께 제179회 조계종 중앙종회의 추천 동의를 거친 지환 · 지현 · 종호 · 지안 · 설우 · 종묵 · 본각 · 지형 스님에게 제5기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종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임 고시위원 스님들의 노력으로 5급, 4급, 3급 승가고시 종단의 중요 연래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승가고시를 통한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도 실시될 승가고시 일정도 확정됐다. 고시위원 스님들은 5급 승가고시는 2009년 3월 7일과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하고, 4급 승가고시는 2월 20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열기로 했다. 3급 승가고시는 10월 중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2급 승가고시 일정은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조동섭 기자

사미 이라크 종교위원장 조계종 방문

이라크 종교평화회의 사미 후세인 아트로쉬 위원장(이라크 국회의원)이 12월 18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부터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서 진행한 이라크 어린이 환자 초청치료 감사차 마련됐다. 사회부장 세명 스님과 사미 위원장, 사바나희 알아라비아 방송기자들 이라크대표단은 종교화합의 메세지를 나눴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특성화된 템플스테이 필요"

템플스테이 발전 위한 세미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좀 더 특성화시키고 외국인 대응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원섭 박사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 나경원 · 전병헌 의원이 12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주최한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 박사는 '한국 대표 관광상품으로서 템플스테이의 가능성과 개선점'이란 발제를 통해 "템플스테이는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 지역경제활성화 · 관광수요시장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정부 및 지역산업과 연계 부족, 운영 인력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찰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중앙 · 지방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통한 외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발전연구원 김준 박사는 '지역관광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다. 김 박사는 "지방사찰이 지역 구성원 고령화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관광과 연계한 템플스테이는 현실적 요구"라며 "템플스테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찰의 경우 어김없이 지역문화와 잘 연계돼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어 "해남 미황사의 경우 땅끝마을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만도 연인원 8천여 명이 찾는 등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사찰은 모름지기 지역문화의 중심에서서 지역민과 호흡하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지(금강) 스님의 생각이 큰 몫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황사는 현재 마을 당재, 산사음악회 등을 지역문화 일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테라사키 요시유키(前 Travel joumal 지국장)씨는 '템플스테이 해외 마케팅 방안'을 발제했다. 테라사키씨는 "요즘 한 · 일 여행사 모두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과 연계되는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33관음성지 템플스테이 상품을 일본 내 일제 판매하고, 한국여행의 단골상품으로 정착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구축, 한 · 일사무국의 조직적 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김성윤(前 휠라코리아 마케팅 상무), 대요 스님(화엄사 포교국장), 김득환(외교통상부 문화예술사업과) 등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Templestay.com'은 '2008 코리아 디지털미디어 어워드' 공공 및 교육분야에서 비영리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진성 기자

종단협, 대한불교법화종 제명

내년 3월 대통령 초청 기원법회 봉행

대한불교법화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제명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 이하 종단협)는 12월 16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장기간 회비및 사업비를 미납하고 참여가 저조하다며 대한불교법화종에 대해 제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 산하 회원종단은 총 26개로 줄었다.

종단협은 이날 회비및 사업비를 미납한 5개 종단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대한불교원융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열반종, 대한불교법상종은 미납된 회비 일부를 납부하는 등 성실한 동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차기 이사회까지 징계를 유예했다.

종단협은 이어 내년 사업으로 △기축년 신년하례법회(1월 14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이명박 대통령 초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3월) △청계천 등달기 및 인천공항 봉축행사(4~5월) △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예비회의 4월, 본대회 10월) △ 제7차 중국불교계 초청 한국불교 수행체험(9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7억101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김성우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종도화합과 종단발전을 위한 창종 47주년 종도대회

진리의 새벽을 여신 원효보살을 종조로 모신 본 종단은 **종도화합과 종단발전을 위한 창종 47주년 종도대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다 음-

일 시 : 2009년 1월 6일(화) 오후 12시
장 소 : 호텔경주교육문화회관 (경북 경주시 신평동 150-2) ☎ 054)745-8100

증 명 : 임시종정 향 운
봉행위원장 : 임시총무원장 용일
부 위 원 장 : 종도회장 금봉, 임시사무총장 도봉
봉 행 위 원 : 원로위원 벽송, 무진, 정향, 청은, 고산, 일휴, 혜봉, 대운, 도경, 경운, 창해

문의처 :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 02)735-0501~2 / Fax 02)736-3509



서불대, 학내분규 종식 선언

법원 조치따라 제적생 35명 복적…前 학생회장은 고소중

35명 제적 사태를 맞았던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의 학내분규가 일단락됐다.

서불대 복적생 35명 전원은 12월 2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과 학교법인 보문학원에 드리는 사과문'을 내고 학내분규 종식을 선언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학생 측 가처분신청(2008카합1408)의 법원 조정에 따라 발표된 사과문에서 복적생들은 "학내문제를 외부에 노출시켜 언론과 국가기관 및 불교계, 관련 학회 등에 학교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유도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측의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고 면학에 더욱 힘쓸 것을 부처님 앞에 약속드린다"며 끝을 맺었다.

법원 조정 합의문에 첨부된 학생 측 시행세칙은 △총장대행에 사과 △극락사 참회법회를 통한 이사장 지욱 스님에 대한 참회 △교계 언론 등 외부단체에 학내분규 종식과 학교복귀 발표를 알리는 사과문 공고 등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제적을 철회하고 행정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업일수를 인정해 보충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김영란 총장 대행은 "법원 조정에 따른 합의사항을 학생 측이 충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 후 복적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사과문처럼 학내 갈등이 종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총장 대행은 법원 조정을 며칠 앞두고 문임숙 前 학생회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학생들을 선동해 등록금을 공탁하게 했다는 이유다. 김영란 총장 대행은 "법원조정과 학생회장건은 별개"라며 "학생회장 고소건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학생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전 학생회장에 대한 고소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김영란 총장 대행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탄했다. 더욱이 김영란 총장 대행은 문임숙 前 학생회장과 같은 전공 주임교수로 안타까움을 더한다.

김 총장 대행의 학생 고소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해임된 황윤식 총장에 대한 법원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황 총장 해임 사유 중 하나인 학생 선동과 맞물려 있지 않겠냐는 것. 황윤식 총장 해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서불대 사태의 새로운 뇌관이다.

법원 조정에 학생들은 학내분규 종식을 선언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 측의 결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웃과 함께 사랑의 팥죽 나눠요"

조계사·진관사·중앙신도회 등 전국서 팥죽 나누기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12월 18~21일 은평구청과 은평경찰서에서 팥죽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진=박재완 기자

12월 21일 동지를 맞아 서울 조계사와 진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과 중앙신도회 등 신도단체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동지팥죽 나누기 등 자비행을 펼쳤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21일 인사동, 신평화시장에서 총 4500인분의 동지팥죽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달력 2만여 부를 배포했다.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도 19일 동국대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새알빚기 행사를 진행하고, 20일 인사동에서 전통놀이 행사를 가졌다.

김성우 기자



본각 스님·반영규 거사 대원상 선정

진흥원, 제6회 대원상 수상자 발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2월 19일 신라호텔에서 제130차 이사회의를 열고 제6회 대원상(大圓賞)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대상은 승가 교육에 이바지한 본각 스님(중앙승가대)과 불교음악가 반영규 거사가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좋은벗풍경소리(대표 성행)와 김형근(미주 <현대불교> 발행인)씨, 윤소희(부산대 국악학과 강사)씨가 뽑혔다. 올해 처음 신설된 불교진흥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상에는 이지선(프로젝트 활동가)씨, 문자영 작가, 정일훈·안태성씨(동련/앤츠)가 선정됐다.



본각 스님.



반영규 거사.

조동섭 기자



태고보우 국사 현창기념비 제막법회 성료 '태고보우 구법(求法) 현창기념비 제막법회'가 12월 15일 중국 절강성 천호암에서 봉행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과 중국 절강성 주정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법회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승정원장 남파 스님, 중국 절강성 호주시 묘서진인민정부 왕회강 등 한·중 불교학계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천호암은 태고보우 국사가 청공 선사로부터 임제선맥을 계승 받은 사찰이다. 김진성 기자

■ 아듀 2008

종교편향 극복하고 생명·평화·자비의 길 걷다

2008년 불교계가 참구한 대표 화두는 '종교편향'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이 이어지자,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한바탕 야단법석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도, '생명평화탁발순례단'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오체투지순례단'에 동참한 스님들은 종교의 벽을 넘어 사람과 자연이 둘이 아닌 신토불이(身土不二)의 도리를 온몸으로 실증했다. 불교계 최초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창립을 계기로 소액기부운동에 대한 관심과 보시문화가 확산되기도 했다. '불혹'을 맞은 군불교는 군종특별교구를 중심으로 군포교 원력을 다진 한 해였다. 해외에서는 중국내 티베트자치구에 유혈사태가 발생해 티베트불교가 큰 시련을 겪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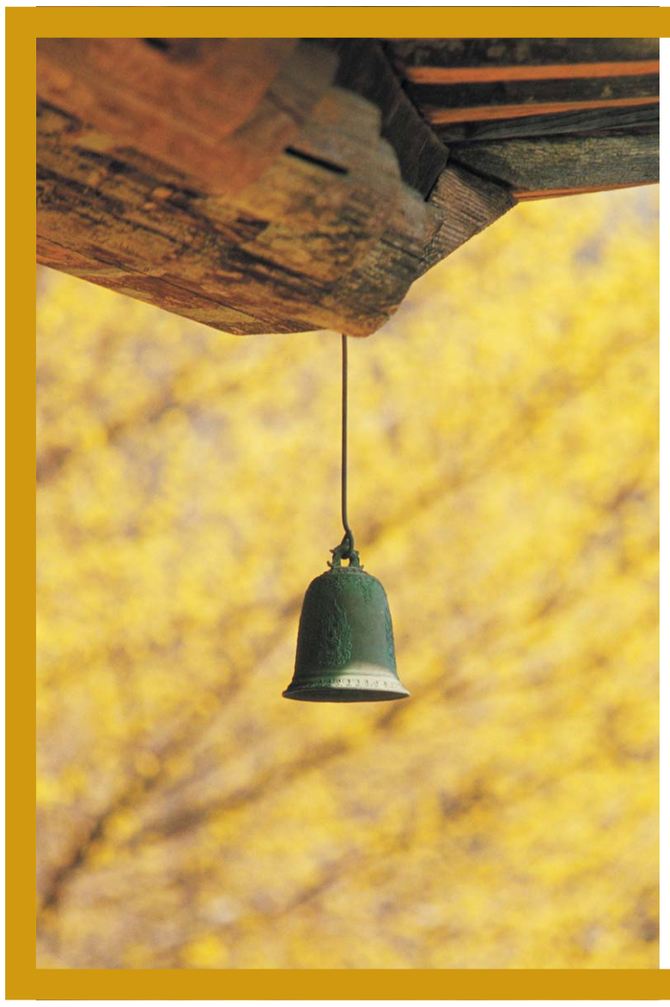
#종교 편향 반대 한 목소리= 6월 중순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 '알고가'에서 주요 사찰 표시가 빠지고, 어청수 경찰청장 사진이 개신교 전도집회 포스터에 게재된 데 이어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탄 차량을 과잉 검문하면서 불교계의 분노가 폭발했다. 8월 27일 서울 광장에서 연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에는 20만여 불자들이 운집했다(사진 아래). 11월 1일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 11월 15일 광주전남 정법수호결의대회(11월 15일) 등 불교계 항의는 계속됐다. 정부와의 갈등은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국회의 종교편향방지입법 약속, 어 청장의 사과 방문을 계기로 사실상 봉합됐다.

#생명·평화 위해 나선 구도자들= 도법 스님이 이끄는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은 2004년 3월 1일 지리산 노고단을 떠난 지 5년 만에 12월 14일 출발지인 노고단에서 대장정을 회향했다. 이에 앞서 도법·수경 스님은 5대 종단 성직자들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며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단을 결성, 2월 12일부터 100일 동안 대운하 예정지 1300㎞를 도보 순례했다. 이어 수경 스님은 문규현·전종훈 신부와 함께 9월 4일부터 두 달 동안 '사람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 오체투지 순례를 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나눔문화 확산= 불교계 최초의 공익법인 (재)'아름다운 동행'이 9월 30일 창립식(사진 위)을 갖고 공식 출범함으로써 소액기부 캠페인 중심의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360원 정도의 소액을 자동이체를 통해 매일 기부하는 '365 운동', 저금통 모금 운동인 '네모의 꿈 만들기' '나눔씨앗뿌리기' 등을 통해 기부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극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종단의 복지성금은 기업 기부금 50% 내외, 개인 기부금 10% 정도로 크게 늘었다.

#'불혹' 맞은 군불교= 군승 파송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군종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1년. 불교는 그 뒤 17년이 지난 1968년에야 제1기 군승 후보생 5명을 최초의 군법사로 배출했다. 현재 군법사는 140여명으로 늘어났고 군법당은 4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군내 불자 수는 2007년 말 현재 11만4000여 명으로 늘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불교군종사 군승 40년사> 발간 및 통일가사 제정 등을 계기로 군불교 중흥을 다짐하고 있다.

#티베트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 지난 3월 티베트에서 독립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정부가 무력진압에 나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200여 명이 숨지고 수 천여 명이 체포되는 현대판 법난(法難)이 발생하자 세계인들은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보이콧 운동을 펼쳤지만, 중국은 경제력을 앞세워 비난 여론을 잠재웠다. 이에 따라 11월 티베트 민족지도자 대표자 회의가 30여 년 만에 열려 그간 고수해온 '중도 노선'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우 기자



▶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절 수행 시 • 성지 순례 산행 시 • 장시간 공부·운전·운동 피곤 시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대자연 GREAT NATURE UNITED
www.amata.co.kr

아마따茶로 성불 수행의 기운을 돋우십시오!

다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 된 아열대지방의 허브 마테(Yerba Mate)는
정신과 육체의 기운을 돋우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세계 여러 분야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마따茶'로 마테(Yerba Mate)가 주는 건강을 누리세요.

아마따 란? 팔리어로 '감로'(달고 깨끗한 이슬)를 뜻합니다.

無설탕
無색소
無방부제

1566-6289
1BOX 24개입 48,000원 판매원 : 유기마켓(주) 농협 601139-51-006748 국민 580301-04-091374



마테(Yerba Mate)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원시부족인 '과라니족'에 의해 발견된 허브. 과라니족은 피로회복과 숙면을 취하는데 마테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마테는 현대인의 건강과 명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낙산사 · 금산사 사적지정

문화재청, 지형도면 등 제공할 계획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2월 18일 양양 낙산사 일원과 김제 금산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양양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671년) 의상 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낙산사7층석탑(보물 제499호) 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낙산사홍예문(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3호) 등 6건의 지방지정문화재가 있다.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발굴 조사한 결과 유적이 확인되는 등 유서 깊은 사찰로써 학술 · 역사적 가치가 인정돼 사적으로 지정됐다.

김제 금산사는 백제시대 사찰로 통일신라시대 진표 율사의 중창 불사 이후 1400여 년 역사를 가진 미륵신앙의 본산이다. 미륵전(국보 제62호)을 비롯한 목조건축 11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 ·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금번 사적지적된 양양 낙산사 일원과 김제 금산사 일원에 대해 문화재 GIS 종합정보망(gis.cha.go.kr)을 통해 지형도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관리단체와 협의해 체계적인 보존 ·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신행

동대부중 보현회 15년 동안 청소년·지역포교 앞장



청소년 · 지역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동대부중 보현회 · 학생회 · 교직원들이 12월 18일 성북장애복지관에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12월 18일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에 초록색 교복을 입은 중학교 학생들과 어머니, 교사들이 두 손 가득 라면과 휴지를 들고 나타났다. 보현회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교장 박일상, 이하 동대부중) 학생회 ·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여 만원과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의 물품을 후원한 동대부중 불교 어머니회인 보현회 노임숙 회장은 전달식에서 "아이가 졸업을 해도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을 쉬지 않고 할 것이다"며 "가족의 도움으로 복지관 주방에서 음식준비, 배식, 설거지 등의 봉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현관 스님은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신행과 자비행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가정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며 "올해 동대부중에서 9명의 특목고 학생이 배출된 것은 법당이 있는 학교에서 어머니의 선행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이 청소년 포교와 지역포교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숨은 주역 보현회는 1993년부터 불심이 있는 재학생 · 졸업생 어머니들로 구성됐다. 월례법회, 사찰법회, 불교교리강좌 등 학생, 교직원 교화활동 후원과 봉사활동을 15년간 이어온 보현회 어머니들은 가족의 무사안일을 위한 기도를 넘어 아름다운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2007년 9월부터 보현회 21명은 2인 1조로 매주 3~4회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급식봉사, 재가 장애인 가정봉사원, 목욕봉사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 회원들의 아름다운 신행활동이 인연이 돼 동대부중과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올해 10월에 상호교류협약을 맺는 성과를 낳았다.

서울 장안동 동대부중 1층 법당에는 학생과 어머니, 지역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보현회와 동대부중 학생회인 파라미타, 지역주민 불자회 바라밀회 회원들의 정기적인 법회와 신행활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현회의 신행활동은 자녀들이 졸업을 해도 바라밀회로 활동이 이어진다. 동대부중 박일상 교장은 자녀의 졸업과 동시에 부모님과 지역주민들의 신행활동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지역불자회 모임인 바라밀회를 만들었다. 바라밀회는 매달 2, 3째주 목요일 저녁 8시 동대부중 김덕진 교법사의 교리법회와 1달에 1회 108 사찰순례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일상 교장은 "학생들을 위한 법당을 넘어 도심 ·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포교당을 만들기 위해 2006년 5층에 있던 법당을 1층으로 이전하게 됐다"며 "바라밀회가 있어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수행활동을 돕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신행활동으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제1회 종교평화상 시상

8·27 연대연설한 김광준 신부



대한성공회 김광준 신부(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 사진)가 제1회 종교평화상을 수상했다.

미주종교평화협의회는 12월 9일 美 LA 한인타운내 원불교교당에서 미주종교평화협의회 공동대표 현철 스님(미주승가회 서부회장), 공동대표 최정안 교무(원불교미주서부교구장), 상임대표 양현승 목사, 상임이사 이태영 신부(성프란치스코한인천주교 주임) 등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가운데 제1회 종교평화상식을 개최했다.

현철 스님은 "지난 8월 27일 서울시청 앞 범불교도대회에서 김광준 신부가 종교간 대화를 위해 한 연설이 종교간의 대화와 평화에 기여했다고 여겨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신부는 "모든 종교의 지향점은 평화와 사랑이어야 한다"며 "오늘 수상은 종교평화운동가로서 평화운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매질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 신부는 이날 수상 후 UN을 방문해 종교연합체 결성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나도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주최…Sharewill 운동

신개념 자원봉사 프로젝트 "의지나눔 Sharewill 운동"이 12월 16일 서상호 신라호텔 총주방장의 만남으로 9회를 맞이했다. 서울 종각타워 33층에 있는 신라호텔 탑클라우드에서 열린 이번 만남에서는 10명의 청소년들이 주방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보며 요리사의 꿈에 희망을 심었다.

학생들은 주방을 둘러보고 티라미스 쵸코크림, 망고무스 등으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어보고, 서상호 신라호텔 총주방장과 김상완 탑클라우드 총주방장과 함께 요리사에 대한 꿈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상호 주방장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좋은 것을 평소에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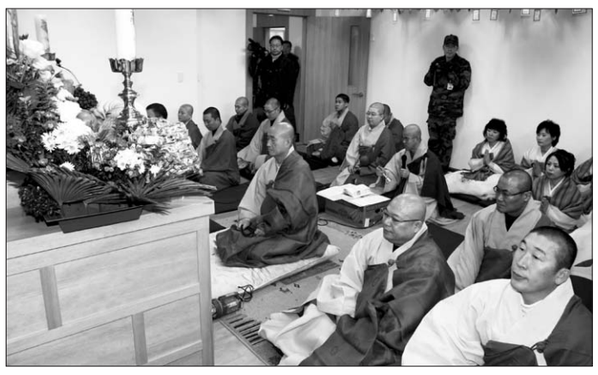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보라(고1) 학생은 "지금도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지만 이렇게 큰 주방에서 직접 체험해보니 꿈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확고해 진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의지나눔Sharewill 운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직장에 초대해 1~2시간 정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봉사를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02)723-5101

이상언 기자

軍혹한기 불심으로 따듯하게

군법당 잇따라 신축…GOP위문행사도 열려



12월 16일 공군 수리산 313방공관제대대 법당신축점안법회가 봉행됐다.

매서운 북풍에도 나라를 지키는 군장병들을 위해 따스한 부처님의 품이 느껴지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12월 23일 연천 5사단 GOP경계부대를 찾아 떡과 귤 등 먹거리와 위문품, 합장주와 포교책자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대격려금 100만원과 군법당인 광복통일사 지원금 100만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위문방문에는 교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무량정사 묘관 스님, 군승단후원회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다.

위문방문에 더해 군법당도 신축돼 군불자들이 보다 쉽게 불법을 접할 수 있게 됐다. 12월 16일에는 공군 수리산 313방공관제대대 법당 점안법회가 봉행됐다. 점안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의왕 용화사 덕문 스님, 지장선원 현호 스님 등 대대 금강회장 김기학 준위, 불자장병 및 신도 70여 명이 참석했다.

12월 28일 오전 10시에는 국군기무사령부 통일호국사 유마선원 낙성법회도 봉행된다. 국군기무사령부 과천 신청사 시대를 맞이해 신축된 유마선원 개원법회에는 일면 스님, 현혜 권기태 주지법사 등 군불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2)749-8646

노덕현 기자

"상대방 편에서 이해하는 자비의 전화"

불교상담개발원 송년감사의 날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사)자비의전화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제19회 송년감사의 날'을 개최했다.

12월 15일 서울 오션씨푸드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포교국장 부명 스님 등 70여 명의 봉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성료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세우기보다는 상대방 편에서 이해하고 항상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 대가없는 사랑을 베푼다면 맑고 향기로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 진다. 불국토를 만드는데 항상 앞장서는 봉사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덕 스님은 "다사다난한 한해였지만 봉사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수상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며 "어려운 난국에 상담을 원하는 사람도 많고 상담원도 더 필요할 것이므로 더욱 분발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상담원 7명, 2000건 이상을 상담한 상담원(정진상) 2명, 우수 상담팀 1팀에 대한 수상이 진행됐다.

이상언 기자

전주교도소 무자년 송년대법회 개최

전주교도소 재소자 200여 명은 12월 18일 정읍 일광사 대주 승천 스님과 전북도 공무원 불자 20여 명과 함께 재소자 송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전라북도 공무원 불자들은 하와이춤을 선보여 재소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다. 가요 공연에 이은 재소자 노래자랑은 모두 하나되는 흥겨운 자리를 연출했다.

1986년부터 전주교도소 교화에 매진해 온 승천 스님은 이날 '이달의 불자상', '무자년 불자상'등을 시상하며 재소자들에게 상품(영치금)을 전달했다.

김성우 기자

대구 보훈병원 법당 부처님 점안 및 개원식

대구 보훈병원 법당 개원식 및 부처님 점안식이 12월 12일 보훈병원 동관 1층 대회의실 불교관에서 주지 밀허 스님, 교무 청호 스님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보훈병원에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절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주지 우학) 목욕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봉사단은 교회는 있는데 법당이 없는 현실을 보고 몸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보훈병원 증축 및 완공을 기념해 법당 개원을 발원하게 된 것.

대관음사 연화봉사단과 포교사단은 병원법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생명평화탁발순례단 5년순례 회향마당 동행기

석가와 예수의 길따라 생명평화 노래하다



"이웃종교를 무시하는 자기종교 중심의 배타적 삶을 참회하며 절을 올립니다."

"내 가족만을 위하며 이웃을 배척하는 이기적 삶을 참회하며 절을 올립니다."

"나 중심의 편협한 삶을 버리고, 남과 함께하는 자족의 삶을 다짐하며 절을 올립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에는 12월 13일,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뜨겁다. 차가운 돌판에 깔린 얇디얇은 판지 위에서 참회의 절을 일 배 또 일 배 올리는 모습에는 성속(聖俗)의 구분도, 노소(老少)의 구분도 없다.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은 1217일 동안 3만리를 걸으며 8만 선지식을 만난 긴 여정의 마지막 순례로 13일 종로 일원에서 회향마당을 개최했다. 순례단은 낮에는 탁발순례를 했고 밤에는 지역현장 사람들과 만났다. 좌 · 우 이념 대립의 희생자와 기지촌 여성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는 위령제와 천도재도 100차례 이상 지냈다.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 고 외치며 2004년 3월1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첫발을 내딛은 대장정. 그 끝자락에서 선재동자의 보현행원으로 순례단 대중들이 서원삼아 내리는 실천명제는 경건하기 그지없다.

이날 순례는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 서울광장, 청계천을 지나 보신각에서 '생명평화 100대서원 절명상' 으로 끝마쳤다. 보도블럭으로 덮힌 길과 철근으로 둘러싸인 시청, 인재(人災)로 소실된 남대문이 생명평화의 노란 조끼와 묘한 대비를 이뤘다.

아스팔트와 시멘트에 묻혀 사는 겨울 도시인들에게 노란 조끼의 생명평화 메시지는 봄소식 마냥 따스하다.

9살 아이를 데리고 마지막 순례에 참가한 김연희 씨(41)는 "큰 애가 6학년인데 도시에서는 조기교육 등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어렸을 때는 경쟁보다, 자연과 더불어 꿈을 키우는 게 중요해 마지막 순례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녀교육을 위해 내년 실상사 작은 학교가 있는 산내면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일선 복지현장 실무자도 순례에 동참했다. 대전 대동 복지관 권순룡 관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물질추구와 생명경시로 위험에 처해있다. 5년간의 탁발순례는 이러한 사회에 생명과 나눔의 삶을 주장했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관장은 순례 회향 후에도 새로운 길 걷기를 바라면서 그 정신을 이어 순례의 길을 걸을 계획이다.

탁발순례에는 스님, 목사, 수녀를 비롯한 종교인들도 참가해 종교간 화합과 평화 의지를 표현했다. 성심회 이미경 수녀는 "순례단을 만난 것은 지난 부처님오신날이었다. 사회현안에 나서지는 않았던 내 자신이 순례하면서 바뀌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 보다 너 자신을 바꿔라', '말 보다는 침묵과 실천으로 보여라' 는 순례단의 정신은 내게 크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미경 수녀는 이어 "2000년 전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큰 깨달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나부터 작은 것부터 바꾸게 된 것이 5년간 얻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보신각에서 마지막 순례를 마친 순례단은 종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닫는 마당을 개최했다. 생명평화탁발순례단장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발길이 닫는 곳마다 생명평화의 기운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을 순례했다"며 "순례단이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우주 삼라만상과 밥, 잠자리, 마음을 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생명평화가 삶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현장에서 정진해 가자"고 당부했다.

"생명평화의 길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념이요. 깨어있는 선택이며, 지금 여기서의 행동하는 삶입니다. 나로 인해 모든 생명과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이 낭독한 생명평화서약문은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순례를 말하고 있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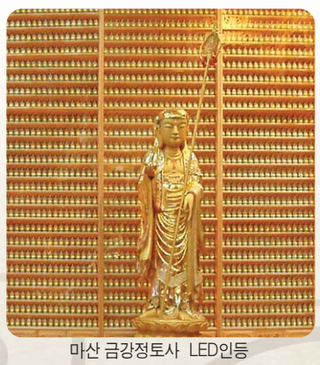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일주문



동국대 동문회장 선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홍영춘 前 SK에너지 사장과 동국대 동문회 동문회장에 선출됐다.



청소년스스로지킴이 종합발표회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12월 13일 제주시 남녕고등학교 강당에서 제7회 청소년스스로지킴이 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



불교인권위 군의문사 위로콘서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군의문사 유가족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영등포복지관 연예인 초청 한마당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지거 스님은 12월 23일 부루나홀에서 개관기념 연예인 초청 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02)3667-0873



좋은벗풍경소리 작은음악회

'좋은벗풍경소리' 회장 성행 스님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작은음악회 및 후원의밤' 행사를 봉행했다.



보스턴미술관 불교문화재반환운동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은 2009년 1월 7일부터 미국 보스턴에서 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 반환 운동을 벌인다.



청와대불자회 송년법회

청와대불자회 강윤구 회장은 12월 29일 1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부와 협력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은 12월 16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변도윤 여성부 장관을 초청,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6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는 12월 23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6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공연했다.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KPGA(한국프로골프) 배상문 선수는 1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1호로 위촉됐다.

"악업 참회하고 선업 짓는 삶 살기 바래"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 펴낸 강선희 보살

"능엄다라니를 공부하던 어느 날 <티벳 사자의 서>를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 100字 만트라이고, 그 확장이 능엄다라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 임종을 계기로 본격적인 불교공부를 하고 능엄주 수행의 달인으로 인정받은 평범한 주부가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를 펴냈다. 기존 <티벳 사자의 서>가 대부분 번역서인데 반해 실제 수행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웰다잉을 위한 불서다.

저자 강선희 보살(46 · 여성불자108인 · 사진)은 본인의 호스피스(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티벳 사자의 서>에 접근한다. 평소 많은 사람들의 임종과정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례 절차를 몸소 실천하며 수많은 49재 과정에 참여해온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의 체험들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좌탈(坐脫: 앉아서 입적하는 것)한 모습에 자극을 받고 수행을 결심했다. 그 후 재가수행자로 서암스님(前 조계종 종정 · 1917~2003), 무불선원장 석우 스님,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까르마빠 린포체, 미얀마의 우빤디따 사야도 등 국적을 초월한 제방 선지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위빠사나, 주력, 간화선, 티베트불교를 선 · 교의 균형을 맞춰가며 정진해 왔다. 최근에는 기업, 사찰 등에서 불교 수행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죽은 후에는 빛을 따라 가야 하는데, 이를 모르면 환생 또는 열반에 이르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이 됩니다. 영가(靈駕)를 이끌어주는 천도재나 49재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죽은 자 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책을 썼다고 말하는 그는 "이 책을 읽은 분들이 그동안 지은 악업(惡業)을 참회해 선업(善業) 짓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혜거 스님(금강선원 원장)은 추천사에서 "죽음의 순간부터 49일까지 영가에게 해탈의 과정을 한 계단식 쉽게 끌어올리고 있다"며 "우리 장례문화를 <티벳 사자의 서>속에 흐르는 사상과 연계해 이해를 심화하고, 옛 스승들이 깊은 선정 속에서 이룩한 정신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점이 돋보인다"고 밝혔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 통찰과 수행 체험이 담긴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는 우리의 의식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준다는 설명이다.

강 보살은 "마음을 기울여 탐독하다 보면, 죽음의 두려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내 밝고 긍정적인 대변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나은 기자

"불교외호에 최선 다하겠다"

국회직원불교신도회 제18대 김창호 회장

"국회 정각회를 도와 입법지원 활동 등으로 종교화합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12월 16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열린 국회직원불교신도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창호 국회의장 공보수석(44 · 사진)은 "국회 직원들의 단합을 이끌고,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를 도와 종교편향 예방 등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년동안 117명 국회사무처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이끌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하태수 전임회장을 이어 더욱 신심 깊은 불자회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각회 서포터기능을 강화해 국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불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김 회장은 "조계종 등 종단들과의 관계도 보다 유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교외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창 호 회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제17대 대통령후보 방송특보를 거쳤으며 7월 김형오 국회의장 공보수석으로 임명됐다.

노덕현 기자

"법보신문 기획팀 대상"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대표수불) 시상식이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총무부장 원학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법보신문 기획취재단이, 각분야 최우수상에는 한겨레 신문 조현 기자의 '하늘이 감춘 땅'(신문), 아리랑TV 단기출가 2부작(TV), BBS거룩한만남 900회특집(라디오)이 수상했다. 불교언론인상은 이계진 국회의원이, 특별상은 노희경 방송작가가 각각 수상했다.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들.

암자와 토굴 등 은둔 수행처를 취재한 조현 기자는 10월 30일 원적한 성묵 스님과의 인연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현 기자는 "수많은 산속 오지 길안내와 취재를 꺼리는 은둔 스님들에게 직접 연락해준 성묵 스님 49재가 오늘이다. 스님이 긍정적으로 항상 말한 '죽어도 좋고 살면 더 좋고'를 외치며 밝게 살아가자"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동산반야회 '2008 동산인의 밤' 개최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은 12월 16일 공평빌딩 까치호랑이에서 '2008 동산인의밤'을 개최했다. 법주인 무진장 스님, 안동일 이사장,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한회갑 前 민주당 총재(30기)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아름다운동행 '네모의 꿈…' 저금통 전달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은 12월 12일 여주 신륵사가 운영하는 연꽃어린이집에서 제2회 '네모의 꿈 만들기' 저금통 전달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98명이 3개월간 모금한 55만원을 담은 저금통이 전달됐다. 이상언기자

포교사단 충북포교사회 사무실 개소식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포교사회(회장 안병옥)은 12월 15일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과 충북포교사회 포교사 80여 명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충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발대식 봉행



충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법용 · 마곡사 주지)는 12월 13일 마곡사에서 충남지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파라미타중앙회 회장 도후(마곡사 주지) · 정경(수덕사 포교국장)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장 취임법회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장 월해 스님(금강정사 주지) 취임법회가 12월 13일 대전 천지연 식당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남호 승정스님, 원법 스님, 사암주지스님, 신도회 임원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9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월 9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天台四教義 강의 안내

강사 天台學박사 세명 스님 (현 東大교수)

천태대사 천태교관사상(天台教觀思想)의 화엄교학(華嚴教學)과 더불어 중국불교 교학사상의 동시에 선(禪)과 함께 실천수행문의 쌍벽을 이루는 선관사상(禪觀思想)이기도 하는 불교의 이론과 실천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 천태교학 사상은 『법화경』을 그 중심경전으로 삼는데, 이러한 법화경사상은 5시8교(五時八教)라고 하는 천태의 대표적인 교판(教判)에 의해 선양되고 있는 것을 공부하고자합니다. 포교당 및 사찰주지스님은 물론 불교학자 재가자 분들은 동참하시어 중생 포교와 자기완성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자 : 2009년 1월 15일**
- **강의시간 :**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강의장소 :**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
- **접수기간 : 2008년 12월 3일 ~ 2009년 1월 14일까지**
- **수 강 료 :** 6개월 25만원
- **자 격 :** (가) 비구, 비구니 15년이상 불교 서울전문강당 졸업자 및 신입생, 승가대학 졸업자 한함
  (나) 재가자 : 불교 서울강당 졸업자 및 신입생,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 졸업 한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 1부
- **입 금 처 :** 농협 053-02-244604 선교경전연구회 - 최재동
- **문의 및 접수 :** 02)735-1053, 018-242-7070

불교서울전문강당 동문회 禪教經典연구회 회장 법경

"둘 아닌 도리 속에 철저하게 놓고 맡겨라"

4 생활 속의 참선수행
한마음선원 불자들의 수행생활



한마음선원 불자들은 일체가 둘이 아님을 믿고 자신의 주인공에게 맡기는 수행으로 '주인공의 삶' 을 살아간다. 사진은 안거기간 동안 대법당에서 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는 모습. 제공=한마음선원 미디어실

모든 곳이 마음공부의 수행처요 매순간이 정진시간
마음 바꿔 '나' 찾으면 인생의 조연 아니라 주연 돼

#주인공의 삶, 진리의 삶

'어디서나 주인공 되고, 무엇이나 진실 되기(隨處作主 立處皆眞)'. 불자들이 꿈꾸는 가장 불자다운 삶은 일체의 생각과 행위가 진리에 부합되는 것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 서서 실상과 허상을 구별 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마음공부다. 이른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삶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진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공부가 필요하다. 경제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그 허상의 그림자에 실상을 침몰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수행하는 생활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전국 선원에서는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 '부처되는 과거시험' 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 많은 재가자들도 안거 수행에 들어 정진하기도 하고 주변의 법당을 찾아 정진하며 실상묘법을 구하기에 여념이 없다.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기에 가는 곳이 다 수행처이고 매순간이 정진시간이다. 마음공부는 생활과 수행을 둘로 나누지 않는데서 시작돼야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놓을 수 있어

'둘이 아닌 도리' 를 철저하게 믿는 것에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한마음선원 불자 4명에게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를 질문했다.

"뭐든지 내가 한다는 생각에 옭아 매여져서 꼼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내가 살아서 힘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관(觀)하며 갑니다.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또한 나와 하나임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놓고 가는 거지요."(최인자 불자 · 어린이회 지도교사)

"아침에 일어나서 3배를 올립니다. 1배는 일체 만물만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배는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3배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기 전에는 잠깐이라도 좌선을 하면서 마음을 정돈합니다. 청년법회와 정기법회, 법형제 법회 등에 참석하고 청년회의 각종 율력에 동참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고 수행입니다."(박재춘 불자 · 청년회원)

"진짜 자기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자기만이 고쳐서 끌고 갈 수 있고 자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지극하게 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도회의 심부름을 하거나 합창을 할 때 등 매사에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을 지켜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저녁에는 잘한 부분을 주인공 자리에 감사하게 놓고, 잘못한 부분도 주인공 당신자리에서 나왔으니 나온 자리에 놓고 녹여서 '바르게 이끌고 가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놓으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장형심 불자 · 신도회 임원)

"생활 속에서 '나' 가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한마음 주인공' 이 모든 것을 하고 있고 해 나갈 것이라는 투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각종 법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거사합창단에 가입해 선법가를 부르면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경계나 고를 떠나서 부처님의 법을 따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계를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하나 뛰어 넘어갈 때 지혜가 넓어지고 마음공부가 깊어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박상섭 불자 · 합창단원)

이들의 대답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키워드는 '주인공' 과 '놓고 맡기기' 다. <금강경>이 가르치는 네 가지 상(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한다는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참 나 즉, 주인공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삶(隨處作主)을 살기 위해 한마음선원의 불자들은 생활 속에서 주인공에게 나를 맡기는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생활도 달라져요

이렇게 정진하는 생활을 그렇지 않았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물었다. 4명의 대답을 들어보자.

"믿음입니다. 근본에 대한 믿음. 이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물질계가 전부인 줄 알고 물질계에만 의존 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나를 이끌고 가는 정신계의 참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놓고 가는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최인자 불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선 가벼워진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세상과 내가 싸워야 했습니다. 놓고 관하는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원만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좀 더 넓게 쓸 줄 알게 된 것에서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박재춘 불자)

"예전에는 무슨 일이든 남이 잘못했고,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보고, 듣고, 말하는 수많은 업이 주인공 당신 속에서 나왔으니 나온 그 자리에서 바로 이끌고 가라고 늘 관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대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장형심 불자)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지니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말보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조직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수행을 해 나갈수록 제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물질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점점 옅어지면서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기 보다는 수행정진에 대한 열의가 강렬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박상섭 불자)

이들의 대답은 큰 변화를 느낀다는 것, 자기 자신을 인생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캐스팅 한 즐거움을 물씬 느끼게 한다. 물론 수행하는 생활이 항상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박상섭 불자는 "믿고 맡겼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모두 믿고 맡기는 도리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을 때 수행하기 힘들다"는 최인자 불자는 "그럴 땐 바깥에서 오는 경계나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들에 속아서 습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털어 놨다.

#주인공 만나러 가는 '공생실천과정'

한마음선원은 안양 본원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원이 신도회, 법형제회, 지역법회 등 매우 잘 짜인 조직을 통해 공부를 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 안거철에는 매일 정기적인 참선을 한다.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각종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이 주관하는 한마음공생실천과정과 마음공부포럼은 불자들에게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믿고 맡기고 관하는가를 체계적으로 수련시키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우선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3개월 동안 진행되는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자신의 근본자리에 대한 확신에서 일체만물과 한마음으로 함께 살고 먹고 느끼고 나누는 지혜를 일깨워준다. 매 주차별 공부주제와 실천행선이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에 맞춰져 있다. 50명 정원으로 진행되는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자신과 이웃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자신과 둘이 아니게 볼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힘을 길러준다.

또한 마음공부포럼은 스님과 재가자, 신도와 비신도 등의 구분 없이 생활 속 참선 수행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대승의 열린 마당이다. '마음공부' 라는 대주제 아래 각 회수별 세부주제로 특화해 심도와 밀도 있는 구성으로 기획되며 일반인들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경계를 결코 둘로 보지 말라. 나와 상대, 주와 객으로 나눠 보지 말라. 어떤 아름다운 모습에도 현혹되지 말고 어떤 위대한 것에도 굴하지 말라. 내가 있기에 세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기에 온갖 경계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경계는 필경 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니 우주 일체가 한마음인 때문이다. 결코 동요하지 말라. 부처든 마왕이든 신중이든 모든 것은 나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한마음 요전>중에서)

한마음선원의 불자들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일체가 둘이 아니고 모두 '나' 의 다른 모습일 뿐임을 믿고 그 일체를 굴려가는 주인공에게 오롯이 자신을 맡긴다. 놓고 맡기는 것, 경제 한파를 극복하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대한불교가야법사대학 2009학년도 신(편)입생
법사 제6기생, 대법사 제5기생, 출가학승 제 4기생 모집요강

본교는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교육법 제 58조에 의한 종단 종립대학으로써 대한불교 가야 법사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제 6기 법사과정	제 5기 대법사과정	제 4기 출가학승과정
(출강 · 통신) 2년[4학기]	(출강 · 통신) 1년[2학기]	(출강) 2년[4학기]

수업학과 :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포교사), 범음범패 의식학
일 시 : 매달 3회 강의 일요일 1시 ~ 4시까지(3시간)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 (본교양식)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사진 (여권용) 3매
④ 불교대학이수증 사본 (법사과정) 1부
⑤ 법사이수증 사본 (대법사과정) 1부
⑥ 수계확인서 사본 1부
⑦ 동등자격소지자 특별전형 입학

원서접수
2008년 12월 14일 ~ 2009년 1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월 2일 오후 1시

특 전
● 법사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 부여함
● 대법사 과정 졸업자는 비구, 비구니, 본종 법사승 법계시험 자격을 부여함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시는 불자님, 그리고 어려운 수행 속에서 사미과, 사집과,사교과,대교과정을 학승으로 공부하지 못한 스님께서는 특강하여 사암, 포교원 개설 운영 1년 과정으로 행정지원
● 불교의식 교육원은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요잡바라,도량계 작법,다계작법,사방요신,법고무,사물(북,태징,목탁) 다루는 법을 강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43-1번지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교학부
☎ 055)345-9393, 346-5115

깨달음의 법(法) 전법하는 사(師)
대한불교 가야법사종 병풍산 천지금화사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총무원장 석혜법 합장

경남복지고등학교 보건간호과
3년제 /2년제 학생모집

3년제(現, 중 3) / 2년제 (성인반) 고등학교 과정 (보건간호과)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경 남 복 지 고
남 최초의 보건간호과 (간호전공 / 실버케어전공) 인가
보다 앞서 가는 간호 전문 교육
지(간호) 교육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교육 실습장 최다 보유
· 덕 · 체를 완성하는 인성 교육의 장
민하지 마세요! 경남복지고등학교는 항상 열려 있어요!

취득자격증		전 형 일 정
간 호 조무사	요양보호사 (1,2급)	● 원서교부 : 본교 홈페이지 입학 자료실 탑재 다운로드
재학 중 취득가능	교육 이수 후 무시험 취득	● 원서접수 : 11. 17 ~ 12. 19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접수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자격증 동시 취득 가능!!		● 접 수 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124번지 경남복지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위원회 ● 기타 문의 : 홈페이지 참조

2년제 단기 졸업 과정(성인반) 입학 상담중!! 현재 모집중!!
고등학교 졸업을 원하는 성인남녀는 누구나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 경상남도교육청 대안 · 위탁교육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 · 위탁교육기관
◇ 함안 / 창녕 요양보호사 교육원
☞ 국가공인자격(1, 2급) 양성
◇ 행복한마음 재가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경남복지(간호)고등학교 (구. 연꽃자유고등학교) 교장 일광스님
☎ 055)583-7112 (교무실) www.yeun.sc.kr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124 (미륵사 내)

"철학자 사유·불교수행 겸비해야"

한국칸트학회 '칸트철학과 불교철학의 소통'



불교는 철학적인 종교라 불린다. <팔만대장경>이 문자의 형태를 갖춘 까닭에 심인(心印)을 전하고 있어도 인간의 사유를 막을 수 없는 까닭이다. 종교와 철학은 진리나 절대자 등 같은 대상을 바라보지만 태도는 다르다. 종교는 숭경하는 마음과 동경의 태도를 갖고 진리를 영접하려 하나, 철학은 이론적 추리와 과학적 고찰을 통해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종교와 철학은 상호보완적 관계라지만 가깝고도 먼 사이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종교는 뜨겁고, 철학은 차갑기 때문에.

잘못 섞으면 미지근해져 뜨겁지도(종교) 차갑지도(철학) 못한 것이 되어 서로 비판만 주고받은 것이 지금까지의 학문 경향이었다. 이런 가운데 불교 수행법 '위빠사나'와 '사마타'를 통해 서양철학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에 큰 반향이 예상된다.

한국칸트학회(회장 최인숙)는 12월 13일 동국대에서 '칸트철학과 불교철학의 소통'을 주제로 2008년 동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박인성 교수(사진)는 주제발표 '불교에서 본 칸트 윤리학의 근본개념들'에서 "철학자들이 온전히 사유하려면 심신을 아우르는 위빠사나 같은 불교 수행을 겸비해 수행의 경험을 철학에 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철학은 철학자의 위빠사나 체험을 담은 체계다. 하지만 어떤 철학도 사마타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박 교수의 견해다.

박인성 교수는 "철학자들은 사마타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철학자들은 사마타를 기반으로 위빠사나를 해왔지만 사타마를 실제로 수습(修習)하지 못한 것이 박 교수가 지적한 철학자들의 문제점이다. 박 교수는 "철학자들이 위빠사나가 사마타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철학 체계 내에 사마타의 방법, 과정, 결과를 담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사마타 기능이 윤리학에 수용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위빠사나는 있는 그대로 나누어 본다는 뜻이다. 사마타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삼마디(三昧)는 단순히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마타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박 교수는 "사마타를 하려면 산란함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인식은 이것과 저것을 보고 듣고 하는 산란함 속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성유식론>에서 "산란함은 대상들에 대해 마음을 유탕하게 하는 것을 본성으로 한다. 바른 정(定)을 장애하고 나쁜 혜[惡慧]의 의지처가 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산란은 나쁜 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산란은 삼매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박 교수는 "삼매를 얻어 산란함을 제거함이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바탕"이라 설명했다. 사마타는 들음, 생각함, 잊지 않음, 알아차림, 노력함 등 여러 계기들로 형성된다. 계기들에 집중하려는 의지가 더해져 이뤄진다.

이에 대해 박인성 교수는 "사마타를 유지하며 사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칸트가 말한) 실천이성이 하는 일"이라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동일한 것이라면 이러한 동일함은 산란함 속에서 활동하는 의지가 아닌 고요함 속에서 활동하는 의지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칸트가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고 말했을 만큼 당위 개념은 칸트 윤리학의 중심 개념이다. 박 교수는 칸트 윤리학의 당위 개념 등을 통해 불교와 칸트 철학을 비교했다.

박인성 교수는 "불교도 칸트도 사유한다. 하지만 칸트와 불교의 사유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불교는 사마타 속에서 사유하며 사유 결과인 사유 체계에 사마타 체험을 담아놓기에 칸트와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우리 기분은 쉽게 들뜨고 쉽게 가라 앉는다. 박 교수는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사유는 논리적 사유"라며 "논리적 사유가 진정성을 얻어 합리성을 이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바로잡는 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성 교수가 제시한 몸을 바로잡는 사유는 삼마디와 사마타를 유지하는 사유다. 불교는 삼마디와 사마타를 유지하는 다양한 수행법들이 개발돼 있다.

박 교수는 "삼마디와 사마타를 통한 사유행위를 칸트의 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칸트는 불교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는 한자경 교수(이화여대)가 '경험세계의 가상성'을, 정승석 교수(동국대)가 '업보의 논리와 윤리적 요청'을, 배의용 교수(동국대)가 '불교 유식학과 초월 관념론에서 질료의 아포리와 주관의 이중성'을, 김진 교수(울산대)가 '칸트와 불교'를, 신규탁 교수(연세대)가 '선불교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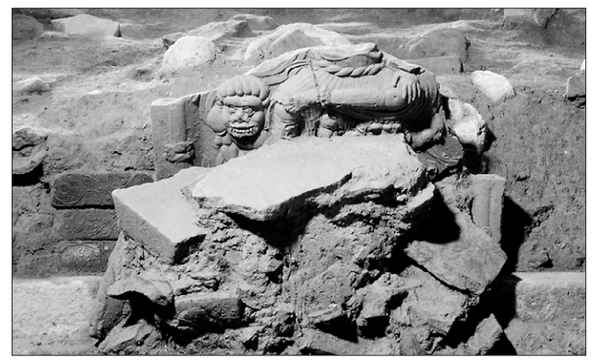
Tip 이론이성? 실천이성?

이론이성(理論理性)은 칸트 철학에서 도덕적 능력인 실천이성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성의 이론적 측면, 즉 인식을 주로 하는 능력이나 생각을 말한다.

실천이성(實踐理性)은 칸트 철학의 기본 개념이다. 도덕적인 실천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과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의 보편적 법칙에 따르는 능력을 이른다.

경주 사천왕사 가람배치 밝혀져

2기의 목탑 동서 배치한 쌍탑식 가람형식



경주 사천왕사지 동탑지에서 발견된 녹유전.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가람인 경주 사천왕사(四天王寺)의 위치와 당시 정방형 쌍탑 기단부 사방에는 녹유전이 배치됐던 사실이 밝혀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 이하 연구소)는 12월 10일 경주 배반동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천왕사는 통일신라 문무왕 19년(679년) 창건된 사찰로 2기의 목탑(木塔)을 동서로 배치한 쌍탑식(雙塔式) 가람형태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천왕사지는 이보다 몇 년 늦은 신문왕 2년(682년) 창건된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과 함께 당시의 건축, 미술 수준과 한국 사찰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적"이라 말한다.

행사에서 연구소 측은 "동탑지를 비롯해 동·남 회랑 양 옆의 기다란(집채)지, 중문지, 추정단석지(불교의례를 행하는 장소)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돼 사천왕사지의 전체적인 가람배치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 측은 "현재 기단만 남은 서탑터에 이어 동탑터를 발굴·조사한 결과 두 탑 모두 같은 방식으로 '녹유사천왕상전(祿釉四天王像塼) 탑의 사방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녹유사천왕상전은 사천왕이 악귀를 제압한 모습이 새겨진 녹유전(녹색 유약을 바른 벽돌)이다.

연구소 이주헌 학예사는 "강당 우측에서 감은사지와 같은 장방형 건물지가 확인돼 관계 연구자의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 말했다. 이 학예사는 "사천왕이 목탑 사방을 경계하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녹유전으로 목탑 기단부 사방을 장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편 연구소는 12월 11일 경주 보문단지 내 드림센터에서 '신라 호국의 염원 사천왕사'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술행사에는 녹유전을 두고 강우방 前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주장하는 사천왕설과 문명대 명예교수(동국대)의 팔부신중설이 팽팽한 가운데 임영애 교수(동국대)가 신왕(神王)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붓다 자비와 예수 사랑으로 종교 화합"

한국종교학회 종교갈등 해법 모색

2008년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종교편향'이었다. 종교편향 시비로 드러난 종교갈등의 해법이 종교간 화해와 상생, 신뢰와 이해인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이런 가운데 붓다의 '자비의 웃음'과 예수의 '사랑의 웃음'을 회복해 종교간 화합을 도모하자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국종교학회(회장 양은용)는 12월 13일 서울대에서 '불교와 기독교 갈등과 충돌'을 주제로 2008년 후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최종석 교수(금강대)는 주제발표 '붓다와 예수의 웃음'을 통해 종교간 화합과 상생의 길을 붓다와 예수의 웃음에서 찾자고 제안했다.

붓다는 웃음을 중요시했다. 무명을 깨친 붓다는 삼독을 극복해 화를 낼 수 없는 존재로 <경전>에서 붓다는 끊임없이 웃고 있다. <증일아함경>에서 붓다는 "웃을 수 있을 때 웃지 않는 사람을 삿된 사람"이라 했을 만큼 웃음을 중요시했다.

예수는 웃지 않았다. <신약성서>에 예수가 가끔 눈물 흘렸다는 기록만 보일 뿐 예수가 주위사람에게 농담을 해 웃겼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예수는 항상 상징과 비유로 말했으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 구절 하나하나를 고지식하게 집착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최종석 교수는 "예수의 웃음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자기성찰과 자기비움(無化, 케노시스)에서 오는 완성된 사랑의 웃음"이라 말했다. 이어 "붓다의 웃음은 무아(無我)의 지혜인, 모든 존재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성찰에서 오는 자비의 웃음이요, 해탈의 웃음"이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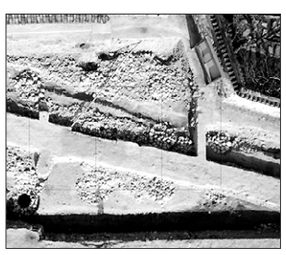
최 교수는 "예수와 붓다의 웃음은 현재 종교의 모습을 성찰할 기회를 준다"며 "종교간 반목과 갈등이 야기되는 현대사회에서 예수의 웃음과 붓다의 웃음을 기억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석 교수는 "지혜와 해방의 웃음을 회복해 상대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그 입장이 돼 웃을 때 종교간 갈등과 충돌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분황사, 황룡사 버금가는 대찰

경주문화재연구소 현장설명회



경주 분황사 주차장 부지에서 발굴한 유구 전경.

신라 선덕여왕 3년(634년)에 창건됐던 경주 분황사가 황룡사 못지않은 큰 사찰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 이하 연구소)는 12월 12일 경주 분황사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분황사 발굴조사 내용 등을 발표했다.

1990년부터 경주시와 분황사 발굴조사를 해 온 연구소는 최근 분황사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을 조사했다.

연구소 측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1차 중건시기의 중문지(中門址)와 남회랑지(南廻廊址) 등 대형 건물지 4동과 황룡사지(皇龍寺址)에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석축 배수로(排水路) 1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중문지의 소재와 함께 형태도 밝혀졌다. 연구소 측은 "중문지는 전체길이 12.63m로 가람의 핵심인 석탑 및 금당과 중문이 모두 남북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며 "분황사는 전형적인 평지가람 형식을 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발견된 남회랑지를 통해서는 분황사의 전체 규모가 드러났다. 분황사의 좌우대칭형 가람배치를 감안하면 회랑의 동서 너비는 138.4m에 달한다. 황룡사의 176m에 버금가는 규모다.

연구소 이주헌 학예사는 "분황사에서도 복랑 구조의 회랑이 확인됐다는 점은 품자형 삼금당식을 배치한 창건가람과 함께 한국 고대건축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발견"이라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공 고

대한불교삼론종은 2007년 7월 4일 현대불교신문 635호에
연화사 성월 이남근에 대하여 체탈도첩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남근은 2007년 1월 31일 현대불교신문 613호로
대한불교삼론종 탈종공고를 한 상태였다. 위 체탈도첩 공고에는
위와 같은 탈종공고가 고려되지 않았다.

2008년 12월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공 고

1) 회욕적 행위로 산문 출송된자들이 참회할 생각은 않하고 불만만을 앞세워 도당을 만들어 작당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우리 종단을 와해시키려는 무리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해종행위자들에게 현혹되어 동조치 마시고 더욱 애종하는 마음으로 굳건한 종단이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2) 대표자 속초(관음정사) 조동락(민호)는 검찰에서 종단과 총무원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그리고 상해(폭행) 죄명으로 처분된 자입니다.

3) 경북(도선사) 김정열(운산), 경기(축령사) 기복성(혜성), 경기 (약수사) 강창래(설오), 경기 (상원사) 유봉열(법경)스님은 참회하지 아니하고 해종행위자들과 동조하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4) 속초(관음정사) 조동락(민호), 서울(대원정사) 엄동일(남오), 경기(정혜사) 이정상(법오), 경북(달마사) 손용구(반공), 서울(사찰없음) 정휴국(대오), 천안(법계사) 신근식(법광)은 대한불교 총화종에서 해종행위로 체탈도첩, 제적된 자로 우리 종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공고한다.

2008년 12월 일

대 한 불 교 총 화 종

중앙종회의장 최만재
상벌위원장 이만오
총 무 원 장 전남정



“땅이 튼튼해야 좋은 먹거리가 나옵니다”





#여행사 운영 접고 ‘된장 아줌마’로

수십 년 동안 태국 · 베트남 등지에 지사를 두고 여행사를 운영했던 화려한 사업가에서 ‘된장 아줌마’로 변신하여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는 서분례씨. 안성의 서일농원 대표인 서분례씨는 된장 아줌마, 된장 박사로 널리 알려졌으며, 서일농원은 하루 5~6백 명이 다녀갈 정도로 우리 전통 먹거리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드라마 <식객>의 촬영지였기에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서 대표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삼만 평이 넘는다는 농장을 몇 바퀴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꽃대만 남은 수십 개의 연꽃 항아리를 따라서 걷다 보면 서일농원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장독대와 마주친다. 농원에 놓여진 장단지가 3000개가량 된다고 하니 장단지 뚜껑을 열고 닫는 일 만 해도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여행사를 하면서 추석이나 설 그런 명절이 되면 직원들과 함께 양로원을 찾아가곤 했어요. 어느 해 설을 앞두고 밴드까지 동원해서 수락산의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한 노인이 우리 직원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동료 노인들이 슬퍼하기 보다는 ‘죽을려면 내일 죽지. 왜 오늘 죽어서 놀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철새처럼 일 년에 몇 번 찾아가는 것으로 낯이나 내려고 하는 저를 반성했습니다.”

#황무지도 가꾸면 문전옥답

그 후 지속적으로 두어 군데의 양로원을 지원하고 방문했지만 이것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양로원을 지어서 직접 모셔야겠다는 간절한 원을 세웠고 그래서 지금의 서일농장 부지를 마련하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싶었지만 IMF를 만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서대표는 농원 한쪽을 가리켰다. “이쪽은 양로원을 세우려고 마련해 둔 땅입니다. 그리고 농장 운영은 바로 양로원을 꾸려갈 살림인 셈이지요.”

24년간 양로원 생일잔치를 열어준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로부터 효행상을 탔을 만큼 양로원에 쏟는 서 대표의 정성은 대단하다.

서일농장은 처음엔 황무지와 다름없었다. 둔덕은 깎아 내리고 파진 곳은 객토를 부어 메우고 지심 좋은 땅으로 갈고 다듬기를 거듭하여 6년이 지나자, 겨우 농원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첫 농사를 지어서 콩 5가마를 수확했다. 이것을 시장에 내다팔려고 했는데 값이 너무 헐했기에 5가마를 몽땅 삶아서 된장을 만들었다. 그 된장을 지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서대표는 여행사를 정리하고 된장의 길로 들어섰다.

“한때는 남들이 부러워 할 만큼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면서 살기도 했지만, 그때는 좀 더 크고 좋은 것을 찾기만 했을 뿐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연에 묻혀 밀짚모자 쓰고 일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발견하기

서 대표는 제대로 된 전통된장을 만들고 싶었다. 고서(古書)를 뒤져가면서 된장을 연구했다. 또 장맛은 뚝배기 맛이라고 전국방방곡곡에서 100년 된 토종항아리를 구해서 된장을 담았다. 항아리에서 2년 동안 숙성시킨 뒤에야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농원에서는 된장과 간장 말고도 고추장 · 청국장 · 매실식초 등 각종 밑반찬류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서대표는 1999년 전통장 제조로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00년에는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농업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그리고 2002년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청국장, 장아찌 등의 규격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연구소와 농원기술센터와도 협력해서 장류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 반대한다고 홍콩이나 미국 가서 데모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우리의 좋은 것을 알고 그것을 경쟁력 있게 가꾸고 만들어가야 해요. 농촌이 살려면 땅이 튼튼해야 하고, 땅이 튼튼해야 좋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농산물만이 수입농산물을 배척할 수 있어요. 동남아에서 쌀 한 가마에 3만원 받는다면 우리 쌀은 한 가마에 30만원 받도록 차별화를 해야 농촌이 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식품을 파는 집

우리의 전통 먹거리를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내다 판다면 그것 또한 IT산업 못지않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서 대표의 생각이다.

“여기 큰 수입은 없어도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식품을 파는 집’이라는 신뢰를 얻었어요. 신뢰를 얻기까지는 15년이란 세월이 걸렸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가꾼다는 생각, 내 가족에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가꾸고 만들어왔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팔정도는 제 삶의 지침서입니다.”

서 대표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산의 국립 암센터에서 암환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환자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들을 향해 “당신들의 병을 고치려면 자신의 마음자리부터 잘 다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자리가 50%요 먹거리가 30%요 병원의 약 20%로 치유할 수 있다”고 희망의 말을 전하는가 하면 2년 동안 45명의 암환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유기농 김치와 생청국장과, 백련잎 차를 먹은 45명의 환자 중 3분의 2 이상이 건강을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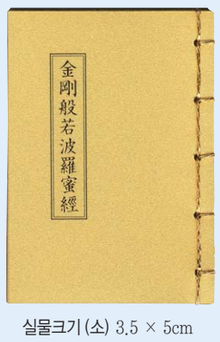
#나누고 욕심 버리는 것이 ‘기도’

서 대표는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성품을 지녔기로, 아니 오지랖 넓기로 이미 소문 나있다. 태국에서 여행사를 할 때 우연히 캄보디아 왕사(王師)스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캄보디아 자비 실천회>를 만들어 6년째 캄보디아를 돕고 있다. 캄보디아의 스님과 주민들을 치료해 주는 봉사부터 시작해 시골의 학교를 증축하거나 학용품을 보내 주는 등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절 문턱을 드나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열 개라면 그중 세 개만 버려도 마음자리가 비워지데요. 법당에서 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화내는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신협 '합병' 성의신협

불교신협이 성의신협과의 합병에 성공해 총 자산규모 1540억원, 내부 적립금 40억여 원의 거대신협으로 거듭났다.

합병을 바탕으로 보다 탄탄해진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타금융기관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종교시설 담보대출도 가능해졌다. 또한 부산진구 초읍본점 및 연지점, 양정지점 등 부산지역 3곳을 불자 고객들을 위한 불교전문 지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불교교육원 송년음악회

부산불교교육원(회주 대성)은 12월 17일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송년음악회를 열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상무 스님을 초청해 '홀로 걷는 비구' '삼사라' '대금시나위' 등을 연주했다. 또 특별 출연한 혜광 스님의 가요 메들리와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 건설 원력으로 도량개방·건축 등 불사 계속돼

2008 부산불교계 결산 3 – 수행환경 훼손 사찰 인근 건축 문제 여전하지만 다양한 불사 일궈

불사 분야

미국발 경제위기로 환율 상승, 주가 폭락 등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한국경제는 지금 공황상태에 빠졌다. 12월 18일부로 GM대우차 군산, 부평공장의 생산라인이 '올-스톱'됐고, 쌍용자동차와 LG디스플레이 파주LCD공장도 속속 가동을 멈췄다. 각 언론들은 잇달아 내년 경제상황을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2/4분기 이후 불어 닥친 극심한 경제 한파에도 불구하고, 불교수도 부산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한 불자들의 원력을 담은 불사는 계속됐다. 부산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자손대대 이어갈 소중한 신행공간이 될 2008년 불사의 현장을 정리한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차발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큰 사진). 벽송사 벽송선원 낙성식(위), 홍법사 대웅전 조감도(아래).

#통도사 사리탑 개방 정비

2008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었다. 1년에 단 3번만 공개되던 '불보' 사리탑을 완전 개방하고 이곳 불전함에 모인 3억여 원을 불우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하며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었다. 무분별하게 심어졌던 외래종 나무들은 육림 차원에서 정리하는 한편 한국 나무들을 곳곳에 심고, 절 뒷자락 습지에는 5만여 평의 연꽃단지와 매실, 차밭을 조성해 두루미 등의 야생동물들이 돌아왔다. 또한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보수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명상센터 및 휴게실 등으로 새롭게 꾸몄다.

#도량 불국정토로 꾸미는 불사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27일 신행과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대웅보전 '국제 종합불교센터'의 건립 기공식을 열고 12월 31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웅보전 불사는 기존의 기도와 법회만을 위한 법당의 역할을 넘어 제사와 참선, 숙식, 취미생활 등 문화적 기능까지 두루 갖추게 된다. 대지면적 600평, 4층 높이 규모에 옥상의 대불(3층 규모)을 모시고 나면 부산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함양 벽송사(선원장 월암)는 10월 5일 벽송선원 낙성식을 시작으로, 새롭게 단장한 벽송사 도량에서 '제2회 벽송선회'와 '제1회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를 각각 원만 회향했다. 그동안 수많은 조사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은 선교겸수의 전통을 간직한 한국 간화선의 근본도량으로 이번 중창불사를 통해 벽송사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졌다.

해월정사(주지 천제)는 성철 스님 열반 15주기를 맞아 봉훈관을 준공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삶의 흔적을 생생히 엿볼 수 있는 친필 500여 점이 봉안돼 한국 현대불교사의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진각종 명륜심인당은 동래구 명륜동에 신축 심인당 헌공불사를 회향했다.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로 심인당 및 부산교구청, 법담실, 자성학교 등을 갖췄다.

#도심포교도량 속속 개원

해운대 센텀시티 내 도심포교의 새 지평을 열 도량도 속속 문을 열었다. 부처님마을 분원 자성불선원(주지 효범)이 9월 27일 센텀IS타워 내에 입소식을 갖고 폭넓은 도심포교에 나섰다. 같은날 해운대 선프라자에서는 대각정사(주지 범각)가 개원해 부산의 첨단산업단지 센텀시티에 불법을 전하고 있다.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의 '안국불교대학'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불사가 진행 중이다. 2010년 첫 강좌를 열고 종교와 종파를 떠나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수행환경 해치는 건축 문제

도량을 해치는 교회 신축이나 케이블카 설치 논란 등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았다. 동래 원광사(주지 인오)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교회가 신축될 예정이다. 사찰과 교회 모두 신행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해 지난 2001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허가가 나지 않았던 사안이 7년이 지난 올해 신축 허가가 난 것. 교회가 완공되면 절 앞마당에서 십자가를 마주보게 된다고 한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안국불교대학 내년 9월 개교

'화합과 상생' 주제 설계

부산 간화선 참선도량 안국선원의 숙원사업이던 안국불교대학이 내년 9월 문을 연다.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은 12월 10일 오후 2시 연제구 거제동에서 안국불교대학(학장 무관)의 기공식을 개최하고 첫 삽을 떴다.

'화합과 상생'이란 주제로 설계된 안국불교대학은 총 면적 900평, 4층 규모의 연구동 3개동이 연결된 구조로 옥상에는 3층 높이의 티타늄 원형돔이 설치된다. 연구동에는 법당, 교수실 및 각종 연구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 불교 학술연구 및 전문 교육 시설이 마련된다.

안국선원이 간화선 수행 중심 도량이었다면 안국불교대학은 조계종 종지종풍을 따라 불교 전문교육 및 도심포교형 맞춤 법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산중이 아닌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만큼 적극적인 포교의 역할도 가능하다.


12월 10일 열린 안국불교대학 기공식.

안국불교대학 학장 무관 스님은 "우리 대학은 종교를 떠나 불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공부하러 올 수 있는 열린 도량"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동제시루 반환하라"

범어사 부산시립박물관에 반환청구소송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도난 논란에 휩싸인 동제시루를 보관 중인 부산시립박물관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범어사는 "동제시루는 부산시립박물관이 2000년 2월 어느 수집가로부터 1억3000만원에 매입한 뒤, 2001년 시지정 문화재로 등록됐지만 이는 범어사에서 도난당한 장물"이라며 동제시루 2점을 범어사에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립박물관 측은 "동제시루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범어사 측이 이제와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동제시루의 반환 문제는 2004년 부산시의회 김정룡 의원이 도난품일 것이란 의문을 제기할 때부터 있어왔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제시루는 1664년 제작된 떡을 찧는 기구로 표면에 한문으로 '경상도 동래북령 금정산 범어사'로 시작되는 187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시루의 제작처와 제작시기, 시주자 및 시루 제작을 전후한 시기의 범어사 주지스님들의 법함 등이 기재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범어사는 "이런 명문을 통해 엄연히 범어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동제시루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박물관 측은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 따스한 만남

여여선원복지회·혜원·양정노인센터·용호복지관

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온 부산지역 불교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간의 만남이 마련됐다.

여여선원복지회(원장 정여)는 12월 11일 '제4회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열어가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만남'을 개최했다. (사)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 한여울복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바른길병원과 자매결연 체결, 자원봉사자 선서, 우수봉사자 시상 및 뱃지 전달 등 그간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혜원(이사장 원허)은 12월 15일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로 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및 지역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산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는 남을 돕는 희생이 아니라 집착과 탐욕을 버리는 보살행"이라며 1년 동안 자비행을 실천한 이들을 격려했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이사장 정관)는 12월 18일 삼성컨벤션힐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150여 명을 초청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시상식, 실천현장 동영상 관람, 인증뱃지 전달 등이 마련됐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2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영빈관에서 '2008년 자원봉사자, 후원자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지역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자원봉사 및 후원사업 영상물 상영, 우수자원봉사자, 후원자 감사패 전달, 뱃지 전달식,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전달, 홍보대사 위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여여선원 복지회가 개최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만남 행사.

박지원 기자

禪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용성 학명 만공
한암 만암 만해 효봉
혜암 동산 경봉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천수경' 빛이 마음 잡아주길"

'대행 큰스님 우리말천수경' 임효 화백 그림전



12월 17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행 큰스님의 <뜻으로 푼 우리말 천수경> 임효 화백 그림전 개막식에는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마음선원 대행 큰스님의 <뜻으로 푼 우리말 천수경>을 동양화에 담은 임효 화백의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전주 전시회가 12월 17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전시회 개막행사는 도영(완주 송광사) · 혜원(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주지) · 혜월(광주지원장) · 혜광(목포지원장) · 혜안(울산지원장) · 혜능(공주지원장) · 청고(국제문화원)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영 스님은 축사에서 "대행 스님의 큰 뜻이 담긴 작품을 전주지역에서 접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많은 불자들이 진리가 담긴 작품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 화백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뜻으로 푼 우리말 천수경> 독경을 들으며 우전 녹차 한잔을 내어놓는다. 명상으로 내 몸에 들어있던 일상의 기운을 갈무리한 연후에 먹을 갈고 물감을 준비한다"며 "그 순간에는 너무나 순결하고 정갈한 마음자리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임 화백은 "그림 그리는 순간순간에는 랩(rap)식으로 편곡한 심경(心經)을 들으며 기운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며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천수경>의 밝은 빛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기준점이 돼 북극성 같은 길잡이로 마음의 방향을 잡아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에서 임효 화백은 닥종이를 띄우는 콩댐작업을 거쳐 직접 만든 수제 한지 위에 석채를 섞은 수묵 석채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작들은 '다시 온 부처님' '명상' '귀의' '무아' '깨달음의 미소' 등 임 화백의 표현대로 경전의 뜻을 살리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그림으로 구성돼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 · 부산 전시회를 통해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전시회는 전주에서 26일을 끝으로 회향한다.

한편 전시회 도록 판매대금은 전액 결손가정 아동돕기 기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동안거 포살법회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2월 17일 대적광전에서 무자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포살법회는 선원에서 안거 중인 대중을 제외한 79명의 스님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 울린 종교화합 캐럴"

'무등산풍경소리' · 원각사 성탄 축하 음악회

'예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에서 캐럴이 울려퍼져 눈길을 끈다.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 '무등산풍경소리'(이사장 지장 · 증심사 주지)는 12월 20일 광주시 궁동 원불교교당에서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개최했다.

2002년 7월부터 시작해 올해로 68회를 맞는 이번 음악회는 최명진 목사(미래로 가는 교회) 사회로 노래와 춤 공연, 이야기 마당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특별공연으로 원불교 광주교당 합창단과 증심사 합창단의 성탄 캐럴과 화합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지난해 원각사 '하나되는 음악회'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찬불가와 캐럴을 부르는 모습.

캐럴과 함께 종교인 화합 마당도 펼쳐졌다. 지장 스님을 비롯해 김현교구장(원불교 광주 · 전남교구)과 전영 주임신부(광주 북동성당)가 성탄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무등산풍경소리 관계자는 "성탄 축하를 위해 교회나 성당에서 음악회를 열고 스님, 교무님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무등산풍경소리가 아니면 쉽게 보지 못하는 광경"이라고 말했다. 무등산풍경소리는 부처님오신날이면 목사님, 신부님이 대웅전 앞마당에서 축하인사를 건네는 등 종교를 초월한 생명존중과 화합의 정신을 보여왔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도 12월 24일 예수님오신날 전야제를 맞아 독거어르신 도시락지원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하나되는 음악회'와 '열린 바자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원각사 어린이 합창단의 즐거운 캐럴을 비롯해 원불교합창단, 진도북 공연, 불자가수 주권기, 피아노와 트럼펫 앙상블, 이용호와 리컴미디어의 팝송과 겨울노래 등이 따뜻한 겨울을 선사할 예정이다.

원각사 윤호준 사무국장은 "이웃종교인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욱 뜻 깊은 사업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지나눔 '훈훈'

화엄사·심향사·무각사

동지를 맞아 광주전남지역 불교계의 나눔 행사들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구례성당, 구례제일교회, 원불교구교당, 수평교회 등 구례 관내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지역 군장병들을 위한 '2008 군장병과 함께하는 송년한마당'을 12월 20일 인근 군부대에서 개최했다.

화엄사 관계자는 "향후 '구례종교지도자협의회(가칭)'를 발족해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도 '동지팥죽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1500그릇 동지죽을 나눈 행사는 심향사 신도회와 지혜나눔실천회 공동주최로 12월 21일 나주 중앙로에서 진행됐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동지날 동지죽 나눔행사'를 같은 날 무각사 내 사랑채에서 실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나눔의 날'

자비신행회 시상식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2월 17일 자비신행회 대강당에서 '2008 아름다운 자비나눔의 날'을 열어 어울림 마당을 개최했다.

지역 자원봉사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행사에는 자비나눔 대상 시상과 자원봉사 인증 배지를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자원봉사자 중 1000시간 이상 활동한 김정분, 박춘전 회원에게는 광주광역시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에서 수여한 골드배지가 수여됐다. 또한 500시간 이상 참여자 곽윤희 외 6명과 200시간 이상 참여자 24명에게 각각 실버배지와 그린배지가 수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신행단체 신년도약 다짐

전북지역 신행단체들이 잇따라 불자의 밤 행사를 열고 신년 도약을 다짐했다.

전북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박준배)는 12월 12일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센터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월주 스님(금산사 회주)을 비롯한 금산사 본말사 스님, 송하진 전주시장, 전라북도청연우회 등 500여 공무원 불자들은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모범적으로 신행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불교사암련(회장 지광)과 익산불교신도련(회장 박중근)도 13일 익산 원광대 강당에서 700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불교인 한마당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도 13일 '전북불교대학인의 밤'을 개최하고 학교와 전북불교발전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박중근 회장

"익산불자 자비 신행 구심점 돼"

익산시 팔봉공단 초입에 자리잡은 경원상사. 연간 500만불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견기업이 익산불교신도회 박중근 회장(사진)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지난 수십년 전 무주 설천의 관음사 오르는 길 작은 소년이 어머니로 보이는 보살보다 앞서 달려가며 산길을 올랐다. 이 작은 소년이 현재 익산불교를 이끄는 박중근 회장이다.



창립한 지 불과 4년만에 익산불교신도연합회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며 움이 된다고 생각한 박중근 회장은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후원을 이어왔다.

지난 겨울 그동안 후원하던 어르신이 추운 겨울 냉방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박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박중근 회장의 충격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지역 사암스님, 신행단체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에게 1만 800장 '자비의 연탄'을 전달한 그는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다.

매년 타종교

미륵사지 복원·익산불교회관 건립 발원

익산불교를 견인하는 데에는 박중근 회장의 의지와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익산불교신도회는 우연한 계기로 창립됐다.

몇해 전 전체 익산지역 스님들과 포교사단, 마한거사림, 대원회 등 신행단체들과 불자들이 백혈병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 계기였다. 익산지역에도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지속적인 봉사와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

초대회장을 맡은 박 회장은 척박한 지역불교 실정을 감안해 봉사활동과 포교활동에 중점을 뒀다.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선천성 기형과 성장장애로 성년이 될 때까지 18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모금해 전달했다. 독거노인들에게 생활비도 후원했다.

뿐만 아니라 뇌수술 후 고통받는 환우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1회성 후원이 아닌 정기적인 후원이 수혜자들에게 직접적 도

틈바구니에서 소외된 불자들을 위로하고 지역불교 발전을 다짐하는 익산 불자 한마당을 개최한 박 회장은 익산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위한 기금 적립 필요성을 절감한 박중근 회장은 자신의 고향농지를 선뜻 무상임대해 여기서 얻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매일 출근 후 <천수경> 독송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한다는 박 회장은 "대표로 있는 기업이 연간 500만불 수출 실적을 올리는 것도 모두 불보살 가피"라며 "내년에는 익산시와 함께 익산시민의 숙원인 미륵사지 복원사업의 토대 마련은 물론 지역 불자들과 신행단체들이 수행 · 정진할 익산불교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중근 회장은 오늘도 옛 백제불교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발원하며 열심히 정진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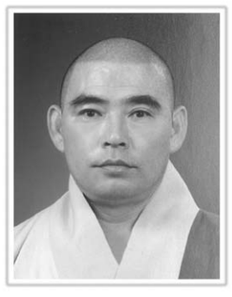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유식사상기반 십선운동 전개

용화계 단일계산 시행…도제양성에 한창
박물관·도서관 건립해 전법 외연 넓힐 것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다. 이는 "마음은 혼란해 지키기도 힘들고 억제하기도 힘들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 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쉽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는 <법구경>의 구절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해월 스님.

대한불교법상종(종정 자봉)은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한 것이라는 유식(唯識) 사상을 기반으로 1969년 3월 15일 창종했다. 역사적으로는 인도 유가법상학의 창시자 무착 보살을 연원조로 중국 현장법사, 신라시대 원광 · 자장 · 태현 법사 등으로 이어진 종지와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법상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유가교관 수증(修增)을 통한 만법유식(萬法唯識)의 진리 체득 △미륵신행 실천으로 업장 소멸 및 복덕 · 지혜 증진 △십선운동을 통한 국민도의 앙양(昂揚) △사회복지 개척을 통한 지상천국 용화(龍華)세계 실현을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총본산 쌍미륵사(경기도 안성시 삼죽면)를 포함해 전국 300여 개 사찰에서 500여 스님이 수행에 열중하고 있다. 쌍미륵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6호(국가보물로 승격중)로 지정돼 있는 고려시대 석불 쌍미륵불을 모신 수행도량이다.

본 종단은 올바른 종풍 선양을 위해서는 종단 법계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4년 용화계 단일계단을 시행, 매년 사미계와 구족계 수계를 통한 도제양성에 한창이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2006년부터 매년 해외 성지순례를 진행해 불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있으며, 각국 불교계와 교류협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에는 중국 흥교사와 한중 수교비를 건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법상종은 전 종도의 화합을 바탕으로 법통과 법맥을 바로 세우고, 교세 확장 및 종단 번영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무봉산에 복지원과 봉안당을 건립해 재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원을 건립해 인재양성 및 신도 · 스님교육을 체계화하고, 불서 8만권 소장 규모의 불교박물관 및 불교도서관을 건립해 종파를 떠나 모든 불자들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계획이다.

총무원 (031)653-1250

정리=김진성 기자

"원융사상으로 세계평화 기여"

천태종, 제1회 한·중 국제학술포럼 개최

천태종의 원융 · 화해사상으로 중생제도와 세계평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태종 종학연구기관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2월 18일 서울 관문사(부주지 세운)에서 '불교와 화해사회'를 주제로 제1차 한 · 중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정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최근 인도 뭄바이 사태에 이어 태국 등에서 똑같은 종교를 신앙하는 같은 종족끼리도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다"며 "분쟁과 갈등의 불길이 타오르는 때일수록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 문제해결 방법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스님은 "불자들이 앞장서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이 온 세상 사람들의 일상생활 덕목이 되도록 인도하자"고 강조했다.

개회사에서 권기종 원장은 "천태종이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불교와 교류하는 것은 이제 불교가 우리만의 불교가 아니며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해야 할 보편적 진리로 발전해야 하겠다는 종단적 의지의 발로"라며 "앞으로도 중국불교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월 18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제1차 한중국제학술포럼에서 권기종 원장이 기조발표 하고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지창규 교수(동국대)는 '21세기, 불교교의의 천태해석과 원융사상 구현'를 통해 "한국 천태종만의 특성을 살려 현대적인 천태교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 교수는 "화쟁사상을 강조한 원효 스님의 사상은 한국 천태종의 특색"이라며 "고유한 천태 특성을 한국 천태종에서 살려온 만큼 현대적 재해석에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천태 저술 번역 · 연구 △금강대 등 천태연구기관에 전폭적 지원 △<법화경> 중심의 교판해석 및 관심 수행 시도 등을 통한 교의의 현대적 재구성을 제안했다. 지 교수는 "복지사업이 천태사상 실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원융사상에 의한 중생 제도가 한국 천태종의 사명"이라 주장했다.

현대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불교의 화해사상을 조명한 기조발표에는 양정원 소장(중국불교문화연구소장)이 '불교의 화해사상에 대한 해석 및 그 현대적 의의'를, 권기종 원장이 '불교의 화해이론과 실천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에는 지화환 박사(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가 '중국불교에서 화해사회 건설의 이론에 대한 탐색과 실천'을, 윤이흠 명예교수(서울대)가 '현대사회의 화해와 복리증진, 국제협력 등에서 불교적 실천'을, 정청 연구원(중국불학원)이 '조박초 거사와 중국의 인간불교'를,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동서문명의 소통과 원효의 화쟁'을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07년 7월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중국 방문으로 시작됐다. 당시 정산 스님을 수행했던 교육부장 세운 스님은 리우웨이 부비서장(중국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과 협의서를 체결하고, 서울과 북경에서 번갈아 학술포럼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회의 빛이 되는 결사 될 터"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법인 선포식


12월 16일 안성 영평사에서 봉행된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법인 선포식.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법인선포식이 12월 16일 안성시 영평사에서 봉행됐다.

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은 "앞으로 이웃 종교와 더불어 사회의 빛이 되는 불교, 받는 불교에서 돌려주는 불교로써 인류평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연합회는 2003년 21개 종단 총무원장이 공익사업을 통한 불법 홍포를 위해 설립해 2008년 8월 25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김진성 기자

천태종, 총화종에 정부예산 지원

조계종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 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에 이어 천태종, 총화종 관련 시설에도 정부예산 지원이 확정됐다.

국회(의장 김형오)는 12월 13일 284조5000억원으로 2009년 예산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문 예산은 2008년 대비 2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이중 종교관련 예산은 150억원이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에는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국립선원 건립에 15억원, 총화종(총무원장 남정) 종교문화 시설에 20억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진성 기자

"부단히 수행·정진하는 스승되길"

진각종 예비 교화스승교육 해단불사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은 12월 15일 진각종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제9기 예비 교화스승교육 해단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해단불사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축사를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간다는 생각으로 부단히 수행 · 정진해가는 스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경정 정사는 인사말에서 "스승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법을 지키며 원력을 세워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9월 1일부터 15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새벽 계명정진 △오전 · 오후 공식불사 △스승체험법문 △희사법 염송법 등 강의 △만다라 그리기 △설법안 작성 및 발표 △스피치교육 △불사집전 체험 등 일선 교화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제9기 예비 교화스승은 정목 심정 선향 도원 성실화 원각수 지원정 보원정 처무 등 8명이다.

김진성 기자

"절에와서 진정한 자유 느꼈습니다"

천태종 황룡사 제11회 새터민 템플스테이 개최



새터민 템플스테이가 12월 15~16일 천태종 황룡사에서 개최됐다.

"지금은 2008년인데 2552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한에는 스님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천 황룡사를 방문한 새터민들에게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사찰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라는 새터민들에게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다.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 평화통일 사진전 개최 등 남북불교교류에 앞장서 온 천태종 황룡사(주지 무원)가 12월 15~16일 새터민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황룡사에서 새터민 템플스테이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정산 · 천태종 총무원장) 주관으로 불교를 통한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올해로 제11회를 맞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새터민 18명이 참가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 천태종 사회부 섭외국장 도웅 스님은 법문을 통해 "아직까지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만큼, 앞으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 '나누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새터민 대표로 템플스테이 입제소감을 발표한 한 참가자는 "이 자리를 빌어 가슴과 두뇌에 있는 낡은 사상과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새터민들은 입제식 후 황룡사 인근 백석공원으로 이동해 족구와 농구 등을 즐기는 등 이틀 동안 △스님과의 대화 △다도 △세수식 △촛불발원 △아침예불 △강화도 전등사 탐방 등을 체험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생활필수품 등을 선물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새터민은 "북한에도 불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춰놓은 정도"라며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님을 보고, 종교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117회 해넘이 해맞이 3000배

해넘이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전신의 노폐물,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해맞이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며 100% 성취된다.

■ 날 짜 : 2008년 12월 31일(수) 저녁 9시 ~ 2009년 1월 1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신규 3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분당 하얀마음선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번지, 네비게이션에 하얀마음선원 치세요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 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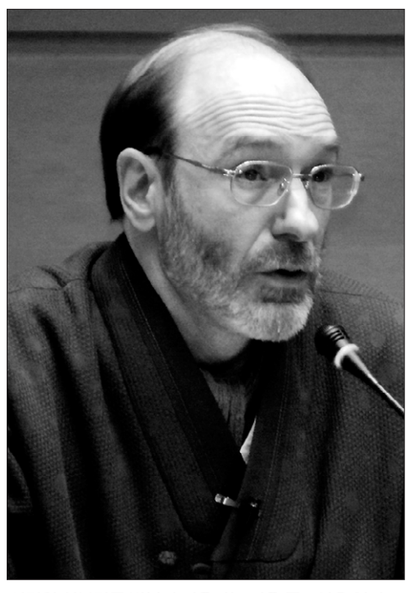
백일법문 특강

"밥 짓는 아내도 일하는 남편도 수행자입니다"

강 사 : 서명원 신부(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주 제 : 내가 본 성철과 한국불교
일 시 : 2008년 12월 18일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 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

눈 푸른 가톨릭 신부가 불교를 가르쳐 눈길을 끈다. 서강대에서 종교학 강좌를 통해 불교를 가르치는 서명원 교수(53 · 예수회 · 본명 Bernard Senecal)는 프랑스인 신부다. 서 신부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예수회 초청으로 방한해 서울 근교의 한 사찰에서 한국불교를 만나 깊이 매료됐다. 1990년 사제품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가 파리7대학에서 한국문화를 공부했다. 성철 스님을 접한 것은 1993년 프랑스에서 석사과정 중 송광사 구산 스님의 제자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쓴 〈눈 푸른 납자(The Zen Monastic Experience)〉를 읽고 나서였다. '돈오돈수(頓悟頓修)' 사상을 접하자마자 '바로 이것이다'라는 확신을 하게 된 그는 성철사상을 주제로 한 '퇴옹 성철의 생애 및 전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400페이지에 걸쳐 성철사상을 조명한 서 교수의 논문은 프랑스 최초이고, 한국불교 주제로는 두 번째 박사 논문이다.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으로 불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와 한문이 공존하는 그의 언어세계 만큼 가톨릭과 불교가 공존하는 그의 일심(一心)은 독특하다.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자.



서명원 신부만큼 법복이 어울리는 이웃 종교인은 없다.

저는 여러분과 인연을 맺으려 합니다. 일단 성철 스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곤란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철 스님의 체취를 느낀 분들이 있는 반면 저는 성철 스님을 만나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 타종교인의 접근에 대한 학계의 시선, 서양인이 불교를 얼마나 알까하는 선입견 등입니다.

하지만 제가 불교사상, 특히 성철 스님의 사상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프랑스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수도 여러분이 외국어를 배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인도 문명에서 불교가 탄생해 중국문명으로 스며들어 퍼지듯, 현재 불교가 서양문명으로 조금씩 스며들 듯, 불교와 성철 사상도 제 안에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세계로, 겸손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고차원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그 가르침에 대해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항상 의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 이해한다고, 또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경상도 사투리에다 내용도 어려워 저에게는 한국어가 아닌 또 다른 나라 말로 들렸습니다. 석사논문을 준비하며 접한 송광사 구산 스님의 <석사자(石獅子)>도 불어로 옮길 때 방향감각을 잃을 정도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연구를 거듭하면서 저는 넓고 넓은 바다에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양 출신으로 선사를 통해 불교 안으로 들어 갈 때 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경험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은 전체를 알아가는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학자로서 성철 스님과 <백일법문>을 접했습니다. 긴 수행의 정수가 담긴 <백일법문>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교를 알아 가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백일법문>을 통해 복잡다단한 분류가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체계가 잡히면서 12연기법과 중도사상이 다가왔습니다. 중도를 말하신 성철 스님의 사상.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고정관념도 없이 사는 것. 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성철 스님을 통해 저는 불교안으로 들어왔으며, 선수행을 접했고 한국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불교는 성철 스님을 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님이 지눌 스님의 돈오점수를 비판해 일으킨 돈점논쟁은 한국불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논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깨닫고 나서부터 부처의 수행을 실천하는 오후수행불행(悟後修行佛行)은 너무 높은 경지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오히려 높게 삽니다.

20세기 한국불교의 중요한 개혁자로서도 성철 스님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조선시대 억불숭유(抑佛崇儒)와 일제강점기의 여러 문제, 이승만 정권당시 정화운동으로 분열된 불교종단과 그에 따른 상처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개혁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성철 스님이 큰 사명감을 갖고 나서신 것은 현재도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불교 역사에서 원효 스님에 비견됩니다.

저는 성철 스님을 알고, 1993년부터 선 수행을 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 없이 못살겠습니다. 제 종교인 기독교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국어와 마찬가지로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 수행을 하고, 불교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뼈저리게 제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가톨릭 사제로 서강대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생활 속에서 공부로 불교를 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一問一答

–가톨릭의 천지창조, 천당, 예수님의 부활 등 중심사상이 불교사상과 내면적으로 어떻게 양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안에는 모국어인 불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듯이 종교와 종교의 만남을 지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말을 구사하되 모국어체계를 통해서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똑같이 불교를 얘기하지만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저는 우월의식을 버렸습니다. 어느 종교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 이슬람, 가톨릭으로 나누어 무엇이 우위다, 옳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색(色)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한국불교를 학문차원에서 믿음으로서 어떻게 접근하게 됐습니까.

"전 학자로서 불교를 접하면서도 불교를 단지 학문의 대상으로서 볼 수 없었습니다. 불교 안에 들어가야 불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불교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수행을 하라고 강요 할 수 없지만 원문경전으로 읽으면서 교학(敎學)을 통해 수행의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불교의 깨달음과 수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큰 사명을 갖고 출가하는 수행도 있지만 주부가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꼭 선원에서 참선해야 더 깨달을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출가자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재가자의 생활에 있어서 수행입니다. 저에게는 대학이 선원으로 매시간 저를 일깨워 주는 수행터입니다.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의견을 서로 나누며 참신한 생각을 접할 때마다 제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깨달음은 지혜와 함께 헌신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서 발현된다고 봅니다. 남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이기심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지요. 부처님, 예수님 등 깨달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중받습니다."

–신부 신분으로 타종교를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은?

"저는 종교학과이기 때문에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 비해 자유롭습니다. 이슬람교에 심취해 가톨릭 신자이면서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종교학은 여러 종교를 알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해야 합니다.

한국은 불교와 기독교가 활발히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종조를 지키면서도 서로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톨릭사제로 불교를 가르치듯 재가자나, 출가자 중 한 분이 신학박사 과정을 마치고 불교대학 등에서 기독교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간 화해의 실마리는 서로를 이해하는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평가보다 학문적, 수행적으로 서로를 깊이 알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한국 종교화합의 숙제입니다.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기독교는 단순한 선교차원을 떠나 사랑, 그리고 불교의 보살심, 자비심으로 활동을 해야겠지요."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불교도 성철 스님도 제 안에 이미 스며 있어요
종교간 서로의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 찾아야해요"



신부님의 불교강연에 귀기울이는 청중들. 이날 국제회의장은 200여 명의 대중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불기2553년(기축년)
謹賀新年

참 나 를 발 견 하 고 참 살 이 를 체 험 하 는

고운사 템플스테이

고운사에서 올해 10월말 선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청정한 스님들의 생활을 배우며, 참살이를 배워가는 청국장과 사찰음식 체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둘째주 주말 : 청국장 체험 <1박 2일>
넷째주 주말 : 사찰음식 체험 <1박 2일>
▶ 참가비 : 5만원 ▶ 대상 : 일반인
▶ 준비물 : 세면도구, 두꺼운T셔츠, 운동화, 필기도구

참가신청 및 문의
고운사종무소 ☎ (054)834-6934, 팩스 (054)834-6935
E-mail : gounsa44@hanmail.net

※ 참가신청서는 고운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孤雲寺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번지 〔www.gounsa.net〕

일정표

	첫 째 날	둘 째 날
3:30	고운사로 가자~	새벽예불
4:30		108배
5:00		발우습의
6:30		아침공양(발우공양)
7:00		휴식
8:00		걷기명상 (법계도길을 따라~)
9:00		
10:00		대중울력
11:00		휴식 및 감상문 쓰기
12:00	점심공양 및 방사배정	점심공양 (법고 시연 체험)
13:00	사찰안내 및 사찰예절	일상으로 돌아가자!
14:00	2주 - 청국장 만들기	
15:00	4주 - 사찰음식	
16:00	휴식 - 자유시간	
17:20	저녁공양	
18:00	저녁예불	
19:00	스님과의 대화	
20:00	내몸과의 대화	
21:00	취침(꿈속으로~~~)	

※ 위의 일정은 사찰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나눠 드립니다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지스님들께만(종파 관계없음) 모셔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진신사리를 모셔 가시는데, 아래와 같이 약간의 보시금을 받습니다.
• 보시금 30만원에 6과, • 보시금 50만원에 12과를 모셔드립니다.
사리는 사리보관용 사리함에 담아 드리고, 직접 모셔가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 택배로 보 내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은 100%입니다.

※ 치아사리도 2과 있습니다. 특별 상담을 통해 모셔 가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 하십시오. 언제나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010-3879-1441 (청운스님)

선지식을 찾아서 | 세모에 되새기는 가르침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하면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한파가 덮친 올 연말은 어느 해보다 쓸쓸하고 우울하다. 중생이 힘들 때, 기댈 곳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뿐이다. 헛된 망상이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 보다는 바른 가르침에 기대어 바른 마음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난 선지식들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조용히 되새겨 보자.

●…… 새로 시작합시다. 본래가진 밑천을 손질해서 새로 시작합시다. 〈660호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 1초를 염불하더라도 지극정성으로 한다면 그 1초가 바로 극락이 된다. 자비를 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광채가 발산됩니다. 그 광채가 바로 불성광명이요 아미타불입니다. 여러분들 본마음이 아미타불입니다. 〈661호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

●…… 얼핏 생각하면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 찾기 쉬워 보이지만 이 세상보다 내 마음속이 더 복잡해서 헤매게 됩니다. 새해 내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당장 마음을 내세요. 얻어먹지 말고 베푸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생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662호 용인 만의사 율주 **정락 스님**〉

●…… 깨칠 때는 일체공부가 다 된 것이지만 계속 여여부동하게 지키고 쓰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화날 때는 '화난 것이 뭐꼬' 하면 화가 사라집니다. 답답할 때는 답답한 것이 뭐꼬, 차 마실 때는 차 마시는게 뭐꼬, 욕심 낼 때는 욕심 내는게 뭐꼬, 나무아미타불을 염할 때는 염불하는 이것이 뭐꼬,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안 되는게 뭐꼬 하다보면 나중에는 '이뭣고' 화두로 의단이 뭉쳐지게 됩니다.
〈663호 진천 불뢰굴 주석 **영흥 스님**〉

●…… 눈 뜰 때가 내가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땅도 하늘도 새로 열리는 때입니다. 새날 새아침에 새로 얻은 몸이요, 새로 얻은 땅이요 하늘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새로 태어난 내가 새로 얻은 몸과 새로 얻은 태양으로 모든 이를 안아줍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664호 덕숭총림 수덕사 유나 **우송 스님**〉

●…… 불교는 실천입니다. 교리를 알고 참선과 염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665호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 화두를 참구하는 요결은 이러저러한 행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간절 절(切)' 자에 있습니다. 〈666호 화계사 문화원장 **묘봉 스님**〉

●…… 기러기는 북으로 가고/산물은 남으로 흐르네/할 일 없는 산승은/밑도 끝도 없는 허공에서/달을 찾아 헤매는구나/꽃 피고 새 우는 소식이/어찌 봄날에만 있으랴. 〈667호 마곡사 태화선원장 **진광 스님**〉

●…… 보살은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니게 됩니다. 지혜는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잘 다스린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참회(懺悔)도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자꾸 장애물이 생기게 되지요. '참'은 스스로를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자기 고백입니다. 〈668호 불국사 주지 · 회주 **성타 스님**〉

●…… 처음 염불할때는 자신이 편한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수행력이 익어지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염불이 저절로 됩니다.
〈669호 중앙승가대 교수 **태원 스님**〉

●…… 갈 때 가더라도 주워 담은 경주머니는 다비우고 가야합니다. 젊어서는 즉신성불 하겠다고 기고만장했지만, 경전 공부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670호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가르침에 푹 젖으면 악한 물 안들어
인연따라 생멸하는 삶은 모두가 '꿈'

●…… 병고(病苦)를 극복하는 과정은 공부의 큰 전기가 되었습니다. 일체가 환상이고 꿈이라는 사실이 뼛속 깊이 느껴져야, 일체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과 번뇌 속에서도 순수해지고 괴롭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번뇌와 생사가 끊어진 자리가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71호 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

●…… 고요함 가운데서 고요함을 유지하기는 쉽지만, 소란스러움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부처님 앞에 올 때는 빈 그릇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미 욕심을 그득 그득 채우고서 오니 주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득찬 그릇에 어떻게 담을 수가 있어요. 비우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672호 팔달사 주지 **혜광 스님**〉

●…… 공부가 따로 있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일념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다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에 대한 신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해요.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다' 라고 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회사의 사원들 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화합이 깨지잖아요.
〈673호 가사 도편수 **무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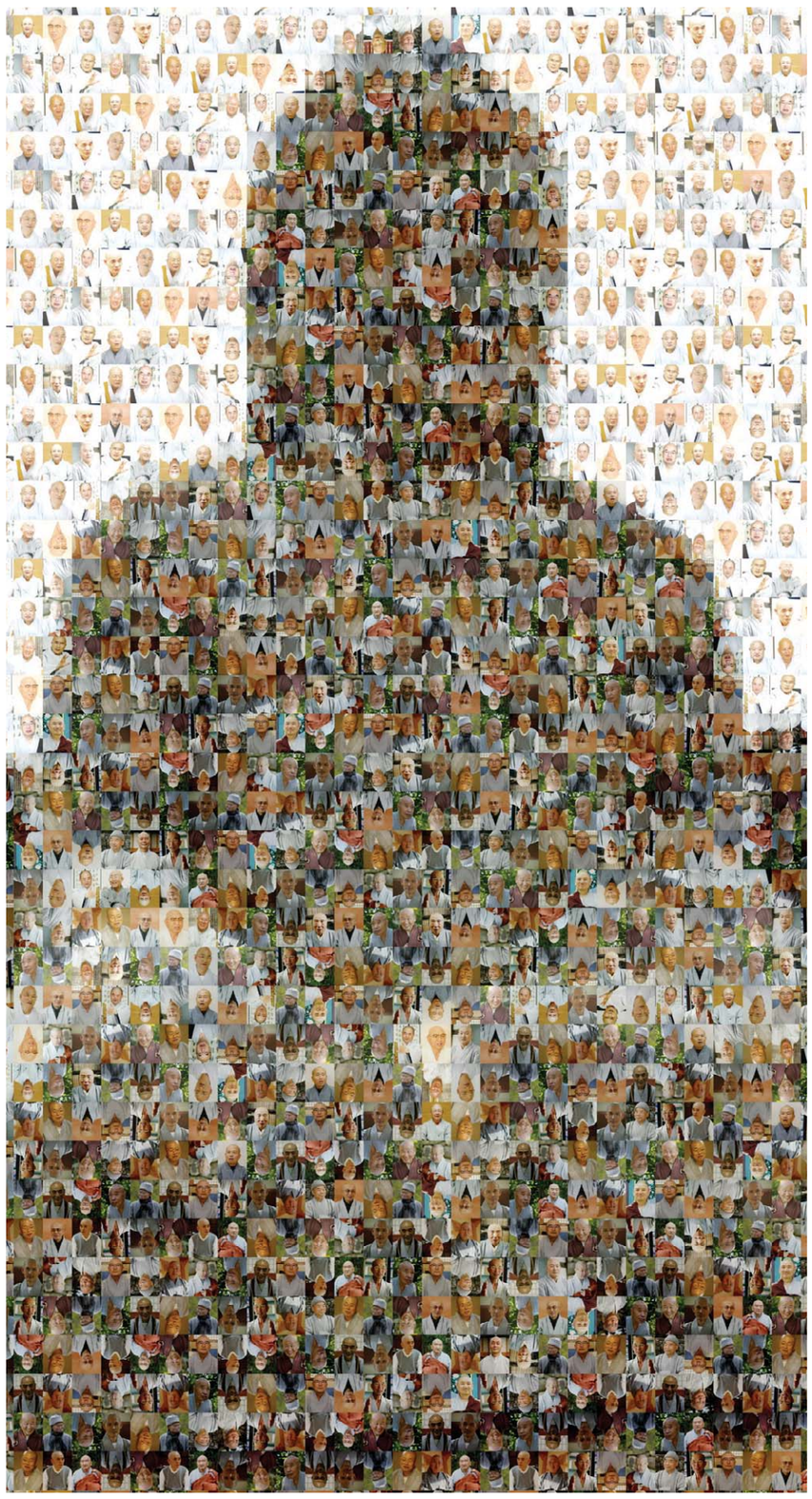
●…… 사람이 깊이 잠들면 아무 것도 못 느낍니다. 이 하나가 깨어날 때 모든 게 깨어납니다. 이 한 생각 안에 천지 삼라만상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거기엔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천지만물과 둘 아닌 만법의 왕,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674호 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

●…… 절의 선방만이 선방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선방이 되기 위한 전초기지가 바로 선방입니다. 허공이 옛날 허공 그대로 이듯이, 사람들의 근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쾌락을 좇아가고 쉬운 길을 가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몸뚱이의 쾌락을 좇아서 내려가는 길로 질주하면 하근기요, 맑은 정신문화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상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675호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것이 삶 자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이 더 많은 법입니다. 자기 허물부터 생각하세요. 남의 허점 보이면 내 허물이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호흡을 제대로 해보세요. 한마디 할 때 생각 없이 내뱉으면 독화살이 나가는 것입니다.
〈676호 용인 반야선원 조실 자광 스님〉

●…… 내 자식도 부처요. 내 부모도 부처요, 내 형제도 부처요, 내 이웃도 부처지요. 더 나아가서는 저 산천초목 흐르는 냇물, 나무, 돌 등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잉크 옆에 가면 잉크를 빨아들이고 먹물 옆에 가면 먹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속성이다. 쉽게 빨아들이지 않으려면 솜을 기름에 푹 적셨다가 건져내면 어디에 가도 물들지 않듯이, 부처님 교리로 무장되고 그 속에 푹 젖어버린다면 물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677호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

●…… 삼라만상은 중생의 업이 나타난 것입니다. 업따라 인연따라 펼쳐지는 생멸하는 삶은 '살아있는 꿈'이지요. 그저 일에 집중해서 온 정성을 모두어 일해 보세요. 탐진치 3독심이 눈녹 듯 사라지고 온갖 번뇌를 여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상(相)내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있다'는 헛된 집착이 '상'인데 그 상으로 3독심이 생기고 그 3독심



2008년 한해동안 찾아 뵈었던 선지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어 중생고를 떨쳐 버릴 것을 가르쳤다. 사진은 선지식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한 것.

한달 유지비 4,000원 (하루 8시간)
전자파 걱정 끝 초박형 보일러 타입
장수돌침대 만의 믿을 수 있는 A/S

다년간의 연구끝에 숙면과학의 결정체 온수매트 개발!!
2009년 신상품!
대·한·민·국·대·표·침·대 장수돌침대 ☆☆☆☆☆ 온수매트
첨단 고효율 PTC방식

"진짜 장수돌침대" 고객이 아~할때까지!!



이젠 바꿔야 합니다.
전자파 없는 잠자리로…
뜨끈~뜨끈 후끈~후끈!



오로지 온수로만~
최고 80도!
그 위에, 가마에 구운
황토볼을 꽉꽉! 참숯을 꽉꽉 채워~
황토찜질, 숯찜질까지!

■규격 : 2인용 : 1450×2000
1인용 : 1000×2000

고급형 2인용 248,000원
1인용 238,000원

◀고급형

또 하나의 기술력!
온도감지/ 안전전용퓨즈/ 과승방지센서 등~
장수돌침대만의 7중 첨단안전기술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하게! 오래오래!

별다섯! 장수돌침대, 기술력의 개가!
장수돌침대 온수매트는… 고객이 아~할때까지!!

"그 동안, 업자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로! 소비자 불신이 많았던, 매트!
지희 별다섯 장수돌침대 만들은!
차별화된, 고품질로!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하나 순수, 물! 온수를 이용한, 한국형 매트!
둘 자체기술진의 숙면과학 실현! 전자파에 대한 걱정!
셋 초절전 기술로, 난방비 절약!
넷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A/S

난방비 걱정 끝! 전자파 걱정 끝!
1) 아직도, 그 비싼~ 기름값, 가스값을 낭비하십니까?
이젠, 보일러만큼 후끈후끈하게 때고도!
유지비는 훨씬 더 저렴한! 장수돌침대 온수매트에서 주무십시오!
2) 본인이 써보시고, 정말 좋다고 인정되신다면,
부모님께도 사드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사주십시오.

장수산업 수상내역
우수전기제품 대통령표창수상 / INNOBIZ 이노비즈 기술혁신중소기업 / 독일산기술협회연 외교기부문금메달 / 특허부문금상 장영실과학문화상 / 수출유망중소기업 / 고객만족최우수상 / 월드베스트브랜드대상 / 국무총리상 / 국세청장상수상 / LIG 손해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BRAND 2007 올해의브랜드대상 / 한국서비스경영대상 / 기술혁신경영대상 / 특허등록제품 / 임소문브랜드대상 / 국민은행우수기업

• 장수돌침대 온수매트는 100% 국산 자재와 장수산업기술력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품 주의)
※주의 : 타사인터넷 및 전시장 구입시 제품을 못받거나 A/S가 되지 않습니다.

www.onsu-mat.com
www.장수온수매트.com
JANG SOO INDUSTRY CO.,LTD.
(주)장수산업 온수매트 사업부
무료 전화 080-788-7878
농협 943-12-426130 조윤성

부처를 만나게 된다



진짜 적은 '알지 못하는' 데 있어
잘못 살아서 죽음이 두려운 것

으로 무수한 번뇌가 싹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심(下心)하는 것을 비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돼요.
〈678호 화엄사 조실 **도천 스님**〉

●…… 모든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과 미래를 지향하는 서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는 기도 정진을 해야 합니다.
〈680호 각원사 회주 **법인 스님**〉

●…… 내가 지금 차 맛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맛을 글로 표현할 수가 있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나. 몸이 다른데 어떻게 전달이 되겠는가? 답은 직접 마셔보라는 것이지요.
〈682호 법주사 복천선원장 **월성 스님**〉

●……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복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행복한 상태에 있어요. 현재에 있는 행복을 확인하는 것이 '행복론 1번'입니다. 지금 확인되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마치 현재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해 놓고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됩니다. 불행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내 인식 주체가 무엇을 대함에 있어 그대로 수용하지 못할 때 괴로워집니다.
〈683호 (재)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 이 대우주에는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라는 단어 하나 붙들고 우리는 평생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 가족을 부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러니 언제나 충돌이 오는 것이지요. 불상 앞에서 복 달라고 절을 하면 복이 옵니까? 내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고 웃음소리가 나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684호 경주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

●…… 달은 언제나 있지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라도 무명에 가려져 청정심을 못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밝은 달을 보지 못해 윤회하는 것입니다.
〈685호 극락선원 회주 **금담 스님**〉

●…… 참 불공이란 목탁을 두드리며 불단에 음식을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686호 해월정사 회주 **천제 스님**〉

●…… 욕심을 충족시키려 불교를 믿으니 행복이 없죠. 물질 가지려는 욕심을 버릴 때 행복한 것이에요. 불만족에는 행복이 없어요. 탐진치를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극락은 없습니다. 위기도 인연에 의해 맺어진 것이죠. 자기가 만들고 누리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만든 위기는 아니죠? 우리가 지은 복이 거기까지니까 내가 만들어 사는 겁니다.
〈687호 각황사 조실 **의룡 스님**〉

●…… 평상심이란 때 묻지 않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다녀도 참선, 앉아도 참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할 때도 본체가 평화로운 것입니다.
〈689호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 곱게 물든 단풍잎은 꽃보다 더 예쁘다고 좋아들 하잖아요.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게 늙어야 합니다. 병은 평소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건강할 때 과식, 과욕, 게으름 등을 키워서 병 날 일을 하더라는 것이지. 죽음이 왜 괴로운가? 잘못 살았으니 죽음이 두렵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690호 안성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 나를 없애 남에게 베풀어야 업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베풀려는데 돈이 없다 고민하지 말고 무재칠시(無財七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공'이 연관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공기와 물과 영양분이 뿌리와 줄기와 잎에 영향을 미쳐 생기는 일입니다.
〈691호 서귀포 혜관정사 조실 **혜경 스님**〉

●…… <화엄경> 약찬게 108번째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은 머지 않아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맡아도 모두 인연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과법을 풀어가야 합니다. 계율을 지키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굳게 약속했다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692호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 불살생(不殺生)계는 자비를 키우고, 불투도(不偸盜)계는 복덕을 기르며, 불사음(不邪淫)계는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불망어(不妄語)계는 진실된 삶을, 불음주(不飮酒)계는 지혜롭게 사는 길을 뜻합니다. 살생은 목숨 가진 것뿐 아니라 남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것도 살생이에요. 살생 않는 수준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자비심을 지니는 것이 진정한 불살생계지요.
〈693호 통도사 영축율원 율주 **혜남 스님**〉

●…… 깨달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라도 깨친 자가 부처님입니다. 우리도 그 법을 깨치면 부처님보다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부처님보다 훌륭해질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겠지만, 그런 기개와 분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대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94호 통도사 취운선원장 **약산 스님**〉

●…… 도를 이루고 싶으면 가난부터 배워야 합니다. 청정한 계율을 견지해 훼범하지 말라는 부처님 최후 유훈은 불교의 생명이지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선 공부요, 모든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참선공부입니다.
〈695호 금각사 주지 **만수 스님**〉

●…… 중생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뭇 생명을 제도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시를 함으로써 복덕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불음주계(不飮酒戒)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696호 해인사 극락전 한주 **도견 스님**〉

●……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혜의 완성이며, 지혜 완성의 첫 시작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려면 계율부터 실천해야 올바른 참선이 됩니다. 계 · 정 · 혜 삼학의 순서를 지켜 수행해야 지혜가 완성됩니다.부처님 법을 보급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좋으나 불교를 세속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700호 前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학장 **법혜 스님**〉

●…… 밖으로 구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행복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짓 행복에 불과해요. 거짓 행복을 얻는데 많은 고통이 동반되고 또 그 행복이 사라질 때 괴로움을 겪어야 하니 평생을 가짜 행복에 속아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스스로가 만족지수를 배워가야 합니다.
〈701호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

●…… 거짓 없이 살아야 합니다. 주인 된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가는 곳, 머무는 곳,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주인이 돼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행과 좋은 생각하며 살아야합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의 게으름을 경책해야 해요.
〈702호 익산 대용화사 주지 **혜산 스님**〉

●…… 악한 사람이 지금 잘사는 것은, 잠시 동안이나마 그 사람의 전생 선업의 열매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업을 짓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분명하니 좋은 일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요, 착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703호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 부처란 곧 본래마음이니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있다고 믿는다면 무량겁을 지나도록 장좌불와하거나, 하루 한 때만 식사하거나, 몸을 태우거나, 피를 뽑아 경(經)을 베끼는 등 온갖 고행을 해도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취사(取捨) 분별심 때문에 도(道)속에 있으면서도 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맛을 모르고 있습니다.
〈704 · 705호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

●……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말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본래심을 깨달아 거기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생활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인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일체 중생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도 몰라서 이렇게 육신과 번뇌와 망상에 속아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706호 해인총림 유나 **원각 스님**〉

●…… 수행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생사고해를 건너야 합니다.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707호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무지(無智)가 적이고 원수인 것입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고정관념을 비우는 것이 참선이며,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관념을 버리는 것이 참선입니다. 삶 그 자체가 그대로 선입니다. 어려움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항상 잘된다면 오만에 빠져 세상을 얕잡아 보게 되고 그것이 곤란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708호 활인선원장 **대효 스님**〉

●…… 사람들은 대접 받기를 원하는데 이는 저마다 자기가 대통령이라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온국민이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가 조용하겠어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의식도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의 자리(隨處作主 立處皆眞)'라는 말입니다.
〈709호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

●…… 생멸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종교가 불교요, 사람 사람마다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자력으로 피안에 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빛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설교하셨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일체법을 등불로 삼을지언정 남을 믿거나 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710호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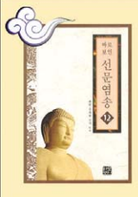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9년 1월 10일 – 1월 16일 [6박 7일]	우 또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1월 10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월 16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방한쇼울,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죽음 초월한 생사일여 경지"



47 일면불 월면불

깨달았으므로 당장 죽어도 미련없다는 마조 화상 뜻 담겨
'하루 사는 월면불, 1800년 사는 일면불' 화두로 생사 타파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이 화두는 선어록의 백미라고 하는 <벽암록> 3칙에 있는 화두입니다.

당말의 유명한 선승으로서 조사선의 대표자였던 마조 화상(馬祖, 709~788)이 어느 날 병환으로 몸져누워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병이 꽤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 때 선원의 원주가 문병 차 조실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 있는 마조 화상께 여쭈었습니다.

"화상께서는 요즘 존후가 어떠하십니까?"

걱정을 동반한 상례적인 물음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속히 쾌차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었을 겁니다.

마조 화상은 누운 채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니라."

마조 화상과 원주와의 대화가 이 말로서 다 끝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몇 마디가 더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뒷이야기를 끌어들이면 공안으로서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이름에 대하여 설명한 <불명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 제7권에는 "월면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일일(一日) 일야(一夜)'이고, 일면이라는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1800세"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대인데 이와 같이 어떤 부처님이 수명은 몇 세까지 살고, 어떤 부처님은 몇 세까지라고 기록한 경전은 처음 봅니다. 월면불처럼 '일일일야' 즉 하루 저녁만 살다가 열반하시는 부처님도 있으니 참 재미있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아마 월면불은 부처님 중에도 가장 수명이 짧은 부처님일 것입니다. 장수하는 부처가 된다는 것도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부처님 이름 풀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게 됐는데 아직도 좀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내친 김에 이름 풀이를 통해 일면불과 월면불의 의미를 고찰해 봐야겠습니다.

월면불(月面佛)을 우리말로 옮기면 '달 부처님'입니다. 달의 수명은 <불명경>에도 기록돼 있듯이 '일일(一日) 일야(一夜)'입니다. '일일 일야'란 '하루 중에 밤'이라는 뜻으로 수명이 하루 밤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달은 저녁에 떠서 아침이면 없어지는데 어떤 작명가가 부처님 이름을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를 상징하는 일면불의 수명은 1800세라고 합니다. 1800이라는 숫자에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해는 십장생 중에 하나이므로 해처럼 오래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혹 옛 문헌에 '해의 수명은 1800년'이라는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1800세만 해도 인간의 수명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만큼 장수입니다.

마조 화상이 병이 깊어 침상에 눕게 되자 선원의 살림을 맡고 있는 원주스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스님, 요즘 건강이 좀 어떠하십니까? 차도가 좀 있으십니까?"하고 여쭙자 마조 화상은 엉뚱하게도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일면불 월면불.' 이것이 무슨 뜻일까?

마조 화상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원주에게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대답한 것은 병이 쾌차해 일면불처럼 1800년을 살아도 좋고, 또 밤새 병이 악화돼 월면불처럼 아침에 죽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제 살만치 살았으므로 비록 내일 죽은들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뜻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선승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깨달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지금 당장 죽은들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탈한 생사일여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선승이 아닙니다. 수행이 덜 돼도 한참 덜 된 것입니다. 선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깨달음 문제 이전에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이란 때가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 생성 소멸한다면 죽음이란 그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육신은 언젠가는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고, 그 재는 흙이 되고 강물에 섞이고, 바람에 날려 없어질 것인데 말입니다.

선승은 내생에 깨닫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다음 생으로 미룰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생이 아닌 금생에 깨달아서 삶과 죽음이 되풀이 되는 생사윤회의 고리를 단절시켜야 합니다. 깨달음의 문제를 내생으로 미룬다면 그는 선승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현실에서 참된 무위행 닦는 바 없이 닦아야"

47 암자를 태운 할머니 <끝>

'파자소암' 세간·출세간 벗어난 안목 있어야 보여
알음알이로 공안 헤아리지 말고 禪旨 깨쳐야

옛날 중국에 한 노 보살이 암자에서 참선하는 스님을 20년 동안 시봉하고 있었다. 지극한 정성으로 한결같이 그 스님을 시봉하다 보니 노보살이 먼저 공부의 안목이 열려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노 보살은 정진중인 스님의 공부 단계를 점검하고자 어여쁜 딸에게 공양을 가지고 가게 하면서 말했다.

"스님을 껴안고는 '이럴 때는 어떠십니까?'하고 물어보고 그 대답을 나에게 전해다오."

딸은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했다.

공양을 마친 후 그릇을 거두고는 딸이 가만히 스님을 껴안았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시킨대로 물었다.

"이럴 때는 어떠십니까?"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으니(枯木倚寒巖), 삼동에도 따사로운 느낌이 없도다(三冬無暖氣)."

애욕을 끊어버린 자기에게는 새삼스레 성적 반응이 일어날 여지조차 없다는 확신에 찬 대답이다.

딸은 돌아와서 그대로 어머니에게 전했다.

그러자 노 보살은 "내가 20년동안 시봉했는데 스님의 공부경지가 겨우 이 정도란 말인가" 하고는 벌떡 일어나 그 스님을 내쫓고 암자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다.

이때 스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노파의 20년 봉양을 헛되이 하지 않고 쫓겨나지도 않을 것인가? 이것이 <선문염송>과 <오등회원> 공안집에 나오는 유명한 '파자소암(婆子燒庵)' 화두다.

이 공안에 등장하는 할머니처럼 참공부인에게는 선지식 아닌 분이 없다. 여기에 무슨 승속과 남녀, 노소가 있을 것인가. 그저 치열한 선지(禪旨)만이 번득이고 있을 뿐이다. 암두 선사와 덕산 선사가 크게 깨닫기 전에 재가 보살과의 선문답을 통해 한 방망이를 맞았고, 조주 선사와 황벽 선사가 할머니들과의 법거량에서 선사들의 체면을 겨우 세워줬을 정도로 선어록에 등장하는 도인 할머니들의 지혜작용은 만만치 않다. 오늘도 이런 재가(在家)의 선지식들이 불법을 외호하면서 혹 나태한 수행자를 만나면 발심시킬 수 있는 가지가지의 방편을 쓴다. 오늘날 스승이 없다고 말하지만, 산속이나 저잣거리에는 반드시 눈밝은 스승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수행자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따름이다.

'파자소암' 공안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얽매이지 않고 세간과 출세간을 똑같이 살펴서 세간과 출세간을 실답게 쓰고 누리며 원융무애하게 다스릴 줄 아는 근원적 안목이 갖춰져야 볼 수 있는 난해한 화두이다. 단순히 계율에 관한 문제로만 보는 것은 이 공안의 일부분만 보게 되는 것이다.

이 화두와 관련,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은 "암자에 있던 스님이 한 공부가 적적(寂寂: 고요함을 추구하는 사마타) 공부다. 도(道)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한다"며 일행삼매(一行三昧: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직심(直心)을 행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적(定)'만으로는 안 되고 '성성(惺惺: 또렷또렷이 깨어있음, 慧)' 공부가 하나가 되어 통하고 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육조단경>에서 "정(定)과 혜(慧)가 하나가 됐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다…혜와 정이 하나가 돼서 통류(通流)해야 된다"는 법문이 이것이다.

한편,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이 공안과 관련, "노 보살님이 암자를 불사른 것이 상(賞)입니까? 벌(罰)입니까? 상이라고 한다면 그 스님네를 버리는 것이고, 벌이라고 하면 노 보살님을 끌어묻는 것입니다"라며 알음알이로 공안을 헤아리는 것을 경계한 바 있다.

밀암함걸(密菴咸傑) 선사의 다음 비평도 맥락을 같이 한다.

"목에 쓴 칼을 두드려 부수고 발을 묶은 쇠사슬을 깨뜨림은 두 사람(노파와 스님)에게 다 없지 않지마는 불법을 말할진대 꿈에도 보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평론함은 그 뜻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한참 묵묵한 후에 말했다. '한 묶음의 버들가지를 거두지 못하니(一把柳條收不得) 봄바람이 옥난간 위에 걸쳐 놓는다(和風搭在玉欄干).'"

애욕과의 대결은 수행자라면 출·재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최후의 관문이다. 하지만 '애욕에 매이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중도(中道)의 입장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된다. 애욕이니 중도니 깨달음이니 하는 말도 잊고 구체적 현실에 부딪혀서 무애자재할 수 있는 참된 무위행(無爲行)을 닦는 바 없이 닦는 수 밖에 없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강릉 담마선원은 2009년 1월10~16일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에서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우 또다나 사야도가 면담을 통한 수행 점검, 법문, 좌선, 행선 등을 지도한다. 참가비는 15만원, 선착순 15명 접수가능하다. (033)644-1686

●재가불자 위한 겨울 학림=남원 실상사는 2009년 1월 5~10일(1차), 12~17일(2차) '재가불자를 위한 겨울 학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차 겨울학림에서는 재연 스님, 도융 스님이 초기불교를 강의하고 2차 겨울학림에서는 해강 스님, 원묵 스님이 화엄사상을 강의한다. 참가비는 15만원으로 선착순 20명 접수. (036)636-3031

●겨울수련회 산사체험=합천 해인사는 2009년 1월 16~18일, 21~23일, 1월 30일 ~2월 1일 초등부·중고등부·성인부 각 80명을 대상으로 겨울수련회 산사체험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초등부 5만원, 중·고등부 8만원, 성인 10만원이고 수련복은 지급되므로 기본적인 세면도구와 방한복만 준비하면 된다. (055)934-311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법회를…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 괘불탱화 조성 보급 안내

석가모니 부처님 괘불 7자 X 4자반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두리아기획에서는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하실 수 있도록 소형 괘불탱화를 조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대덕 큰스님들께서는 괘불탱화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시면 부처님의 무한공덕은 물론 신도님들의 신심을 더욱 깊게 하여 불교 포교에도 한량없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서 특별 할인혜택을 드리오니 동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장엄미 가득한 괘불탱화를 조성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제작을 원하시면 크기·모양 등 원하는 대로 다양한 괘불을 제작해 드립니다.
※ 한 작품당 시일이 15~2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특괘불(大·中·小) 제작 조성해 드립니다.
취급품목 단청, 탱화, 개금, 불상 및 건축, 시멘트법당, 천불, 오천불, 만불 등 각종 불사 전문
두리아기획 상담전화 : (02)714-7253 / 010-9939-54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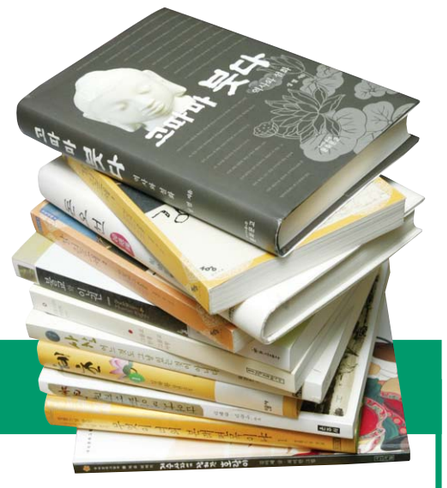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2008년엔 어떤 불서가 사랑 받았을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한파가 몰아쳐 책 한권 편히 사보는 것도 어려운 요즘, 불교출판계 역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때문에 출판사들은 출판 종수를 줄이는 대신 양질의 불서들을 선별해 발행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다. 조계종이 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와 불서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12월 5일 개최한 '제5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불서10으로 선정된 <고따마 붓다>(대상) <불교와인권><사찰, 그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우수상)등 총10권을 살펴본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불서 10



고따마 붓다 성열 스님 지음 | 문화문고 펴냄 | 2만2000원

역사적 존재인 고따마 붓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따마 붓다>의 저자 성열 스님(강남포교원 원장)은 "붓다에 대한 신학적 접근 방식은 오히려 불교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왔다"고 말한다. 스님은 이러한 붓다에 대한 신격화된 시각을 탈피해 철저히 새로운 시각에서 붓다에 관한 전기(傳記)를 펴냈다.

빨리 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붓다에 대해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명한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붓다가 태어난 인도, 탄생과 전설, 붓다의 젊은 시절 등 붓다의 일대기를 사실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

성열 스님은 "불자들에게 붓다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실적이면서도 생생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심을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한다.

불교와 인권 안옥선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2만원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모두 평등하다' 는 진리다.

우리는 교과서, 교양서 등 책을 읽다보면 '인간 존엄' 이라는 말을 많이 접한다. 저자 안옥선 교수(순천대 철학과)는 "'인간 존엄' '만물의 영장' 이라는 말이 자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말일 뿐"이라며 "생명의 세계에서는 온 존재가 평등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불교는 독특한 인권사상을 가지고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생명실상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그러한 통찰에 합치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존엄할 수 있다.

불교와 민주주의라는 평이하면서도 까다로운 주제를 차분히 정리한 <불교와 인권>은 불교와 '인권' 이라는 주변학문을 연계한 탐구서다. 불교인권론, 동물 존중, 온 존재 존중, 원효사상과 인권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우리나라 산천은 어디를 가더라도 한없이 넉넉하고 따뜻하다. 이보다 더 좋은 휴식처도 없는 그 곳의 산 중턱이나 꼭대기에는 반드시 고즈넉한 마음의 쉼터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사찰이다.

사찰을 찾는 이들은 탑과 석등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궁금증은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생각에 지나치기 일쑤다. 저자는 이러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탑과 법당 등 보이는 것부터 공양간, 해우소 그리고 작은 장식까지도 놓치지 않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사찰, 그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의 저자 목경찬은 기존의 '여행' 중심의 사찰안내를 벗어나 사찰 속 상징과 의미를 불교의 교리와 건축 당시의 신앙으로 해석했다. 달리 불교 교리를 바탕, 교양과정으로 소화할만한 기초학습서의 성격이 강해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강린포체 1 · 2 : 카일라스 히말라야의 아버지

임현담 지음 | 종이거울 펴냄 | 각 1만8000원

티베트불교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산 '강린포체(Kailas: 힌두교 파괴의 신 시바신이 사는 산)' . 이곳의 산 주변으로 둥그렇게 천태만상 봉우리마다 붓다, 조사, 보살, 티베트 산신들이 거주하고 있다.

'의료계에 위장취업한 산악인' 이라 불리는 방사선과 전문의인 저자 임현담은 해마다 히말라야의 산들을 누비며 겪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 그곳의 자연경관을 담은 사진과 함께 <강린포체(카일라스)>를 펴냈다. 히말라야의 카일라스라는 지역은 중국 서장에 위치한 해발 6714m의 산으로 이 일대는 라마교도 · 힌두교도의 성지이다. 카일라스는 히말라야에 있는 수많은 산들과는 다르다. 신들의 땅으로써 이들 종교인들은 이 산을 순례하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다.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김미혜 지음 | 사계절 펴냄 | 1만2800원

전래동화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나무꾼에게 형님 소리 들은 호랑이' 를 통해 아이들에게 우리 옛사람들이 가졌던 죽음 이후의 세상, 즉 저승에 대한 생각을 전해주고 있다.

불교의 전래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승에 대한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육도윤회 사상' 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도(六道:여섯 가지 세상으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을 말함)' 를 '윤회' 하게 된다 한다.

이 책은 '육도' 의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수수밭에 떨어진 호랑이가 저승 대왕들 앞에서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 받으며 온갖 지옥을 돌아다니고 우여곡절 끝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죽음과 윤회에 대한 생각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린이를 위한 철학서의 성격을 가진 이 책은 이야기와 절묘하게 결합된 그림, 화려한 단청을 보는듯한 채색이 그림과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는다.

혜초 1 · 2 김탁환 지음 | 민음사 펴냄 | 각 1만원

통일신라시대의 혜초(慧招) 스님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 오늘날 인도를 가리키는 다섯개의 천축국을 다녀와 기록물을 남겼다. 현재 <직지심경>과 같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있는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 바로 그것이다. <왕오천축국전>은 불교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정세 · 지리 · 풍속 · 언어까지 기록돼 있어 고대 동 · 서 교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과 동시에 완벽한 저술의 형태로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고전문학이다.

작가 김탁환은 방대한 자료조사와 1년여에 걸친 답사 끝에,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역사속에 묻혀있던 혜초 스님의 삶과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고서 <왕오천축국전>에 얽힌 음모와 비밀을 광활한 실크로드 위에 생생히 펼쳐냈다. 구도자이자 위대한 세계인이었던 혜초 스님을 모티브로한 이 소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스님이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모험담을 펼치는 형식으로 재구성 됐다. 그 와중에 서역의 이국적인 풍물, 무희와의 로맨스 등 온갖 흥행 장치들이 등장한다.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도법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2004년 3월 지리산 노고단에서 탁발순례를 시작해 2008년 12월 13일 5년간의 순례를 회향한 '생명평화탁발순례단' 단장 도법 스님이 그간의 사유를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이라는 책으로 정리했다. 1994년 조계종의 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前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은 책을 통해 세계의 근원은 하나이며 모두가 그물코처럼 의존한다는 '생명평화' 사상을 전한다.

스님은 40여 년 수행의 귀착지는 결국 '생명평화' 임을 깨닫고 이를 화두로 삼고있다. 그리고 현대문명이 자유, 정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기적 소유욕에서 분열과 대립, 죽이고 파괴하는 모습이었음을 반성한다. 이 책은 저자가 이러한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60여 년 동안 살아온 사유의 총화이다.

현실 삶의 구체적이고 절실한 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응 방식에 대한 보고서로서 손색이 없다.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

김형중 · 김문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000원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는 수험생들과 불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수험생들에게는 이미 교과서를 통해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재와 인물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험대비에 도움을 준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불교 사상과 이념, 불교 문화 및 역사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불교지식을 전해주기에 불자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불교를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준 이 책은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동원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명쾌한 정리는 물론 민족문화에 대한 주체적 역사인식을 갖게 한다.

1부에서는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불교문화재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나 사건, 불교사상등을 다뤘으며, 2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혁혁한 활동상을 보인 12분 고승의 생애와 사상을 쉽게 서술했다.

돈오선-사람이 부처다

월암 스님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2만원

돈오선(頓悟禪)이란 번뇌 망념이 본래 공함을 단박에 깨달아 일시에 괴로움에서 벗어나 일념 가운데 육도만행을 구족하는 것이다. 즉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밝게 알아 번뇌를 보리로, 생사를 열반으로 돌려쓰는 실천행이 돈오선의 종지이다. 단박에 깨달아 단박에 닦는 것을 돈오돈수(頓悟頓修)라 하면 단박에 깨달아 점차 닦아나가는 것을 돈오점수(頓悟漸修)라 한다. 이렇게 깨달음을 점차(漸)와 단박(頓)으로 분류해 정의하는 방법론을 돈점수증론이라 한다.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있었던 논쟁은 1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월암 스님(벽송선원 원장)은 <돈오선-사람이 부처다>에서 육조 대사의 돈오선 이론과 실천을 통해 돈오돈수, 돈오점수 등 돈점수증론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살폈다. 돈오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기술했는데 이를 통해 상호 융회와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수증에 관심있는 이들을 위해 나름대로 해탈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게 했다.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 본지풍광설화(本地風光說話)

성철 스님 지음 | 장경각 펴냄 | 1만8000원

조계종 前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1912~1993)은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취임해 1967년 동안거부터 정기적으로 상당법문을 펼쳤다. 스님의 법문은 선종 정통의 법문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이를 직접 100칙으로 정리해 출간 한 것이 <본지풍광(本地風光)>이다. 본지풍광이란 선종의 조사들이 '때묻지 않은 심성' '본래 우리 모습' 등을 의미할 때 쓰는 말로, 본래면목과 유사한 용어다.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는 25년 만에 <본지풍광>을 해설판으로 새롭게 출간한 것이다. 성철 스님이 겹겹으로 던지고 있는 공안과 함께 스님이 직접 전하는 주석이라고 할 만한 육성법문을 함께 수록해 법회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본지풍광>의 전체 100칙 중에서 35칙까지 담았으며, 선종 역사를 아우르며 펼쳐지는 스님의 법문을 통해 선사들이 깨달은 인연은 물론 선종 역사를 함께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종의 전통적인 법문 양식을 잘 보여주는 이 책은 당시 스님의 말씀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편집해 수시(垂示), 본칙(本則), 염(拈) · 송(頌), 착어(着語), 결어(結語)의 체재를 갖추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마음의 숲
2	스님도 군대 가나요	지장	클리어마인드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인과경	현담	선
6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	일아 역편	민족사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행복한 사람들	김천	하얀연꽃
9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10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김일수	도피안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SHC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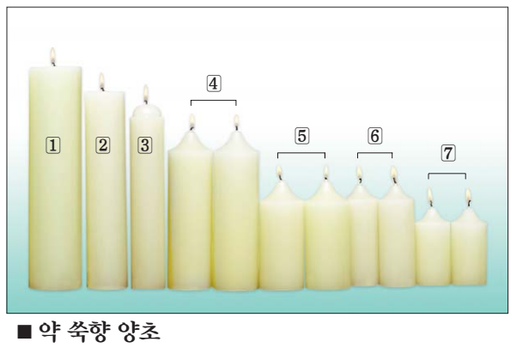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❽ 낙원동 방앗간 1

바다내음 가득한 해물찜에 소복 내린 정

소외된 이들의 거리, 낙원동. 어수선한 거리 풍경도 그렇고, 퀴퀴한 비린내를 풍기는 돼지국밥집을 지날 때면 말짱했던 기분도 꿀꿀해지는 그 동네를, 솔직히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년 이맘 때 하필이면 그 거리 골목 한 귀퉁이에 아지트 2호점이 생겼다. 말하자면 참새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방앗간'이라 할 것이니, 방앗간 두 식구를 소개하겠다.

우선 음식냄새만 맡아도 간이 싱거운지 짠지를 훤히 아는 낙원동 장금이, 박 언니가 주인이다. 단골 노친들의 기분장단에 맞춰 때로는 장기판에 열을 올리느라 장사도 뒷전일 만큼 화끈한 기분파지만, 그놈의 다정(多情)이 매력인 것을 어찌하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무언가를 해먹이는 취미 덕에, 나의 배도 종종 호강할 때가 있다. 한편 박 언니를 도와 카페 일을 꾸려가는 오 언니는 일명 '큰언니'로 통한다. 사실 나이 상으로는 큰언니가 맞지만, 애교를 부리거나 말도 안 되는 떼를 쓸 때는 나의 타고난 철부지기질도 저리가라다. 하지만 마음씀씀이가 넉넉해, 단순한 이중성과 따스함이 또한 매력이다.

무엇보다 세파에 휩쓸리지 않는 두 여자의 순수한 단순함이 좋아, 종종 돼지국밥집의 비린내를 감수하며, 그곳의 돼지들을 추모하며 그 거리를 지나 낙원동의 방앗간을 찾는다.

오늘은 박 언니의 '다정-병'과 큰언니의 '어리광-병'이 극에 달한듯하다. 박 언니의 해먹이기 취미에도 발동이 걸려, 주특기인 해물찜을 하겠단다. 개운하고 매콤한 맛도 맛이지만, 설렁설렁 금세 만들어내는 비법이 늘 궁금했다. 큰언니와 나는 언젠가는 배워 꼭 한번 써먹어보리라 벼르던 중이었는데, 마침 잘됐다.

"언니, 이번에 확실히 배우게 방법을 자세히 좀 설명해봐."

그런데 "아이, 내가 설명할래 내가"라며 어디선가 쪼르르 달려온 큰언니, 의리도 없이 이미 한수 배운 모양이다. "우선 꽃게, 바지락, 모시조개, 새우, 미더덕, 주꾸미, 오징어, 홍합이 있어야 해. 그리고 인자 콩나물을 삶아. 그런 다음에 콩나물을 넣고 여기다 인자…."

해물의 재료와 콩나물 삶은 것까지는 자신 있게 읊었으나,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간다. 그새 냄비에는 온갖 해물이 담기고, 소주도 살짝 붓고 콩나물까지 삶아 올린 박 언니가 대파를 큼직하게 썰면서 정정에 들어간다.



열큰 아삭한 해물찜에 방앗간 두 자매의 정성이 가득하다.

"아니지, 콩나물은 별도로 삶아놓고, 냄비에 해물 넣고 소주 붓고 그 위에 올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미나리를 얹고, 대파 얹고 양념치고 녹말가루 좀 물에 풀어 넣고 뒤적거리는겨. 자, 미나리부터 다시 읊어봐."

설명하는 중에도 박 언니의 손놀림은 쉼이 없으니, 어느새 냄비에는 대파까지 얹어지고, 숟가락도 필요 없이 병째 들고 눈대중으로 설설 끼얹은 들깨가루와 고춧가루, 다시다, 후춧가루에 다진 생강과 마늘이 한데 어우러져 설설 끓기 시작한다.

"해물찜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 우선 해물이 싱싱해야하고, 콩나물을 잘 삶아야해. 오래 삶으면 질겨지니까 살짝 비린내만 가시게 삶아야 아삭하고 맛있는 거야. 또 대파랑 생강도 많이 넣어야 시원한 맛이 나지. 참기름은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넣는 게 요령이야."

음식이란 자고로 즐거운 마음과 정성이 비법이라는 박 언니, 커다란 접시에 완성된 해물 찜을 푸짐하게 올리니, 마음까지 덩달아 푸지게 행복하여 흔들흔들 춤도 춰진다. 오늘은 먹기가 번거로워 평소에는 손도 안대는 꽃게와 왕새우에도 젓가락이 가진다.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해물의 풍미가, 얼큰하고 아삭한 콩나물과 대파, 생강의 알싸한 향과 어우러져 혀에 착착 감긴다. '마음'이라는 양념'에 '춤 조미료'까지 첨가됐으니 그도 그럴 수밖에. "많이들 먹어. 많이들"이라는 추임새까지 부지런히 곁들여지니, 더없이 행복한 맛이다. 다만 포대화상을 빰치는 박 언니의 뱃살과 큰언니의 옆구리 살 터지는 소리가 걱정일 뿐이다. 제일카페 (02)766-3744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⑩



우리나라 고유 천연향 선향 제조기법 '인정'

능인향당의 선향 제조기술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주석하던 법우 스님으로부터 전해온 법제를 더욱 발전시킨 한국 고유의 천연향 제조기법이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우리만의 기술이다. 특히 인체에 전혀 무해한 선향 제조기술로 기도시나 염불 시에 목이 잠기지 않으면서도 인체의 기혈을 안정화 시키는 기능이 뛰어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년 동안 안거 때마다 선방에 향 대중공양을 올리면서 이미 여러 스님들께 인정받은 바이다.

일본인들이 자루향의 기원을 약 400년 전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 시작이라고 한 것을 문헌에서 증명한 바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향 제조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불행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는 본래의 향도를 잃어버렸다. 오히려 공업용 접착제와 싸구려 향수에 절인 외제, 일본 향들이 향의 원조라는 듯 숭상해 온 것도 부끄러운 사실이다.

법우 스님의 향 법제 기술은 기존의 제조 기술을 넘어 인체에 무해한 순수한 선향 제조 방법이다. 이것은 후박나무나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인 유근피(楡根皮), 타부 노 키(Tabu no ki)와 검 파우더(gum powder) 등을 주 접착제로 쓰는 차별된 기술이다.

능인향당에서는 이 기술을 토대로 이미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까지 고려한 향 제품을 개발해 시판 중이다. 더욱이 국내 향 제조 회사로는 유일하게 베트남 현지에 공장과 연구실을 설립해 침향 산지인 밀림까지 직접 들어가 연구하고 있다. 특히 침향 선향의 제조기술은 원 등급의 침향을 100% 살려내는 원 침향 자체의 접착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해 생산하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점은 우리의 침향 선향은 그대로 약이나 차로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원향을 살린 점이다.



4등급의 숙결 등급(사진 왼쪽)과 탈락 등급(사진 오른쪽)의 침향.

침향으로 선향을 제작하는 공정은 까다롭다. 침향 선향 제조에는 침향 자체 수지의 점착성을 이용한 접착공법을 쓰는데 접착 성분의 침향은 오히려 높은 등급의 침향 수지에서 접착력을 가져다 선향을 만든다. 한 번 생산에 드는 그 비용이 웬만한 집값을 넘는다.

그러니 침향 재료의 잘못된 선별은 고민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늘 필자를 사랑해주는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올곧은 향을 만들어 공양물로 올리겠다는 서원을 지키고자 고민 끝에 결국 내 자신이 간경화 환자라는 것도 잊고 소주 몇 병을 털어 넣고서야 모든 탈락 등급의 침향을 폐기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결국 쓰라린 교훈을 통해 얻은 결론은 침향의 생성 원인 별 등급체계는 탈락을 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자연적인 상처에 의한 것,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 세 가지 분류방법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다. (02)3663-6777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⓯ 불면증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편안한 숙면은 건강의 핵심… '멜라토닌' 늘어나야

 # 대표적 수면 장애 질환 불면증

대부분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공통점은 잠이 안와서 정말 힘들다든지 헤아릴 수 없는 꿈들로 인해 숙면을 못 취한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잠을 못 잔다는 강박관념에 의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잠이 부족하다 못해 수면고갈 상태인 수험생들이 들으면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 자고 싶어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

그러나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은 직접 경험해본 당사자들 아니면 모른다. 몸은 너무 피곤한데 정신은 너무나 쌩쌩해 잠들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더더욱 또렷한 각성상태가 된다. 일단 불면증이 시작된 지 3주 정도 됐다면 단기 불면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스트레스 요인이나, 자기도 모르게 변화한 생활 패턴이 있다든지 하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 제거하면 호전된다. 다음으로 3주 이상 된 만성 불면증이라면 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심리적, 육체적 원인을 체크해 적합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

 # 삼라만상의 규칙적 주기 잠자기와 깨어있기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은 에너지와 규칙적 주기를 지니고 있다. 크게는 생(生)하고 멸(滅)하는 주기, 각개 개체는 그 단계에 맞는 성장주기, 작게는 우리가 호흡하고 심장박동을 이루는 주기 등이 해당된다. 우리가 깨어있고 잠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우주의 규칙적 주기인 에너지 흐름에 포함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깨어있음과 잠들기는 이 우주의 에너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주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주기가 규칙적이고 편안해야 소우주인 인체는 건강한 활동과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솔방울샘과 숙면호르몬 '멜라토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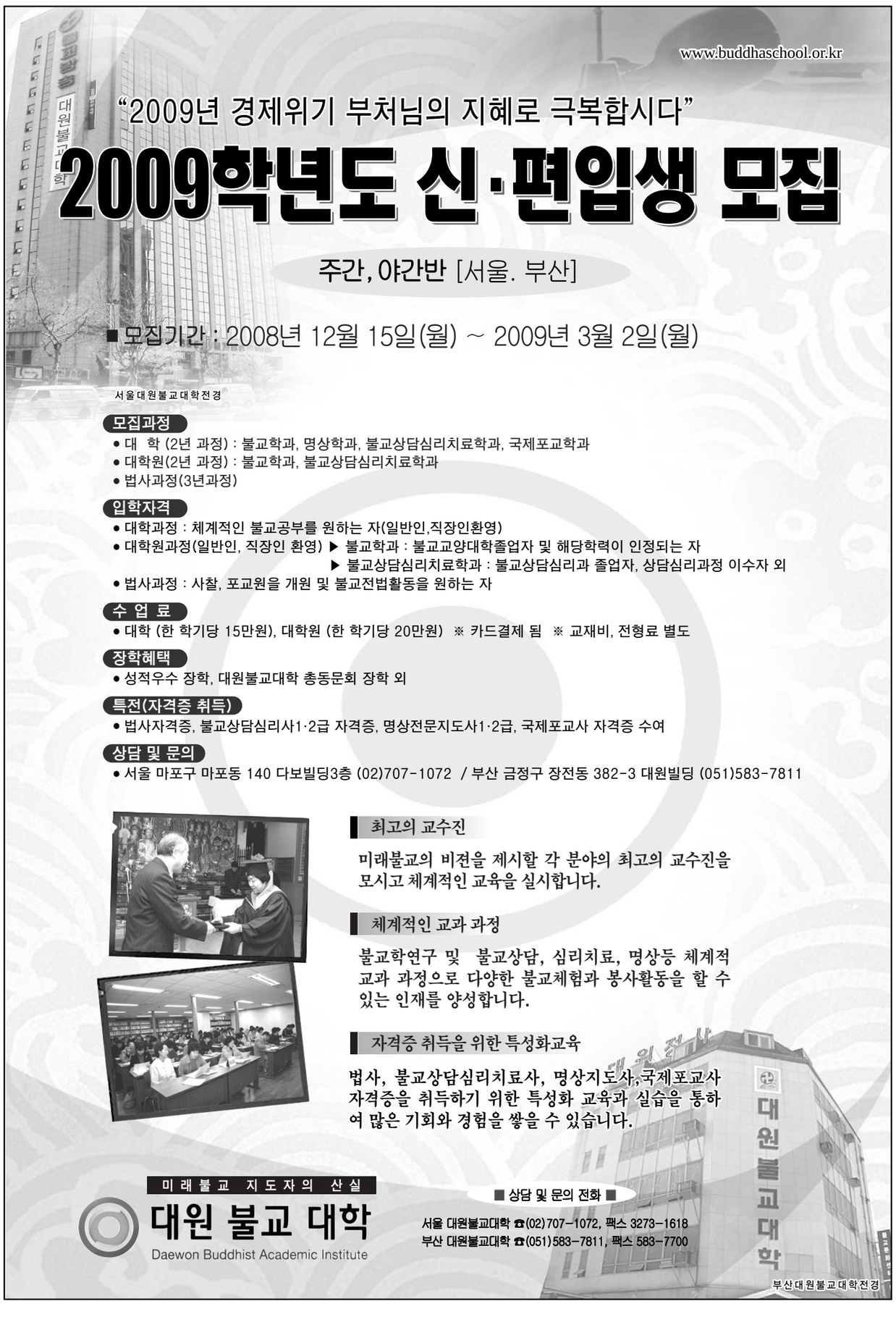
이 주기를 조절하는 곳이 우리 인체에서는 시교차상핵(suprachiasmatic nucleus, SCN)이다. 여기서는 생체시계(biological clock)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빛이 감지되면 활동하라, 빛이 사라지면 자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신호를 받은 솔방울샘(pineal gland:송과선)은 멜라토닌을 분비해 바로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멜라토닌(melatonin)은 우리 눈에 도달하는 빛의 양에 따라 분비량이 조절되는데, 빛의 양이 증가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빛의 양이 줄어들면 분비가 늘어나 잠이 오게 되는 원리이다.

이 솔방울샘의 기능이 떨어지면 불면증으로 충분한 잠을 못 자게 돼 몸과 두뇌의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만성피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해독 기능 또한 떨어지며, 화학스트레스의 증가로 부신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즉 충분한 숙면과 편안한 잠은 우리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불면증 치유 방법들

잠을 꼭 자야만 된다는 관념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억지로 자려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수면을 꼭 필요로 한다면 졸릴 수밖에 없다. 하루 밤 안자고 꼬박 새도 몸에 큰 피해 없으므로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자보려고 뒤척이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더 정신적으로 부담스럽다. 또한 과도한 생각이나 사려심, 소심한 성격 등은 혈부족을 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멜라토닌의 충분한 분비유도문제이다. 멜라토닌은 새벽 2시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불을 완전히 끄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좋다.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기 때문이다. 낮에는 햇볕을 많이 쬐어 행복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 요새는 알약으로 제조된 멜라토닌제도 있으니 복용할 수 있다. (02)576 -7575 (계속)



국내 최초 공정무역 브랜드 '그루' 이미영 대표

마음이 지은 옷, 이야기가 담긴 자연을 누리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수확한 커피를 마시거나, 중국 사람들이 재배한 차를 마신다. 우리는 일터로 나가기 전에 벌써 세계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인간을 닮은 불교적인 시장경제, '공정무역(Fair Trade)' 브랜드 1호점이 한국에 생겼다. 서울 종로 안국동에 둥지를 튼 '그루(g:ru)'가 바로 그곳.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며 여성과 환경의 진보를 위해 고민해온 이미영 대표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한 공간이다.

"가난한 나라의 빈곤은 환경 문제와 동등하게 심각합니다. 환경이 파괴될수록 더 가난해지고 여성의 고통도 가중돼요. 가족은 해체되고 질병을 치유하기도 쉽지 않지요."

그가 경제 구조의 부조리한 착취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세계의 가난을 치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것은 14년 전 제3세계 환경운동가들과 교류하고 부터다. 나와 연결된 일상의 모든 것이 상즉상입(相卽相入)한 화엄의 형태임을 확신한 것이다.

"시야를 넓혀야만 했어요. 소비자를 넘어 지구시민을 대상으로 성찰했습니다. 한국 시민운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결론 내리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보려 했죠. 정책적으로 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틈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했습니다."

결핍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한 그의 실천이 가난한 나라의 장인들에게 서서히 변화를 안겨주었다. 그의 제안은 희망의 가능성이 되고 이상은 현실이 됐다. 더불어 여성의 손이 일궈낸 성공 사례를 찾아 공정무역 생산자의 70%를 차지하게 됐고 자립적인 유기농 순환 농법을 비롯해 작지만 응용 가능한 대안운동을 펼치면서 브랜드 '그루'가 탄생됐다.

나무를 세는 단위인 '그루'를 통해 마음의 숲을 가꾸는 그는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듯 한 사람의 손길이 나무가 되어 모두가 하나의 숲이 되길 발원한다. 한국의 경우 두레생협에서 올리브오일, 아름다운가게에서 커피와 홍차, YMCA에서 동티모르에서 생산된 커피를 제공받고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공동체 조합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발 유통한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든 이의 이야기도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물건은 단순 소비재가 아닙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일주일에 50시간 양탄자를 짜던 소녀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숲의 파괴로 멸종 위기에 몰린 생명들도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됐죠."

편향된 부가 아닌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에게 노동의 대가가 정당히 지불되는 희망의 불교 경제. 공정무역은 세계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운동이며 브랜드 '그루'는 사회적 기업운동이다.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기반 한 새로운 무역관계는 보다 인간적인 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루는 시민주식회사라는 신개념 모델로 80여 명의 소액주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FairTradeKorea)는 주주 모두가 주인공이죠."

(02)739-7944 www.ecofairtrade.co.kr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이미영


'그루' 매장.


'네팔리 바자로' 생산자.

통일신라 불상 1200년만의 환향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展

통일신라 불교미술에 담긴 생명의 울림이 메아리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던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전시를 위해 고국에 환향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12월 16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기획 특별전을 개최한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오구라 다케노스케(1870~1964) 소장이 수집해 반출한 1100여점의 문화재 중 통일신라 불상 5점과 일본 중요문화재 5점을 포함한 총 17점이 전시된다. 또한 경주 부산 등지의 국보급 통일신라 조각과 중국 일본의 것을 모두 모아 동남아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망라한 한국 최초 비교전으로 숨결과 핏줄이 통하는 통일신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상적인 인간 전형으로 탐미한다.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展은 양공(良工)의 솜씨가 빚어 낸 우람한 석상의 위용이 살아있는 법열로 충만한 특별전시다. 통일신라 조각의 정수를 보여주는 200여 점의 유물 가운데 백률사 금동불입상을 비롯한 국보 10점, 감은사 금동사리함 등 보물 9점이 포함됐다. 또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과 협력해 제작된 입체 석굴암도 올 겨울 온가족이 체험 가능한 블록버스터 불교여행이다.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독창성은 한국의 고전미를 확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조각은 사실성과 초월성 그리고 종교성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룬 고대 문화유산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전시는 크게 '전환기의 모색' '새로운 지평을 열다' '완성과 변주' '공덕의 세계, 석탑 부조' '무덤의 수호자들, 능묘조각' '신라 예술혼의 절정, 석굴암'의 여섯 주제로 구성됐다. 이밖에 국내외 저명한 학자를 초빙해 통일신라 조각과 동시대 중국, 일본의 조각사를 포함한 공개 강연회도 연다. (02)2077-9000 가연숙 기자


8세기 일본 나라시대 '동조약사불좌상' 일본 나라박물관 소장.

'밀초'에서 배운 고요한 느림

소선공방 양초공예가 지용 스님

"초 조각 공예를 하다보면 칼의 방향과 깊이에 따라 마음 쓰임이 보입니다."

연말이 되면 가족 모임과 선물용으로 각광받는 '초'는 불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육법공양물 가운데 지혜 광명과 하심(下心) 정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양초 공예가 지용 스님(소선양초공예협회 회장)은 그러한 발원의 의미가 담긴 초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소선공방(www.candlegallery.co.kr)' 명패를 달고 수행 삼아 정성껏 만들고 있다. 법당을 겸한 8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는 아기자기한 수제 초들이 전시 판매되고 조각 공예를 배우기 위한 학생들도 수업중이다.

"1990년 공주 마곡사에서 출가해 동학사 강원을 졸업한 후 동양화를 대학에서 전공하며 불화를 그렸습니다. 어느 날 조각 초를 보고 반해 부처님 전에 흰 초가 아닌 나만의 도안으로 장엄된 초를 공양물로 올리고 싶다 발원한 것이 지금의 소선공방이 됐지요."

어려서부터 절집에서 성장해온 스님은 폐 초가 항상 아까웠다. 공양물로 올렸다 남은 초를 다시 녹여 크레파스를 넣고 색초를 만들며 놀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스님은 수제 양초와 조각 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아로마향초는 밀납에 콩 추출물과 천연왁스 그리고 천연오일을 넣어야 효과가 있는데 사실 파라핀과 아로마오일은 희석이 안돼요. 기존의 아로마향초는 거의 화학적 오일을 쓴 것으로 봐야겠죠. 조각 초 또한 천연파라핀을 사용하면 물러서 일반 화학파라핀을 써야 해요. 아로마 효과가 있는 조각 초는 사실 나오기 힘들죠."

스님에게 양초공예를 배우는 수강생들도 처음에는 절 아닌 곳에 머무는 스님이 낯설었다. 그러나 일상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불안할 때 스님의 지도로 한 생각에 머물며 양초 공예를 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부드러운 초의 재질 때문에 한 순간에 칼날이 꽃잎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도 향상됐단다.

양초에 색을 칠하고 기법을 이용해 초를 만들지만 심지를 꽂아 태워야만 초의 진정성이 발휘된다고 말하는 스님. 도심 속 작은 공방에서 좀 더 예쁜 초를 만들어서 감사와 사랑의 자비를 나누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766-0269

가연숙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웃음보살 불등거사 <27>

구성 : 김흥인



금을 훔친 장사꾼

[백유경(百喩經)]



각각 순금과 '툴라' 라는 솜을 파는 두 장사꾼이 있었다. 순금인지 시험하느라 달궈진 금을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솜 장사가 훔쳐 '툴라' 속에 숨겼다. 금이 뜨거웠기 때문에 솜은 모두 타 버리고 그 바람에 금을 훔친 사실이 탄로 나서 그는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외도들이 부처님 법을 훔쳐다가 자기들 법안에 두고 망령되이 자기들 소유라고 하며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 외전(外典)이 모두 타 버려 세상에 유행하지 않는 것은, 금을 훔쳤다가 사실이 모두 탄로난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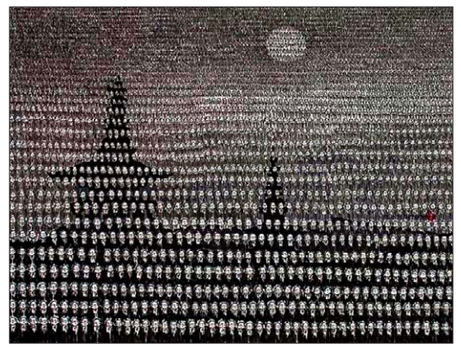
옛 판화의 세계

호계를 넘어 세 사람이 크게 웃다
호계삼소(虎溪三笑)



고려불화대전 중 호계삼소(虎溪三笑)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고승 혜원이 동림사를 방문한 유학자인 시인 도연명과 도사인 육수정을 전송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도 모르게 호계를 넘게 돼 세 사람이 크게 웃는 장면으로, 유불도(儒佛道)의 진리가 그 근본에 있어 하나라는 것을 상징한다. 동진의 고승 혜원(慧遠)은 중국 정토교(淨土敎) 개조로 알려져 있는데 그를 북주의 혜원과 구별하기 위해 보통 여산의 혜원이라 부른다. 그는 처음에는 유학(儒學)을 배웠고, 이어 도교(道敎)에 심취했는데, 성품과 도량이 넓고 우람했으며 풍채와 지혜가 명랑하고 뛰어났다. 그는 도안 법사가 <반야경>을 강의하는 것을 듣고 활연히 깨달아 탄식하기를 "유교, 도교 등 아홉 갈래 부류는 모두가 술 막지 찌꺼기에 지나지 않구나" 했다.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불문에 들어가 홀로 뛰어나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혜원은 심양 땅에 이르러 여산의 산봉우리가 청정해 마음을 쉬게 할 만한 곳임을 보고 동림사를 열어 수행정진하게 됐다. 혜원 스님의 소식을 듣고 귀의한 제자 중에는 유우민, 뇌차종 등 선비들도 있다. 혜원이 있던 이 동림정사 밑에는 호계라 불리는 시내가 흐르고 있었으며, 손님을 배웅할 때 이곳을 지나치면 호랑이가 울었다. 혜원은 찾아온 손님을 보낼 때는 이 호계까지 와서 작별하도록 정해져 있어 절대로 내를 건너가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때 유학자요 시인 도연명(陶淵明)과 도사(道士) 육수정(陸修靜)을 전송하며 이 호계를 지나고 말았다. 문득 호계를 지나온 사실을 안 세 사람은 마주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이 이야기를 송나라 화가 석각(石恪)이 최초로 그리기 시작해 뒤에 많은 화가들이 그렸으며, 우리나라 옛 화가들도 많이 그렸던 그림이다. 유불도의 진리가 그 근본에 있어 하나임을 상징한 '호계삼소도'는 다종교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다보탑과 석가탑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시비 하는 자 없고
아무것도 즐 게 없어 관심 갖는 이 없도다.
佛國의 밤 심심한 마당에 비 떨어지는 소리
한가로이 고개 숙인 중 살림이 넉넉하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무선마이크 무료보시 합니다!
2008년 12월 ~ 2009년 1월 中 앰프, 스피커 설치 사찰에 한함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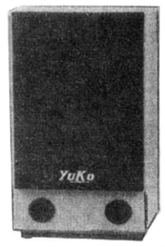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高音質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법당 : 24평	● 법당 : 18평	● 법당 : 30평
● 요사 : 24평	● 요사 : 25평	● 요사 : 130평
● 부지 : 560평	● 부지 : 97평	● 부지 : 800평
● 가액 : 6억	● 가액 : 9억	● 가액 :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산신각
● 요사채 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사찰 뒤편 산(공원)
● 텃밭 300평
● 가액 : 9억

● 위치 : 양산 신도시 근처
● 대지총평수 : 1300평
● 법당 35평, 요사채 80평 대종각
● 전통기와양식 내 3포 외 5포
● 낙동강 전망최고, 국도 근처
● 산세수려(큰바위산)계곡접
● 약 30억불사
● 가액 : 11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소재
● 부지 : 400평
● 법당,요사 : 컨테이너 2동 설치
● 가액 : 2억 2천만원
● 특징 : 토목공사 정기 상수도 공사 완공 1억 2천만원 소요됨 산밑에 위치한 명당터로 주지스님 신변관계로 급히 양도코자 합니다

● 위치 : 경남 창녕읍 소재
● 부지 : 800평(종교용지)
● 법당 30평(목조 단청)
● 요사 2동 80평
● 기타 : 종각, 석탑, 석등
● 가액 : 3억5천만원(2억까지 융자가능)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서울 010-5828-04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7백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50-4899
053)522-6487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흥룡부락 해발 300고지
● 도선국사가 점지한 흥룡도강형의 명당 육관 손석우씨가 세번 찾다가 못 찾은 터(천장비지)
섬진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경관
● 대지:1,247평(사찰터와 묘자리가 같이 있음)
● 평당 : 8만 5천원(절충가능)
011-9310-6780

대사찰 급 안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1-1번지
● 자연환경: 일월산 밑 칠성봉에 대미륵불 발견 천년생 약수터 전면에 하천 주변은 칠보석 암벽지대
● 조성환경: 대지2700평을 토목공사 완료 고급관상수 와 약재목 식재 골프잔디밭, 칠보석 축조된 연못, 사원내 포장도 심야전기 난방 40미리수도관
● 사찰규모: 대웅전 70평,요사채 90평,산신각 8평 기타건물 3동 불연성건물 별장같은 사찰을 안내합니다. ● 가액 : 6억원
● 대 미륵불 계신 임야 11000평 무상증여합니다
011-538-221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3층건물중 2층
● 총평수 42평(법당,방2개,공양간)
●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즉시법회가능(꼭 하실분만 연락)
011-506-2282
053)759-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2)887-2138
010-7104-484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방 3칸, 시설비 약간
답사 후 절충
● 전세 2,000만원
02)934-3352

포교당 안내

● 위치 : 온양 역세권 (도심 포교원)
● 가액 : 임대보증금+ 시설비포함 = 2,100만원
월 35만원
● 시설 A급, 포교원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0-2220-4144

사찰 전세 및 양도

● 위치 : 서울 평창동
● 대지 : 221평
● 법당 36평, 천불전 25평
산신각 6평, 종각 6평
건평157평(실평210평)
요사채 지하1층 지상 3층
● 전세 : 7억, 매매 : 30억
010-5004-3935

도심(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평수 : 110평
● 법당 : 약60평, 삼존불(동불), 불단, 삼성단(원목)등
● 요사 : 약50평,방3개,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 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 총 2123평
(종교부지165평)
●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양도가 : 2억 3천
010-5430-3963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선바우산 소원바위 절터
● 평수 :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
● 대한민국 최대 와불의 산이 있고 산세 수려함
문의 전화 011-822-0347
010-9258-3459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포교당(암자)안내

● 위치 : 대전시 동구 가양동 주택가 요지
● 평수 : 단독 1층건물 27평 작은마당있음
● 아미타,관세음,지장보살, 후불탱등, 고급신조성시설
● 가액 : 보증금 1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5457-3344

임법당(사찰 수준급)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중심가
● 평수 : 1층 단독 50평, 10대 주차 공간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용왕탱화 지장보살 소불 100불
● 모든 시설 완벽,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 불사관계로 양도함
011-402-1669
033)661-291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전세만가능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60-2번지
소요산 지하철역에서 3정거장 소요 4차선 대로에서 2분. 산밑 앞이 트임
● 대지 350평, 임법당 50평
● 주차 여러대 완비. 텃밭 용이 전원주택 토굴로도 가능
● 즉시 입주 가능
● 전세 : 5,000만원
011-9128-20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 총대지 약 407평
● 법당1, 요사채2, 주방 거실,화장실
● 가액 : 9천 8백만원
● 집기,비품필요하신분 별도 양동함
시설비 2천2백만원
011-439-9059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이전관계로 양도함. 등기 337평
● 한옥토굴 27평 방 2개
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가액 : 7,500만원
010-8868-9407
054)673-6496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평수 56평, 법당, 방 3,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6739-6426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얼음골 근교
● 평수 : 약 1만평
● 명산 계곡절경, 경관수려
● 가액 : 8억
010-4876-553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 112평
● 전 : 118평
● 양도가 : 1억
010-7545-34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 평수 : 약50평
● 보증금 : 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 삼천만원
● 즉시법회 모든시설 완비
010-5364-0038

사찰(급) 안내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 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포교당 안내

● 위치 : 안양 중심지 (명학시장 2층)
안양역 명학역에서
도보10~15분거리
● 실평 약30여평 10년운영
● 전세3000만원
월세1000만원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010-5495-4678

포교당 안내

● 위치 : 목포 삼정동 상가건물 4층건물중 3층 43평
방2개 화장실2개
● 삼존불,지장탱화,신중탱화, 후불탱화
● 역학하시는분이나 무속인 가능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상담후 결정
● 보증금 1000만원 월20만원
비품일체 양도
010-3535-246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세말 IC에서 5분거리
● 대지 5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6평
● 큰방3 중간방3, 수세식화장실3개
● 수려한 경치와 청정계곡을 품고 명당에 위치하는 사찰
● 신심깊은 스님께 양도하고자 합니다
● 양도가 : 4억 5천만원.전세도 가능
033)345-5597
011-771-5597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동소재
● 대지 61평, 건평 법당채27평
● 요사채15평,임법당
(아미타 삼존불) 탱화포함
● 가액 : 1억 2천만원
011-586-12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평수 : 790평
● 법당20평 요사채 상 · 하채
명당자리 방4,큰창고
감상용 양어장
주차시설 완비
● 가액: 2억 3천만원
055)883-8846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야산 해인사 부근
● 부지 : 754평
● 대웅전 20평 조립식 건물
(삼존불과 약사불 칠성탱화 신중탱화)
● 요사채 45평
(나무 기름 겸용 보일러설치)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010-6835-7370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 기슭
● 부지 : 약 2000평
● 법당 : 50.4㎡
● 요사채 : 87.7㎡
● 납골당 : 99.0㎡
● 지장전 : 53.0㎡
● 종교단체 납골당 허가 있음
● 가액 : 16억원
055) 337-011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 평수 : 24평
(법당, 방 2, 거실 : 공양간)
● 보증금 : 1500만원 월65만원
시설비 : 상담후 절충
● 즉시법회가능, 모든 시설 완비
010-2082-8497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40평외
국유지20평정도 무상사용
● 1층요사 2층법당
● 가액 : 1억 6천만원
(융자 2500만원됨)
● 특징 : 도심속의 숲,
마당안 천연수 흐름
연못있음, 아파트등
인구밀집지역
● 역학 기치료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8-567-3617(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대원정사 극락원
● 총대지: 378평,
● 법당목조단청32평, 산신당 용왕당,종각, 칠층석탑, 석조약사여래입불상
● 요사채 30평,반지하 100평
● 성산일출봉이 보이며 관광일 주도로변에 위치
● 급 양도가 : 3억 3천
064)702-9982
011-858-88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7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권 시내
● 평수 : 대지 400평 ● 내용 : 법당, 요사채, 창고
● 특이사항 : 주위가 대형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둘러쌓여 포교적지임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1-269-9091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법당 25평
방3, 욕실, 주방
● 아미타 삼존불, 집기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 2000만원
010-4662-10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대지 120평
● 건물 임법당 20평, 후원채따로 있음
방4개 아미타삼존불. 집기일체양도
● 가액:1억1천만원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 평수 : 4천평 ● 가액 : 3억원
● 법당, 삼존불, 시설완벽함
물좋고 산세수려한 기도처, 명당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마당, 연못
● 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 1억5천만원가능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요망
010-3996-2035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 서울역 도보10분거리
● 4층 건물에 3층법당, 상담실
4층 요사방, 부엌
● 보증금 시설비 2300만원
월세 50만원. 법당시설완비
011-9105-002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내
● 평수 62평
● 삼존불, 탱화 등 모든 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2074-9335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8장 각지마사(覺知魔事) ⑤ 끝

마군은 내 마음속의 허망한 분별의 모습

復次 若見魔境不謝 不須生憂 若見滅謝 亦勿生喜 所以者何 未曾有人坐禪見魔化作虎狼來食人 亦未曾見魔化作男女來爲夫婦 當其幻化 愚人不了 心生驚怖 及起貪著 因是心亂 失定發狂 自致其患 皆是行人無智受患 非魔所爲 若諸魔境惱亂行人 或經年月不去 但當端心正念堅固 不惜身命 莫懷憂懼 當誦大乘方等諸經治魔呪 默念誦之 存念三寶 若出禪定 亦當誦呪自防 懺悔慚愧 急誦波羅提木叉 邪不干正 久久自滅 魔事衆多 說不可盡 善須識之

다음으로는 마군경계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본다 해도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마군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본다 해도 역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좌선을 하면서 마군이 호랑이로 변화하여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마군이 남녀로 변화하여 정말로 부부가 되는 일도 지금껏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깨비의 변화인 마군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실재를 모르고 무서운 경계에선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랑스런 곳에선 탐욕의 집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마음이 혼란하기 때문에 선정을 잃고 미친 마음이 발동하여 스스로 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수행인이 지혜가 없어 스스로 환란을 일으키는 것이지 내 마음 밖에 마군이 따로 있어 외부에서 찾아와서 생기는 일은 아니다.

모든 마군경계가 수행인을 뇌란시키면서 한달 한해가 지나도록 떠나지 않으면 단정한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을 견고하게 다져야하며 내 목숨을 아끼지 말고 근심과 두려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대승방등경 등 모든 경전과 마군을 다스리는 주문을 외우면서 삼보에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또는 선정에서 나왔을 때에도 주문을 외워 마군을 방비하고 참회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하며 파라제목차의 독송을 오래토록 지속하다보면 삿된 마군이 정도를 간섭하지 못하고 스스로 소멸하게 된다.

마군의 일은 수없이 많아 이루 다 설명하기 못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를 잘 식별해야만 한다.

대승방등경은 능엄경(楞嚴經) 유마경(維摩經) 사익경(思益經) 해탈심밀경(解脫深密經)등이며, 마군을 다스리는 주문은 능엄주(楞嚴呪) 대비주(大悲呪) 등이다.

파라제목차는 번역하면 계율이다. 이도 역시 대승계와 소승계의 구별이 있다. 수행자가 선정 속에서 마군에게 뇌란을 당할 때에 일체 계율의 모습과 삼보와 모든 대승경전을 가만히 암송하면 마군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삼매도 스스로 목전에 나타나게 된다.

허깨비인 마군을 실제 있는 것으로 착각
제법실상의 이치 관찰하면 경계도 사라져

삼보는 불법승인데, 이 세 가지는 세간에서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보배라고 한다. 그러나 이도 주지삼보(住持三寶) 동체삼보(同體三寶) 별상삼보(別相三寶)로 나뉘어 대승삼보와 소승삼보가 동일하지 않다.

是故初心行人 必須親近善知識 爲有如此等難事 是魔入人心 能令行者心神狂亂 或喜或憂 因是成患致死 或時令得諸邪禪定 智慧 神通 陀羅尼 說法教化人皆信伏 後卽壞人出世善事 及破壞正法 如是等諸異非一 說不可盡 今略示其要 爲令行人於坐禪中 不妄受諸境界 取要言之 若欲遣邪歸正 當觀諸法實相 善修止觀 無邪不破 故釋論云 除諸法實相其餘一切皆是魔事 如偈中說

若分別憶想 卽是魔羅網
不動不分別 是則爲法印

초심수행인은 반드시 선지식과 친근히 해야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마군의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다.

마군은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 수행자의 정신을 미치게 하여 기쁘게도 하고 근심하게도 하기 때문에 병이 나고 끝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때는 수행인이 삿된 선정과 삿된 지혜와 삿된 신통과 삿된 다라니를 얻어 삿된 설법으로 교화시키면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믿고 복종하기도 한다. 하지만 훗날에는 출세간 선한 일과 정법을 파괴한다.

이와 같은 모든 특이한 경계는 한결같지 않아서 이루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간략히 요점만을 제시하여 수행인이 좌선하는 가운데 모든 경계에 망상으로 오염되지 않게 할 뿐이다.

삿된 마군을 버리고 정도로 귀의하려 할 경우 제법실상의 이치를 관찰하여 지관을 훌륭하게 닦으면 그 어떤 삿된 마군이라 할지라도 타파하지 못할 일이 없다. 따라서 석론(釋論)에서는 "제법실상을 제외한 그 밖에 일체 모든 것은 다 마군의 일이다"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실상을 떠난 밖에 따로 얻을 법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령 분별하고 기억하고 상상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군의 그물이며 움직이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법인(法印)이다"

여기에서는 사견에 집착한 이유와 그 과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초심수행인은 최초로 발심하여 지관을 수행하는 자이다. 선지식은 병을 알고 약까지 식별하여 병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약을 주는 자이다.

다라니는 번역하면 총지(摠持)라고 하는데, 일체 선법을 지니고 흩어지거나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는 일체법을 총괄하고 한량없는 의미를 지녔다고 말하기도 하며, 선법을 잃지 않고 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총지라고 말할 수 있다.

제법실상(諸法實相)이라는 이 네 글자는 법화경의 주요골자이다. 십법계인과(十法界因果)의 법이 본래 허망한 모습을 떠나 모습마다가 모두 진실임을 말한다. 때문에 제법실상이라고 부른다.

알아야 할 것은 실상은 분별상이 없다는 뜻이라는 점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보면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망상의 견해이다. 만일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다 해도 그 자체는 실제 있지 않는 것을 허깨비와 같은 망상의 모습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관찰한다면 차별적인 모습 그 자체에서 분별의 모습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청정한 실상이다.

기신론에서는 "일체 차별적인 경계는 망상 분별 때문에 일어난다. 만일 망상분별이 없다면 일체 차별적인 경계의 모습이 없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여래의 평등 법신이며 이 법신을 의지해서 본각(本覺)이라고 설명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각은 실상의 이치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마군은 내 마음밖에 실재하는 마군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분별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옹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6) 세계와 인생은 유심연기(唯心緣起) ①

십이연생설은 단지 우리들의 생활내용을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분히 관념적으로 세계와 인생의 유래를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깊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설명한 십이인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총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심연기'의 이치를 분명히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십이인연 가운데서 '무명'이 가장 으뜸을 차지합니다. 이 의미는 심오하고 미묘하여 범상한 지혜로서는 그 근원을 끝까지 추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늘을 위로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대지는 무엇 때문에 있는지, 우리들의 삶은 어디로부터 유래했는지, 죽으면 다시 어디로 가는지, 내지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매일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지 등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거기에서 어떤 명확한 해답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쉽사리 결론을 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기만 합니다. 요컨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갖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그 어떤 질문도 쉽사리 용납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으며, 설사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부딪치는 곳마다 이처럼 의문투성이건만 그 근원적인 도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근원적인 도리는 원래 질문이 용납되지 않고 답변도 용납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있어서 질문과 답변을 부질없이 주고받는다면 그 결과는 오리무중일 뿐입니다. 이 같은 불분명한 상태를 십이인연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세력은 극도로 광대하고 이것이 근원적인 의지처가 되어 신구의 등 세 가지 행위조작이 일어나게 됩니다(行).

'행'은 역시 '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작의 의미입니다. 일체의 조작은 '무명'의 미혹을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미혹은 조작의 작용을 일으켜 단절하지 않고 무궁하기 때문에 조작도 역시 무궁합니다.

이상의 '무명'과 '행'을 총론적으로 관찰해 보면 요즘 철학가들이 흔히 말하는 '맹목적(無明)이고 충동적인 행위(行)'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고원사
● 주　지 : 대안 (정금호)
● 주　소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육갑납음풀이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오행육갑 납음속에서 가장 단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갑납음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궁금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내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총판 : 법우당
02)994-4437~8

성명 통변을 위주로 공부한다!!
7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12월 29일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사주명리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분 :
사주보다 나은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않되는 분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임육효, 관상, 내정법 등에 청통하신 교수님이 사주명리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7-711-2248

왕릉순례 최상의 법문 '죽음'과 '역사'의 만남

65 에필로그

동어반복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거부하면서도, '최상의 법문은 죽음이다'란 말을 참 많이 한다. 불가에서는 죽음을 일컬어 '열반' 혹은 '적멸'이라 한다. 죽음은 숙연한 축제이다. 죽음은 화해와 화합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이다.

열반은 생사를 넘어선 각(覺)의 세계로서,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목표이다. 인간은 망집 때문에 괴로워하고 업을 짓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만일 고(苦)와 무상(無常)과 비아(非我)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지혜를 완성한다면, 생사윤회의 근본인 망집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수행의 결과로 진리를 터득하고 망집을 단절한다면 인간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이다. 열반은 마치 바람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는 것과 같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의 바람으로 불어 꺼서 모든 고뇌가 사라진 상태다. 열반은 탐욕과 괴로움과 근심을 추월한 경지이다.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경험 안에서는 그 어떠한 말로써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다만 체득한 자만이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왕은 죽지 않는다. 아니 죽지 못한다. 육신은 소멸됐으나 행적은 불멸이다. 잊혀지길 원해도 잊혀질 수 없는 시퍼런 역사로 살아 있다. 피를 동반한 야심과 패기로 권좌에 올랐든, 얼김에 떠밀려서 왕이 되었든 불멸의 이름을 달고 높다란 봉분 이불 아래 누워 있다. 그들은 과연 열반에 들었을까.

왕릉 순례는 '죽음과 역사'라는 두 가지 화두와의 만남이다. 사색과 성찰, 휴식과 운동이란 부가가치도 뒤따른다. 조선 왕릉은 왕조 500년 역사의 타임캡슐이다. 대부분 경복궁을 중심으로 100리 안에 있다. 즐거운 소풍놀이다. 왕릉은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 선물은 달콤한 케이크가 아니다. 그렇다고 쓰디쓴 쑥물도 아니다. 낙화분분한 봄날에는 영화(榮華)의 가마에 동승하고 비바람, 눈보라 치는 계절에는 권력무상, 인생무상의 하중에 어깨가 무겁다.

역사는 살아있는 교훈이자 화해의 축제이다. 500년 조선의 역사를 폐기된 역사책이 아닌 생생한 역사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왕릉이다. 그곳에는 해마다 봄이면 파란 잔디가 새롭게 돋고 가을에는 단풍 치장이 현란하다. 눈보라치는 날엔 절해고도에서 면벽 수행하는 선객처럼 의연하다.

그 속에는 영광을 물려준 이도 있고 치욕을 유전한 이도 있다. 성군 세종도 있고 폭군 연산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대등한 조상이다. 조상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의연히 접수해야할 운명이다. 그들이 물려준 영욕을 딛고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있다.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대~한민국에 우리가 있다. 조상이 물려준 불굴의 DNA를 담고 이 땅에 살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왕들의 외호가 있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왕릉답사를 하면서 키가 커진 느낌이다. 가슴도 넓어졌다. 고마운 일이다. 늘 운전대를 잡고 왕릉 현장까지 동행한 사진작가 최진연 선생의 노고도 고맙다. 현장에 당도하면 그는 무거운 사진 장비를 메고 뛰고 나는 게으른 악어처럼 느리게 뒤따랐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사색한 현대불교 임연태 부국장, 강지연 기자의 배려가 크다. 감사한 마음을 그윽하게 간직할 것이다. 크고 작은 오류를 지적해주고 격려해준 독자제위께도 합장례를 올린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서 울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E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대 표	전 주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미 천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서 울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무사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공회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설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무원사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무원사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설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영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리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무원사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영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사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사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준공무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천 북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졸	농 업	경기도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사원	울 북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영업	전 북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사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육직	서 울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울 북
안상기	1966년생	185	대 졸	무사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충 기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사원	경 전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울 주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충 서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 무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울 산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대 구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리사	울 북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약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부 산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천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 사	대 전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 인	충 북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청 주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주 구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동산	대 구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무원	청 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과점	청 주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서 울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사원	서 울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예가	경기도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 울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울 구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사원	구 울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울 안
박경하	1952년생	177	대 졸	무역업	울 안
전준석	1957년생	167	고 졸	회 사	천 안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오영일	195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강태욱	1975년생	169	고 졸	자영업	서 울
김용진	1968년생	160	대 졸	자영업	인 천
이경술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업	경기도
심명길	1971년생	170	대 졸	자영업	경기도
이연재	1974년생	169	대 졸	회사원	서 울
배덕열	1976년생	168	대 졸	회 사	경기도
배복열	1967년생	165	고 졸	자영업	경기도
최병덕	1968년생	170	고 졸	회사업	경기도
장보배	1973년생	176	고 졸	자영업	아산시
유돈석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서 울
유정환	1974년생	162	고 졸	회 사	대 전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공무원	서 울
조경정	1945년생	171	대졸자	영업사	경기도
한 균	1963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서 울
소무영	1961년생	175	전문대	회원원	경기도
지상훈	1971년생	180	고 졸	은행사	서 울
이종필	1974년생	174	고 졸	회원원	충 북
남상복	1967년생	175	전문대	회원원	김해시
최치원	1976년생	165	대학원	연구사	대 전
김성진	1979년생	171	고 졸	회원원	울산시
백선기	1976년생	167	대학원	회 사	서 울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내가 아는 마음이 천심으로 돌아간다!

넓게 생각을 한다면 작년, 올해, 내년도 없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살아나가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니만큼 올해도 벌써 기울어서 내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수억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떡하고 가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미래는 훤히 내다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몸이라는 싹 때문에 자기 종성(種性)을 모르고, 즉 종자란 뜻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 싹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항상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괴로움도 더 많고,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이 모두가 겹쳐서 참, 사는 게 뭣인가 하고 허망한 생각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를 가만히 따지고 볼 때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거를 안다면 살고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오분향(五分香)을 말했지만, 오분향은 오계(五戒)의 근본적인, 공부하는 이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예불에 이 오분향을 스님네들이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또 스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 오분향을 다 아실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해마다 받는 오계의 의미도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기 이전에 지혜로우면 껑충껑충 점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행동을 하며 남편의 행동을 하며, 아들의 행동을 하며 형의 행동을 하며, 아우의 행동을 하며 사위의 행동을 하며, 친구의 행동을 하며 사원의 행동을 하며, 여러 가지를 자동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듯이 부처님 법에 요렇게 꼭 집어서 말씀해 놓으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다, 누구를 만나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만나고 말하고 듣고 보고 이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유스럽죠?

그런데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콩을 심어서 콩싹이 났는데 콩싹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더라이겁니다. 자기만이 자기인 줄 안다 이런 거죠. 엄연히 자기 종자가 있어서 콩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면 '아, 콩씨가 없어도 콩싹이 없고 콩싹이 없어도 콩씨가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벽을 치면 붓장이 울리듯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 분한테, 요거 한 가지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둥글려서 말을 하려니까, 둥글려서 천체 나가려니까 이것저것, 소소한 것, 뭐든지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게끔 항상 말을 하죠.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성제니 오계니 그런 게 모두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는 이치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그 길을 걷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물은 강하면서도 유유히 돈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유유한 게 아니죠? 시대를 우리가 좇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우리를 좇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죽거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대는 바뀌질 수도 있고, 좋게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주인은 우리 마음이죠.

지구의 근본과 우리의 근본, 우주의 근본, '삼천대천(三千大千)' 이럽니다. '삼천(三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삼천이랬나 하고 말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포함한 것을 삼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삼심(三心)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요거는 한 개체만 보는 견해에서 삼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본다면 '삼천'이라고 하죠. 이것을 삼세간이라고 하는데, 그 삼세간이 어떻게 돼서 일심(一心)으로 돌아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체가 바로 삼세간에서 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 내에 하세계, 중세계, 상세계가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 삼세계가 여기 우리가 지금 사는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세간이라는 그 자체가 있다면, '삼천' 하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한마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마음을 '천'이라고 합니다. 또 '대천(大千)' 이럽니다, 대천! '삼천대천'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마음과 저 외부의 한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간, 대천세계와 더불어 같이 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 하는 것이, 삼천은 벌써 돌아가고, 삼천이 대천하고 포함된 겁니다, 이게. '삼천' 하면, 삼천이라고 한 말은 금방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서 현실로, 그냥 대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 천심이요, 천심이 일심이라. 내가 아는 마음이 천심으로 돌아간다. 남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마음이 천체와 다 같이 돌아가니 이건 무슨 까닭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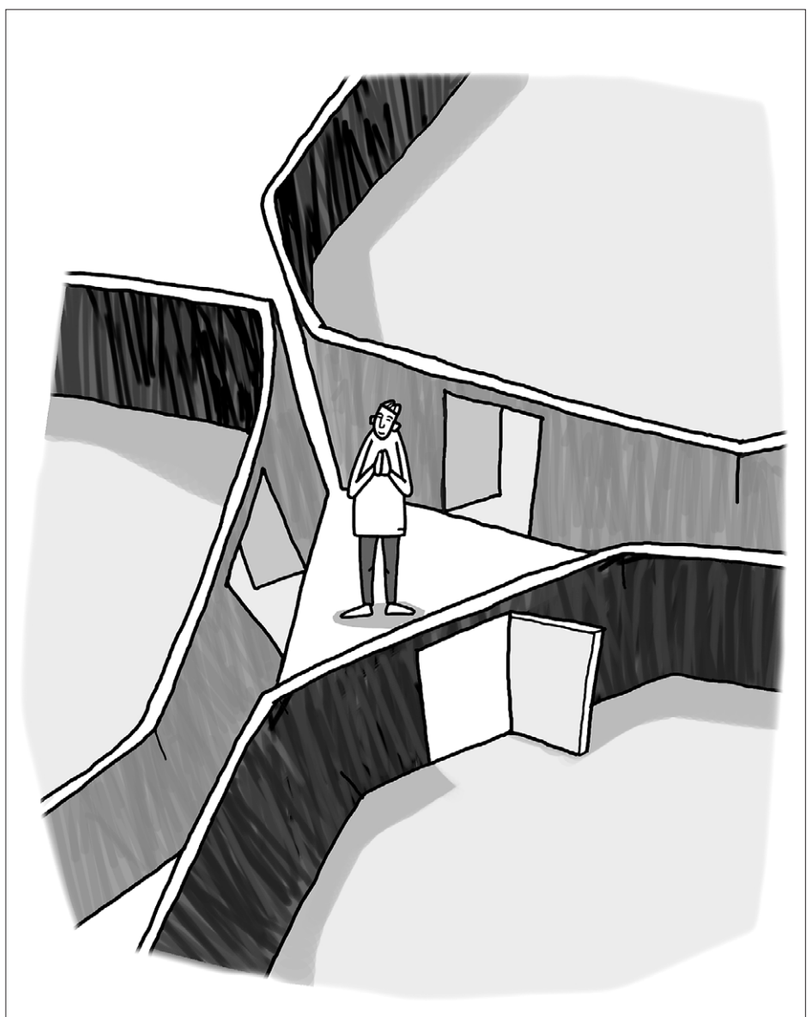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죽어 보지 않았으니까 죽은 세상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업식에 의해서, 즉 남의 다리 긁어 가면서 살거든요. 허허허…. 그런 경우가 많죠. 남이 이럭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흔들리면 나도 저렇게 흔들리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 안 된다 하는 말도 없이 그냥 천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중심이 없이 그냥 남의 다리 긁어 주면서 가는 거죠. 자기 다리를 시원하게 긁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삼천대천' 이럴 때, 삼심이 일심이면 그 대천과 지금 현실의 삼천이 둘이 아닌 까닭에 내 한마음에 응집이 되고 한마음에 정심(定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분향을 얘기할 때에 '누구든지 함이 없이 해라'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주상(無住相)이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이 무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이 없이 주되 아주 똑바로, 똑 부러지게 해 놓는 것이 바로 무주상이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깨달은 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함이 없이 무주상 보시 하라' 이런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70년경에, 처음에 이 집을 지었을 때는, 저기 조그만 가겟집 하나뿐이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동묘지였고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공양주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도선생이 오실 테니까 저 문 좀 단속해라." 이러곤 무심코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변소문에 이렇게 망을 쳐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망 쳐 놓은 것을 뜯고선 그리로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야 사람이나 몇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하실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밤중이 되면 할 양으로 숨어 있는 겁니다. 집어갈 거나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 사람들 놀라겠고 큰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고 그 지하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 "빨리 나와!" 문을 열어 놓고 말입니다. "빨리 나와! 아, 빚을 준 게 있으면 대낮에 받으러 오지, 어찌 이렇게 밤중에 와서 남 놀라게끔 만들어?" 이러면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픽픽 웃는 소리가 나요. 허허허…. 웃는 소리가 나더니 아주 젊은 애가 신발을 벗어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부처님 법에 이런 게 있다. 네가 뭐를 훔치러 왔어도, 가져가게 돼서 가져갔으면 바로 빚 받을 게 있어서 네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빚을 받으러 왔으면, 떳떳하게 앞문으로 들어와서 "나 빚 받으러 왔소." 하든가, 그렇지 못하다면 "스님, 나 이런 게 이렇게 힘드니까 쌀 좀 주시오. 돈 좀 주시오." 하든가 아, 그러면 내가 안 줄 사람이 아니야. 있으면 다 털어 줄 사람이지. 빚 갚는 데 무슨 이유가 붙겠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참이나 있더니 그래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병이 나서, 상당히 급하게 생겨서….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하

☞26면으로 계속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영남불교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

모 집 학 과	강 의 내 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화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중급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법 (대령,관욕,시식등)	수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전문반	짓소리,전통예능등 통합반	목	2시~5시	20명(1년)
작법무반	바라,나비,사찰학춤	금	2시~4시	30명(6개월)
국악기반	태평소,단소,대금 (영산회상,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6개월)

◆개 강 일 : 불기 2553년 기축년 양력 2월 3일 오후 2시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기숙승방 운영(선착순 우선):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s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 이수자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생명 나눔 실천 기금 및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 051)327-5095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buddhanews.com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25면에서 계속

하…. "아, 더더욱 그렇지, 그렇다면." 그러면서 좀 줘서 보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삼백 정도 되게요. 왜 그랬느냐 하면 도둑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어리석으니까 저지르는 거지, 본래 본성이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강도든 아니든, 도둑이든 아니든, 선하게 사는 사람이든 간에 본성은 다 평등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환경에 쪼달리고 바람에 쓸리고, 이러다 보니까 남의 다리를 긁게 되고 그것도 시원치 않으니까 훔치러도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모자라게 하더라도 듣는 건 잘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분향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오계도 거기 포함돼 들어가니까, 못났든 잘났든 모두가 자기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고, 사느라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없죠? 따따부따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분향은 처음에 공부할 때에 이렇게 공부를 해라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부처님께서 당시에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쳤단 얘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두 남의 탓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해라.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잘한 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써 내 탓으로 생각해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부딪치는 거지 내가 없다면 어떻게 부딪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안 그럴까요? 허공에다가 돌을 친다고 소리 나는 거 보셨어요? 돌이 마주 치니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탓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있는 탓으로 인해서 상대에 부딪칠 수도 있고 상대로 인해서 누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첫째, 모든 것을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은사에게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불가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안과 바깥의 모든 걸 다 모아라 이겁니다. 모으는 작업을 해라. 정(定)에다 놓는 작업을 해라. 이게 계향(戒香)이에요.

정향(定香)이라 하는 것은 한군데다 모아서 익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익어진 것을. 아, 이제는 내 주장자가 엄연히, 딱 심봉이 박혀 있으니까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게끔 됐을 때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정향! 완전히 심봉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때, 이제는 그 정향 속에서 들이고 내는 살림살이가 여여하게 들이고 내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게 여여하게 돌아가게 되자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써 여여하게 하니까 자기 말이 법이 돼서 그대로, 들이고 내는 것이 모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또는 꺼내도 줄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정향에서 들이고 내는 데 완전히 손색이 없다면 그때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혜향(慧香)이라고 그랬습니다. 혜향! 지혜 혜(慧)자 혜향!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 오면서 느끼고 배운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분향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 '아하!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구나.' 하고요. 하하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처는 많고도 많더군요. 전부 그냥, 전부 부처예요. '전부 주인공이십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혜로워지면 그때는 들여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걸 자세히 얘기할까요? 심령을 천 개, 만 개를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죠? 그렇죠? 이 허공에 꽉 찬 마음을 다 꺼낸대도 줄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평등공법(平等空法)에 의해서 나오는 법 아닌 법입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 하는 혜향이 있습니다. 그 혜향이 이제 완성되면, 이게 꺼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게끔 완성된다면 마음이 다 익어 간다는 얘깁니다. 그런다면 그 속에 지금 오계로 받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게 익어 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해탈향(解脫香)이 나옵니다. 그땐 뭐냐 하면 바깥에 다니면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같이 와서 얘기를 하거나, 뭐 하다못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거나, 이런 것들 전체를 그저 보는 대로 무명을 거둬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거둬 주는 게 아니라 일체 선명하게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져서 그 무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진화를 해라.'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초등학교 다니는 거를 중학교로 올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걸 첨단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례차례 이렇게 올라가게끔 무명을 전부 벗겨 주는 것입니다. 묶여진 마음을 다 헤쳐 주는 것입니다. 무명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생명들을 다 그냥 풀어 주는 거죠. 그거를 풀어 주게 되면 자기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점프하게 되거든요. 진화를 해서 형성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몇천 년 그냥 가도,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거 말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해탈향' 이럽니다. '더불어 같이 묶인 무명을 풀어 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풀어 준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이것은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길 하면 또 복잡해서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을 테니까요. '해탈지견향' 하면 미생물에서부터 모든 게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도량 아님이 없으므로 일체 부처하고도 둘 아니고, 일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하나로 묶어져서 펴지고, 펼쳐지고, 묶어지고, 하나로 되고, 수만으로도 되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구경(究竟) 도리천에 이르러서 자유스럽게,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 번에, 한 생각에, 찰나에 돌아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같이 응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또 같이 할 수 있고, 내가 되지 않는 게 없고, 내 몸 아니 되는 게 없고, 지장 · 아촉 · 아미타 · 미륵 · 칠성 · 관세음 · 지신 · 용신 모든 것이 내가 아니 됨이 없을 때 해탈지견향입니다.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 얻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름 아닌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 아닌 이름! 그래서 한울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 하는 것은, 도리천을 큰 바다라고 하면 이 바다 가운데서 그냥 인정을 한다, 인가(印可)를 한다 이런 거죠. 그냥 잔등이에, 이 몸 아닌 몸 잔등이에 그냥 처억 (주먹으로 손바닥에 도장을 찍듯이 하시며) 인가를 받죠. 이렇게 인가받은 도장이 바로 법륜 마크나 만(卍) 자 이런 것입니다. 그게 한만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중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상세계도 엄연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중세계에서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러한 공부가 돼서 진짜로 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면 벗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대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옷을 벗으려면 벗고 말려면 말고, 금방 옷을 여기다 벗어 놓고선 그냥 가서 또 자유스럽게 이 옷을 입으려도 입고, 저 옷을 입으려도 입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해 보시지 않았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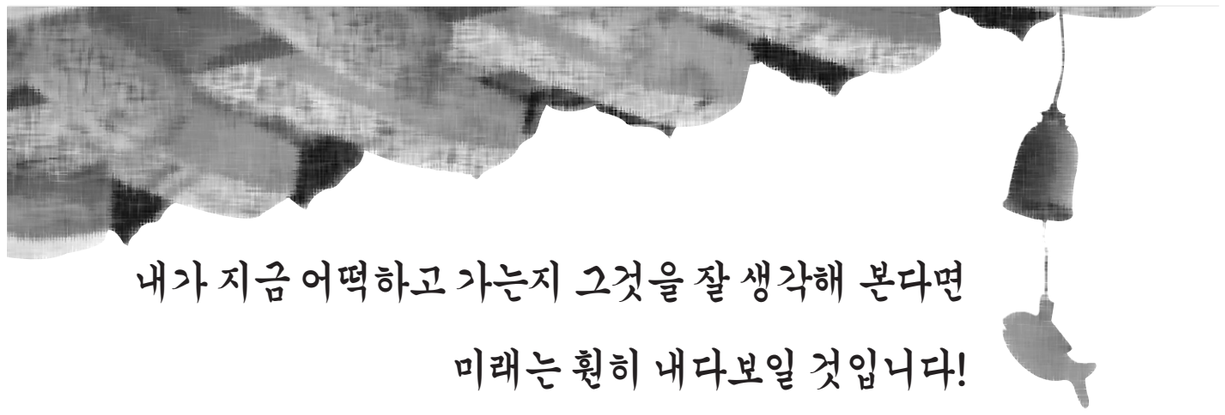
그런데 말입니다,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한국전쟁 때 말입니다. 접시비행기라는 말 들어 보셨죠? 많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게 접시 모양뿐만 아니라 타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뭐 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긴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움죽거리는지 보셨습니까? 난 그때에 나이가 어렸지만 말입니다, 한 스물서넛 이렇게 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떴는데 그 하나에서 줄을 지어서 나와요. 지금이 아니라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죠.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이건 마음의 자유로구나. 모습을 이걸로도 하고 저걸로도 할 수 있으니 부처님께서 천백억화신으로 화(化)해서 나오게 되면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서 응신(應身)으로 돼 준다고 하신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생각에 보살들을 헤아릴 수 없이 낳아서, 원하는 중생들에게 모두 하나로 응신이 돼 주신다고 그러셨죠. 또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 놓으면 한쪽에는 문수보살, 한쪽에는 보현보살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法身)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움죽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현신이 되거든요. 그것은 보현신이 되기 이전에 한 찰나에 화신(化身)으로 화해서 보현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삼신(三身)이 바로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생각을 냈다 하면 움죽거리고, '저기 있는 거 가져와야지.' 한다면 벌써 일어나서 움죽거리죠? 그것이 그대로 바로 법신이자 부처이자 보현신이에요, 그냥 그대로. 따로따로 배울 게 없어요, 따로따로 배우다간 뭐, 이 생이 다 가게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바른팔은 문수요, 부처님의 왼팔은 보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허허허….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이 팔을 생각해 보세요. (양팔을 벌려 보이시면서) 내 바른팔은 문수이고, 왼팔은 보현이다 이렇게요. 이거는 (왼팔을 들어 보이시면서) 바른팔을 도와주거든요, 어디까지나. 바른팔만으로도 할 수 있을 때는 혼자 그냥 독단으로 해 버려요. 그러나 어디가 좀 무겁다 이러면 왼팔이 도와주죠,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한 개체에 다양하게 다 들어 있는데, 말로 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제일 시급한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영계성 · 인과성 · 업보성 · 세균성 · 유전성, 다섯 가지가 다 들어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으냐 적으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 지금 사람들이 모두 알아듣게 하려면 컴퓨터에 입력했다고 하면 될 거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컴퓨터이니까요.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해라 이겁니다. 그것도 굴려서 입력을 해라 이거죠. 그대로 입력을 하면 그대로 들어가니까, 다시 한 번 굴려서 거기다 입력을 해라. '헌 물이 나온 것도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새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곤 바꾸어서 그냥 탁 넣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헌 물, 새 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가는 데 일거수일투족이 다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5년 12월 3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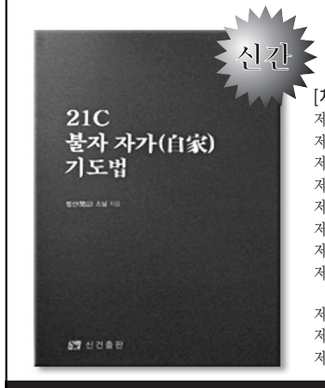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퉁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제 8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 초급반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반(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반(3개월) :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특 수 반 :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살풀이 연화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 · 목 오후 3시 ~ 5시

본원은 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근기에맞는 스님들을모시고 여법하게봉행하여 드림.

전통범음범패전수원 원광사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 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벗벗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경기침체와 '거품'에 대한 반응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연말은 지금 유쾌한 모습이 아니다.

'거품'이라는 단어가 생활 전면에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꿈과 같고, 허깨비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실감하는 것일까?

그런 거품 가운데서도 실소를 자아내는 이야기가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자산이 쪼그라든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숨겨둔 애인을 정리하고 있다는 조사내용이다.

조사결과 억만장자 대부분은 숨겨둔 애인이 있는데 이 가운데 70%가 애인의 생활비 지원을 줄였으며 12%는 재정상태를 이유로 관계청산을 고려하고 있다 한다. 남성 억만장자의 경우다.

한편 여성 억만장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애인에게 쓰는 비용을 더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인데 조사에 임했던 사회학자 曰, '외도가 남성에게는 재산이나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지만, 여성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위한 것으로 근심에 대한 도피처로 이용되기 때문'이란다.

어느 경우든 대표적 '욕망의 거품' 하나를 본 셈이다.

동물에게도 '욕망의 거품'이 있을까?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인간이 오늘처럼 인간답게 진화해 올 수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좀 더 그럴듯해 보인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인간은 그 반응에서 다른 동물에 비해 그다지 빠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동물들 뇌는 외부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인간의 뇌는 약간 느린 반응을 보인다. 아니 반응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응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왔고,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그리고 문명과 과학 문화 철학 종교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지연'이라는 틈새에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런 주장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어쩌면 그 틈새에서 생각이 진화해 왔다고 보아야 할까?

즉각적인 반응. 인간의 삶에서 그 전광석화 같은 재빠름이 필요한 경우는 많다. 그러나 재삼재사 숙고해야 할 일도 많으며, 특히 생각의 깊이에 따라 인간의 정신세계가 형성돼 왔을 것이다.

'한번 사색에 빠져들면 더욱 깊은 사색에 빠져들고 이처럼 반복되는 사색으로 해서 우주론이 탄생한다.'는 천문학자들의 믿음에도 그런 생각의 힘을 엿볼 수 있다.

방울뱀이 적외선으로 우주를 감지한다지만 인간처럼 우주를 읽어내려 하지 않는다.

무한 우주를 보이지 않는 미세 세계의 '초 끈 이론'으로 풀어내는 인간의 사색과 연구 성과를 보라.

초강력 현미경이 있어 미세한 소립자 규모의 세계를 들여다본다면 보이는 것은 수백 가지의 점 입자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진동하는 '끈'이라는 사실. '그 끈의 진동패턴에 따라 입자의 종류가 달라지며 우주는 이 끈이 연주하는 교향곡'이라는 과학적 추론은 깊은 명상 속에서 우주를 체득하는 종교의 경지에 근접하고 있다. '티끌 하나마다가 우주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올바로 흐를 경우 인간은 이처럼 우주의 신비를 얻을 수도 있고, 올바로 흐르지 못할 경우 '욕망의 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터넷 혁명이라고들 한다. 인터넷 세계를 구성하는 인터넷 인류들, 지난 한해 그 네티즌들이 보여 준 사회적 여러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들에서 우리는 생각의 깊이를 발견할 수 없다. 동물에 없는 '반응의 지연 능력'을 포기하는 것일까?

이는 연말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반응에서도 보인다.

'생각'에 깊이를 더해 보면 우리에게는 잘못 길든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인간적인 품위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전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5 마음의 힘을 믿자

최근의 경제 상황은 졸업을 앞 둔 대학생들에게 결코 밝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상황이나 사회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만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자각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의 입력을 소개한다.

'난 못해' ⇨ '무조건 해보자'

나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겁 먹어 시작조차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저건 어려워' '난 안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도 전에 시작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막상 시작을 하면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길이 보이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런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를 보았습니다. 70이 훌쩍 넘은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선 공부를 하셨습니다. 비록 중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지만 하루에 13시간 이상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의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어려서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하시고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공부라 했습니다. 집 안에 가득한 수학공식과 각종 외워야 할 것들은 벽에 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젊은 사람들이 10번 보면 될 것, 나는 천 번 보고 만 번 보면 된다. 그게 공부다.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꼭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렸을 때의 한이 맺히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편으로 '지금 꼭 공부해야 하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시작도 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작이 반이다. 무조건 해 볼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자' 라고 마음의 입력을 바꾸려고 합니다.

'안좋은 일만' ⇨' 좋은 일 많을거야'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는 또 다른 좋지 않은 일과 겹쳐서 더욱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그런 상황이 오면 스스로 견뎌내지 못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스스로 절망을 하고 힘들어 합니다. 얼마 전 가까운 친구에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학교생활도 잘 되지 않고, 학교 시험에, 그리고 이어지는 취업 낙방소식,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경제 상황은 저를 절망으로 끌어 당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할까? 하며 저 같은 4학년에게 주어진 이런 저런 나쁜 상황이 마치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은 부정은 부정을 부르고 긍정은 긍정을 부른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결국 그동안 살면서 저는 나쁜 쪽으로만 주로 생각한 것입니다. 부정이 부정을 부르듯 생각을 해보면, 긍정은 긍정을 불렀습니다. 좋을 때는 인식을 못하고, 좋지 않은 상황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좋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좋은 일에 웃음이 끈이지 않았던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때는 웃으며 생각도 못한 사이 넘어 간 것 입니다. 지금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더 큰 상황이 발생해도 이겨 낼 수도 있고,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을 해서 긍정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이 있으면 햇볕이 쨍쨍 찌는 날도 있다. 어려운 지금을 잘 넘기면 좋은 날에 더욱 크게 웃을 수 있다'라고 바꿔 생각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절망이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위대한 점은 바로 절망과 악조건 속에서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힘이다. 긍정적으로 마음의 입력을 하다보면 결국 상황도 바뀐다는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일체는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불자 여러분, 모두 마음의 힘을 믿고 힘냅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해가 바뀌어도 기억해야할 것들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을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해(年)와 달(月)과 날(日) 그리고 시간으로 이름 붙여 나누고 있다. 여기서부터 중생은 분별의 궤도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분별을 뛰어 넘는 공부를 한다는 불자들도 허상과 실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매여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는 동안 또 한해가 저물고 있고, 이 시간이라는 분별의 단위 앞에서 가는 해를 아쉬워한다.

새해가 밝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 한파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내년 상반기는 불황의 극에 달할 것'이란 예보 앞에 잔뜩 주눅 들어 있을 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 바뀌는 것은 다만 시간의 흐름에 대한 분별의 한 가닥일 뿐이고 큰 공부를 하는 불자로서의 삶은 그와 상관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공부를 하고 있는 불자이기에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들떠 헛된 망상을 피워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 해를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밀린 이자를 잘 내는 것만이 흘러간 시간에 대한 정리가 아닐 것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대승적인 안목으로 지나간 시간을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을 스스로 반성해 향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을 별러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되돌아보는 2008년은 참으로 쓸쓸하고 공허하다. 혼란과 대립의 연속이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보 제1호 '숭례문'을 홀랑 태워 먹으면서 한 해를 시작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의 갈등으로 상반기를 보냈다. 그런 가운데 여기저기서 분출되는 종교편향 사례들로 불자는 분노했고 국민들은 종교계를 향해 비난의 눈길을 보냈다. 마침내 불교계에서는 대형 집회를 가지면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졌고 장로 대통령의 정부는 시원한 답변 없이 어물어물 넘어가 버렸다.

찬바람이 불 때에 맞춰 미국발 경제위기가 글로벌 경제 한파로 기상도를 바꿔 놓았고 우리나라 역시 제2의 IMF를 경험하는 극한 난맥상으로 빠져들었다. 이 와중에 국회는 날마다 싸움질이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돌아 본 2008년은 베이징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해 준 것 말고는 즐거운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는 말자. 모든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업이다. 이웃종교를 존중하지 못한 것도 다른 정당과 상생하지 못하는 것도 먹거리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모두 우리 시대의 공업이다. 나와 너라는 분별이 만들어낸 공업에서 나만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천지(天地)가 동근(同根)인데 시시비비를 하느라 시간만 허비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나의 소중함 보다 남의 귀함을 먼저 생각하는데서 상생과 화합은 드러난다. 옳지 않았던 일이라고 무조건 잊어버리기 보다는 그 옳지 않음을 극복하는 지혜를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그것이 상생을 위한 준비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보다 더 큰 '자아'를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챙겨야 할 것이다. 해가 바뀌어도 기억할 것은 기억하자.

화제의 신간
新 토정비결
2009 년(己丑年) 천년 약속 평생운세
내 운명, 내 운세는 내가 본다!!
21세기 新개념의 평생운세! 토정식 백광비결

현대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실생활에 맞는 운세풀이로
결혼이나 재혼을 앞둔 남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법과
후천적인 운명의 행운을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 저술하였다.
역술학의 성전...
지금바로 펼쳐보십시오!!
白珖(백광) 지음 / 신국판 / 352쪽 / 정가 15,000원
전국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21세기 新 개념의...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새 시대에 세계의 의학계를 선도할
'사주명리 한방처방학'이 드디어 출간,
세상에 나왔다!

전통 한의학과
음양오행학을 연결!!!
新 한의학 이론을 체계화!!
누구나 신개념의
한방처방이 한눈에 쏙쏙!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 권 880쪽, || 권 680쪽/각 권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생활불교 법구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8년 11월 28일 부터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해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당되는 분은 악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 세로4.5cm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천연백수정108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 또는 합장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신용카드 분할가)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불공 마쳐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평생 부자가되게 축원불공을 마친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호 소 문

대한불교 총화종 종단 소속 승려 및 130만 종도 여러분!

삼보에 귀의하옵고,

최근 총화종 본산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재산이 송두리째 넘어가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대한불교 총화종을 없애버리려는 무리가 있어 우리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총화종은 창립 이래 50여 년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총화종 본산을 두고 현재 700여개의 사찰과 1,000여명의 승려, 130여만 명의 신도로 대한불교 26개 불교 종단 중상위를 자랑하는 종단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아직 법인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어 법인 설립이 뜻있는 종도들의 염원이었는 바, 현 총무원장은 이러한 염원을 외면한 채 자기가 만년 독재를 하려는 의도하에 "재단법인 대한불교 유지재단"이 아닌 "재단법인 한국불교 유지재단"이라는 엉뚱한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구성원도 자신의 처와 아들. 후처와 후처 자식으로 구성해 놓고 이 엉뚱한 재단에 우리 대한불교 총화종의 본산과 그 외 재산을 귀속시켜 버렸습니다.(첨부한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총무원장의 상좌 등을 모두 체탈 및 제적처분을 하여 종단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이때에 총무원장의 행태를 수수 방관한다면, 우리의 본산은 엉뚱한 재단에 넘어감은 물론 대한불교 총화종은 소멸하고 말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종단 소속 승려 및 신도 여러분!

이렇게 대한불교 총화종과는 무관한 가족 중심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의 명칭을 없애고 그 재산을 넘겨버린 것이 해종(害宗)인지, 그것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행위가 해종행위인지요?

더군다나 승려의 본분도 모르고 바르지 못한 행실을 일삼은 이러한 승려가 이제는 종단을 송두리째 집어먹으려 하고 있기에 총무원장 전영호의 상좌들을 포함한 뜻있는 승려들이 이에 분연히 맞서 대한불교 총화종을 지키고 우리의 총본산인 종로구 창신동 재산을 되찾고 나아가 우리 종단에서 전영호와 같은 사악한 무리를 몰아내기 위해 일어섰는 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합하여 주시면, 우리 대한불교 총화종은 길이길이 보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승려가 대한민국 불교계의 지도자의 일원이라는 현실이 실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종도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하나되어 종찰이며 본 종단의 종본산을 되찾아 사부대중의 기도정진 도량으로 돌리는데 동참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 **후원회 계좌**
국민은행 058101-04-198626
[예금주 : 비상대책위원회(조동락)]

◆ **사 무 실**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564번지 정혜사 內
031)531-7749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건물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3 고유번호 1103-1996-538170

【 표 제 부 】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992년5월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3	철근콘크리트 스레브지붕 1층 66.36㎡ 2층 66.36㎡ 3층 66.36㎡ 지층 67.38㎡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7월 12일 전산이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 1)	소유권보존	1998년12월18일 제86642호	1/2	소유자 대한불교총화종 111113-0026868 서울 종로구 창신동 93 이사장 전영호 401015-1****** 남양주시 호평동 342-1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7월 12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07년10월18일	2007년10월15일	소유자 재단법인한국불교총화종지계관 284122-0002370

열람일시 : 2008년12월17일 오후 5시55분53초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3 고유번호 1103-1996-538170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제61316호	증여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대한불교총화종 종단 재산환수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합장